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0월 1일 수요일 (주간) 제 441 호



석조문화재 관리 '빨간불'

문화재청 국감 경북지역 경우 절반이 훼손 심각

불교 석조문화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9월 2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경북지역 석조문화재 50%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문화재 전문가들은 전국에 선재해 있는 석조문화재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불교석조문화재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감에서 심재권(민주당) 의원은 "감은사지 3층 석탑은 지난해 동탑의 옥개석이 탈락한데 이어, 현재 서탑의 옥개석도 파괴된 상황"이라며 "2002 상반기 정기점검 때 이상 없었던 서탑이 하반기 점검에서 옥개석 탈락위기로 진단받은 것은 정기점검이 허술하다는 증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신영균(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재청은 2001년 경북지역 석조문화재의 50%가 훼손이 심각한 4~5 등급으로 판정받고, 1~2년 이내에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지만, 아직 제대로 점검도 실시한 적이 없다"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중앙문화재전문위원인 박경식(단국대) 교수는 "이런 결과는 경북지역 석조문화재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며 석조문화재 대부분이 워낙 오랜 시간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적 요인이나 지반침하 등으로 석조문화재가 도괴되는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반침하, 산성비와 소금기 섞인 해풍, 생물 서식 등으로 인해 석조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수 십 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9층 석탑도 기단 부재 일부에 금이 가는 등의 훼손이 발견됐고, 국보 제112호 감은사지 3층 석탑도 동탑과 서탑 모두 문제가 발생, 현재 보수를 위한 설계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 중장비 발달로 인해 문화재 도굴이 쉬워진 점도 석조문화재 관리의 문제 중 하나다.

이기선 조계종 성조문화재위원은 "지정 문화재 관리자 가운데 일부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고, 관리자에 대한 중앙의 감독도 소홀한 실정"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불교계도 지방 불교단체와 연계해 '지역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장려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2면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경전도 보지 않고 좌선도 않으면서/ 말없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종취(宗趣)인가/ 바람 흐르지 않는 곳에 바람 넘치고 있으니/ 푸른 산봉우리에 천년 빼어난 고송(古松)이로다"

근대 한국불교계의 큰 스승이었던 한암 중원선사께서 고송 종협선사에게 내린 전법게를 번역한 것이다.

지난 9월 22일 한국 불교계의 거목이 한그루 쓰러졌다. 그 나무는 천년 묵은 고송이었다. 고송은 경망한 마음에 뛰어 넘을 수 없는 시간의 무게를 전달해 준다. 때문에 고송을 보는 것만으로도 3독에 가려 헐떡이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고송은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도 지조를 지킬 수 있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기에 어렵을 적 뛰어 놀던 자상한 할아버지의 무릎을 생각하게 한다. 그런 고송이 쓰러졌다.

형상 없는 '천년 古松'

필자는 십여 년 전 오대산 월정사에서 스님을 뵙고 동해안 낙산사와 신흥사를 함께 여행한 적이 있다. 당시 스님은 눈빛이 형형했으며, 청빈함이 묻어나는 감색물을 들인 승복을 입고 계셨다. 껍데기 불교인이 되지 말라는 경책은 지금도 생생하다. 조계종 원로의원은 5일장을 하는 것이 관례다. 그렇지만 스님의 장례는 유언에 따라 3일장으로 간소하게 마쳤다. 남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태풍으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다. 마지막까지 출가자의 본분과 보살정신을 보여주신 것이다.

오고가는 것이 없는 것이 법신이지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오고가는 것을 보이는 것 역시 법신의 속성이다. 그래서 보임과 보이지 않음이 둘이 아니다. 이제 형상의 고송은 쓰러져 우리들 곁을 떠나갔지만 무형상의 천년 고송이 미망 중생들을 인도할 것이다.

차차석(본지 상임논설위원)

정부, 북한산 해법 공론조사 제의

조계종, 환경단체 의견 수렴 최종 결정

북한산 관통도로 해법으로 정부가 공론조사를 제의했다. 그러나 불교 환경 · 사회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환경 ·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조사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함으로써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22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북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조계종 공대위, 불교환경연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16개 환경 · 신도 ·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공론조사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공론조사 반대의견이 비등하자, 수용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조계종 총무원은 25일 집행부 회의를 열고 10월초까지 환경 · 사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명우 · 남동우 기자



'천성산을 살립시다'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여성성직자들이 나섰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여성 성직자들은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강행에 항의하며 9월 26~10월 8일 13일간 부산역에서 천성산 정상 화엄벌까지(총 50Km) 삼보일배 정진한다. 사진은 첫날 부산역을 출발한 비구니 스님 등 여성성직자 50여명이 삼보일배를 하는 모습. 관련기사 14면 사진= 천미희 기자

한 · 중 · 일 종교지도자들 서울서 평화봉사 포럼

종교인평화봉사단(NCRPC)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주최하고 일본종교인평화봉사단(WCRP/Japan)과 중국종교인평화봉사단(CCRP)이 함께하는 '한 · 중 · 일 3국 종교지도자 평화봉사포럼'이 11월 4일부터 2박 3일간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개최된다.

동북아 3국의 종교지도자 60여명이 참석하게 될 평화봉사포럼은 동서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인류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KCRP, CCRP, WCRP/Japan를 중심으로 각 나라별 종교인평화봉사단을 조직하고 한 · 중 · 일 3국간 평화봉사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한다. 또 2004년도 국제평화봉사단 활동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군승특별교구 설치 본격 추진

조계종,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성광 스님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군승특별교구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9월 23일 서울 조계종 포교원 3층 회의실에서 제13차 상임회의를 갖고 '(가칭)군승교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군승특별교구 설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군불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칭)군승교구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군불교위원회 위원장 성광 스님을 선출하고,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군불교위원회는 우선 승려법, 법계법, 교육법 등 관련 종헌 · 종법령 제 · 개정 손질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10월 중순경에 군승특별교구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수재민들 고통 덜어주세요

조계종 · 불교계 언론사들 모금운동

태풍 '매미'는 너무나도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비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수재민 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수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대한불교신문사 · 법보신문사 · 불교신문사 · 주간불교신문사 · 현대불교신문사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재)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39894(재)불교중앙교원

※성금 접수처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735-5864)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 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회장상이 신설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문의 전화: (02)722-4162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 … 12월 13일 마감

●시상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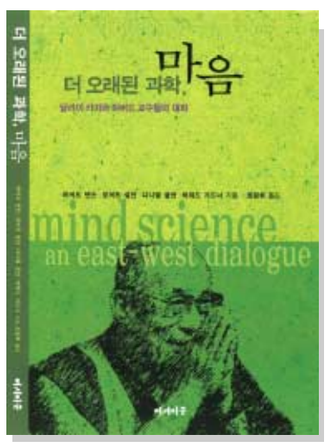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최근호 보도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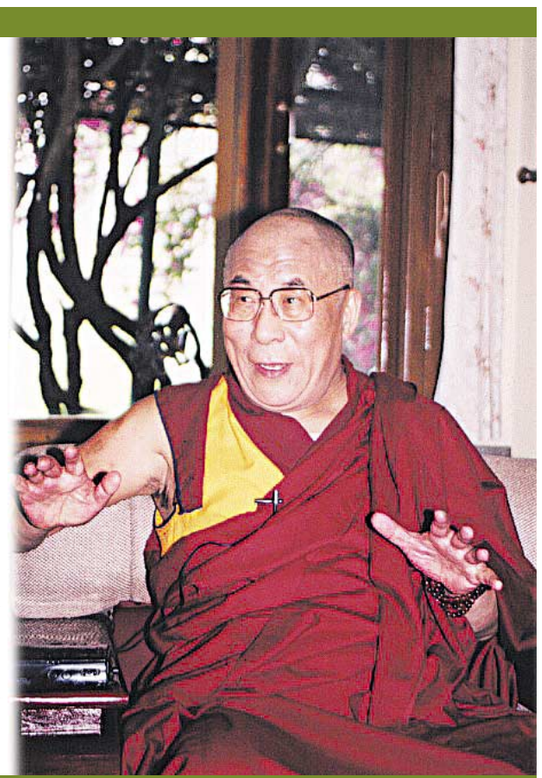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등이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된다는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mind science

☞ 법보시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사 설

군승특별교구 설치 서둘러야

조계종 군불교위원회가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승특별교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필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행동은 속도가 늦추어져 왔다.

9월 23일 군불교위원회가 군승교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필요성을 현실화 하는 실질적인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어서 고무적이다.

군승특별교구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군 포교와 관련한 종단차원의 열의가 배가된다는 점과 군법사들의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다. 물론 궁극의 목적인 군 포교의 토양이 그만큼 기름지게 될 것이란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군 포교에 대한 종단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와 포교 프로그램의 일관적인 공급 등 포교현장의 '기동력' 강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군승특별교구의 설치라는 데 이견이 없다. 또 종단과 군, 군 법사, 각종 후원활동 단체를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코드 역시 군승특별교구라는 법적 장치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 포교의 일선에 나가 있는 군법사들이 군내에서 보다 분명한 위상을 갖고 종단 내에서도 책임감 있는 지위를 갖게 됨으로 가일층 군 포교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때 군승특별교구의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하루라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군 포교의 활성화란 과제를 풀기 위해 군승특별교구 설치 작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사찰문화재 보수 예산 유감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상처가 너무 크다. 수재민은 말할 것 없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문화재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태풍이란 자연의 위력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이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도 사찰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 수준(51억3천1백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 사찰당 지원상한금은 6천만원이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비가 수억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광부가 사찰당 상한액을 6천만원으로 정한 탓이다.

문화재 보수를 사람의 몸에 빗대어 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셈이다. 응급처리를 요하는 환자도 있고 꾸준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도 있다. 또한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쾌되고 비용이 적게 들 것을 때를 놓치면,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사찰 문화재가 차지하는 문화재의 위상에 걸맞게 보수에 따른 예산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조사에 앞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해야 할 사업이 문화재를 현상대로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집안에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병원을 먼저 찾아 진단을 받지 않든가.

문화재 보수만을 위한 특별 적립금을 구축하자.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따른 회계절차에 구애됨 없이 응급처치부터 장기적인 처리를 위한, 그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초·중·고 국사·윤리교과서 불교기술 오류많아

교계에 교과서 감수부 둬야"

용어 오용·종교편향적 서술등

제7차 교육과정에 쓰이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국사·윤리 교과서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불교의식을 심어주고 있어 관련내용 오류수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인원 문학박사(진선여고 교사)는 9월 22일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소장 김형중)의 월례세미나에서 대한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등 4개 출판사가 발행한 검인증 국사 교과서에 실린 불교 내용과 기술 분량을 타종교와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서 박사는 "교과서 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불교를 개신교 등에 비해 적게 기술하는 등 불교계의 사회참여운동과 문화선도 기능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사학과 불교학의 연계와 검인정 집필자 선정 및 교정과정에 불교학자 참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교계 내 교과서 감수부서의 설치"를 주장했다.

이어 주보연 철학박사(진선여고 교사)는 국정교과서인 전통윤리 교과서에 기술된 불교용어의 오류와 종교적 편파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기본적인 용어인 '스님'이란 말조차 산승, 스님, 승려 등 편리에 따라 재각각 표기돼 있어 학생들의 혼란과 오해를 유발하고 있고, 불교의 삼법인이나 참선에 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잘못된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교과서의 한국전통사상 부분을 보면 유교에 관한 기술이 90페이지 1,372줄에 달했으나 불교는 9페이지 63줄에 그쳐 일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며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상 전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즉, 교과서가 청소년들의 사고에 미칠 영향과 불교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갖는 학생 증가에 따른 파장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형중 교법사는 "지속적인 연구와 발표를 통해 교과서 내 불교문화와 역사의 오류와 폄하내용들이 수정되려면 종단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문화연구소 내 교법사들과 현직 종립학교 교사들은 2002년 6월부터 정기적인 월례세미나 자리를 갖고 현 7차 교과서를 분석, 2002년 조계종과 백서를 발간하는 등 교과서 내 불교내용 오류 수정운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북한산문제등 추궁

국회 국정감사 이모저모

◇정무위원회=9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산 관통도로는 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상희 우이령보존회 부회장은 '암(癌)'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부채를 국감장에 가지고 나와 "암이라는 한자를 보라. 뫼 '산'자 위에 입 '구'자가 세 개 있다. 그 위에 병질 '엄'이라는 부수가 있다.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면 바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관광부=같은 날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은 "평당 1천만 원의 25평짜리 대웅전을 보수할 경우 총 2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상한액을 6천만 원으로 할 경우 사찰 자부담이 1억3천만 원이 된다"며 "지원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9월 2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신영균 의원(한나라당)은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없는 종목이 영산재를 포함해 5개이며 전수조교도 없는 항목은 24개나 된다"고 지적했고, 고흥길 의원은 "보유자가 부족한 종목은 예산 지원도 적어 전수활동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동우·이동혁·오유진기자

해외거주·파견 포교사

한국문화 체험행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0월 2~5일 해외거주 및 파견예정 국제포교사를 대상으로 경북 안동, 문경, 충북 단양 등지에서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갖는다.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4회째 열리는 이 행사는 조계종, 진각종, 총지종, 원불교 소속 77명의 국제포교사가 참여해 봉암사, 부석사, 봉정암, 구인사 등 사찰답사와 안동 하회마을, 소수서원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내년 문광부예산안 확정

불교관련 사업지원 136억

문화관광부 내년도 예산이 1조 3930억원으로 확정됐다. 불교 관련 예산은 136억810만원으로 1.02%의 비율을 차지했다.

전통사찰보수정비 비용 51억 3100만원을 비롯해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5억 6000만원,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 4억, 작업템플 스테이 3억원, 세계여성불자대회 2억원 등이 책정됐다.

이동혁 기자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말소된 스님 1667명 구제의 길 열려

조계종 임시 중앙종회 승려법 개정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스님들이 다시 승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23일 조계사 수행관에서 제160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승려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승려법 제54조 3항 제적처리 조항 중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자동 말소되어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삭제하고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해 복적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현재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말소된 1,667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종회는 또 11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승가이사 후보로 장윤, 성오 스님 등 10명을 복수 추천했다. 그러나 재가이사 추천 동의건은 재단 이사회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차기 종회로 이월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공석 중인 중앙선관위원에는 심경 스님(전 총무원 재무부장)을 선출하고, 임기 만료된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여연 스님(전 종회의원)을 재선출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

사서국장 본해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9월 22일 공석 중이던 사서국장에 본해 스님을 임명했다.

본해 스님은 종성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6년과 89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99년부터 올 4월까지 경북 성주 심원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명우 기자

수재민성금 모금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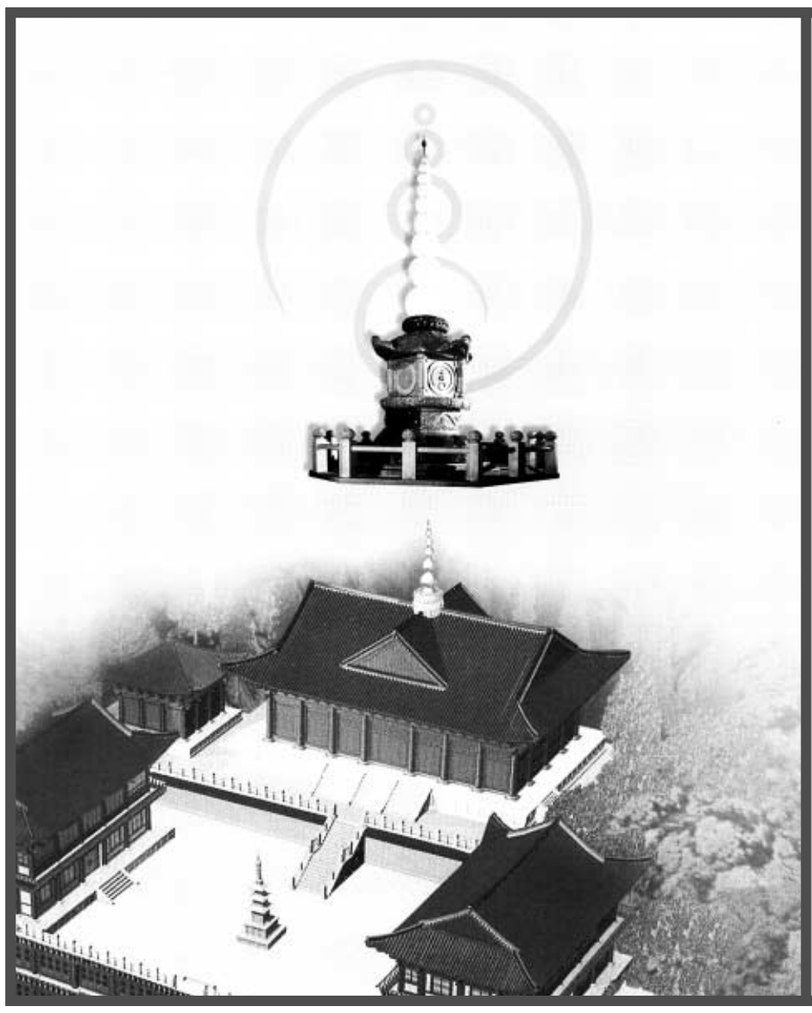
불자들의 동참 줄이어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수재민 돕기 캠페인에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9월 26일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1천80만원, 평불협 3백만원, 용덕사 2백30만원, 봉국사 2백만원 등 모두 1억3천1백40여만원이 모금됐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법당 상량식

▶ 일시 : 2003년 10월 12일(일) 오전 11시 ▶ 장소 : 한마음선원부산지원(태종대중학교 뒤)

모시는 글

귀의자성삼보 하옵고
나와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는 요즈음 입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사부대중은 만생명이 한마음 도리를 깨달아 대자유의 삶을 나투게 할 우주법계의 근본도량 건립을 발원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불자님들을 모시고 대웅전 상량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귀한 인연자리에 큰걸음으로 한자리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 도
신도회장 박성빈 합장

부산시 영도구 동삼 1동 중리 522-1번지
전화 051)403-7077 / 팩스 051)403-1077 www.hanmaum.org

대상 선정 모호 · 합의도출 어려워

공론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조계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거부하지니 공론조사를 대신할 대안이 없고, 수용하자니 불교 환경 ·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일단 불교계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공론조사 수용이나 거부시 불교계 대내외적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론조사는 무엇이고, 실시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봤다.

공론조사 방법과 문제점

⊙공론조사란?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창안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론조사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조사표본을 추출한 뒤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의견조사를 한다. 이어 찬반 양측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뒤 토론을 유도한다. 토론을 통해 생각이 정리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차 의견조사를 한다.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로서 영향력을 가진다.

공론조사는 지난 94년 영국에서 유럽 단일통화 가입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실시됐으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지역 사회의 중요 현안 해결에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실시된 적도, 전문가도 없어 시행시 창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 표본추출 의견 타진

조사 · 토론 방식 합의 없으면 시간 걸려

안자가 초청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 시행되나?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 유인태 정무수석은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많게는 1천명, 적게는 500명 정도로 해 이들이 사안을 알 때까지 충분하게 설명하고 서로 토론을 하게 한 뒤 이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찬반 인원 구성비는 반반씩 할 수도 있고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찬반 비율대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일단 불교계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불교계가 참여 의사를 밝히더라도 조사 대상부터 인원 구성, 방법 등 모든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최창원 서기관은 "어느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기획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언론사에서 주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문제점

불교계가 공론조사에 참여하더라도 표본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떤 성향의 사람을 얼마나 포함시킬지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즉 지역 주민과 불교계, 환경단체 인사들을 얼마나 어떤 구성비로 하는가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조사방법이나, 토론방식 등 모든 것이 상호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론조사와 관련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정부가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정책 결정력 부족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관통비 · 관통 이전에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조계종 사회과장 역시 "환경 문제를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사고부터가 문제"라며 "환경은 여론이 아닌 가치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생전으 고송 스님.



◇고송 스님 다비식은 24일 파계사 문도장으로 엄수됐다.

"사바세계 돌아와 중생교화를"

고송 스님 9월 22일 입적…파계사서 간소한 영결식

9월 28일 49재 입재 … 11월 9일 회향

조계종 최고령 명예원로의원이며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었던 파계사 조실 고송당 종협 대종사가 9월 22일 0시40분경 세수 98세, 법랍 83세를 일기로 파계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고송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24일 파계사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결식은 평소 검소한 삶을 강조한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파계사 설법전에서 간소하면서도 여법하게 봉행됐다. 영결식에는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명예원로의원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은 영결식 법어에서 "고송스님은 용성스님, 한암스님 등 당대 선지식 스님들을 모시고 수행한 몇 안되는 스님 중 한 분"이라고 회고하며 "본래 나고 죽음이 없으니 하루속히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 중생을 교화해 달라"고 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조사에서 "스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시간 가량 봉행된 영결식에 이어 고송스님의 법구는 7개의 만장을 든 스님들이 길을 연 가운데 영결식장을 출발해 파계사 다비장으로 운구된 뒤 연화대에 올려졌다.

다비식은 불교계 원로와 문도 대표 등 10여명의 스님들이 거화했으며, 사리와 유골은 다음날 수습했다. 49재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파계사 설법전에서 입재해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하며 11월 9일 회향한다.

고송스님은 1906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1920년 팔공산 파계사에서 상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이어 1925년 도봉산 망월사에서 용성스님이 주도한 30년 결사에 동참하는 등 금강산과 묘향산 일대에서 수행정진 해오다 1938년에는 한암선사로부터 전법계를 수지했다. 1975년 조계종 원로의원 소임을 맡았고 팔공산 파계사에는 지난 1954년부터 주석해왔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한국갤럽 조사

종교인구 5년동안 10% 증가

불교 8.7% 늘어

사회현안 헌신적 참여 · 종단 안정의 결과

한국갤럽이 올해 발표한 종교인구 현황을 1997년의 같은 조사와 비교한 결과 종교인구 비율 10%가량 증가했으며 증가비율의 대부분이 불교인구의 증가(8.7%)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가 불교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 문화적 변동에 따른 요인이라는 주장이 나와 앞으로의 포교전략과 관련해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법회와 설법> 10월호(조계종 포교원)에 기고한 '불교인구 10% 증가의 뜻'이란 글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데 이어 불교문화정보 네트워크는 10월 7일 오후 7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같은 주제의 포럼을 계획하고 있어 그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1989년, 1997년, 2003년 조사한 종교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종교인구의 변화를 추적한 앞의 글에서 윤 연구위원은 "증가분의 대부분이 불교에 돌아간 것은 해방 이후 개신교가 성장을 주도해온 한국 종교계의 흐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고 밝혔다.

전체 종교인구 비율을 특히 1997년과 비교해 보면 46.9%에서 56.9%로 10%나 증가했다. 이를 종교별로 보면 1985년 18.8%, 1989년 20.9%, 1997년 18.3%였던 불교가 2003년에는 27.0%로 바로 앞 조사에 비해 8.7%라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기독교는 17.2%→19.2%→20.3%→21.2%로 상승 추세이긴 하나 1997년에 비해서는 0.9% 증가에 그쳤다. 1985년(1.3%)에 비해 1989년 2.7% 증가로 상승곡선을 탔던 천주교 역시 1997년 7.4%에서 2003년 7.6%로 0.2%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종교인구 비율 증가의 주 원인이 불교인구의 증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석은 분분하다.

포교원 포교연구실 박희승 차장은 "수경, 지율 스님처럼 사회 현안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97, 98년 이후 조계종단이 안정 · 화합의 길을 걷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불교계 내부 변화가 주 동인"이라고 들여다봤다.

이에 비해 윤 연구위원은 "이 기간동안(1997~2003년)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큼 큰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앙대중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불교의 내적인 신앙특성과 맞아떨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며 "냉철하게 그 원인을 따져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전통한정식 복 현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주차장완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합장 배례



외국인 포교에 남다른 열정

연등국제선원장 원명 스님 9월 23일 입적

외국인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큰 힘을 기울여온 연등국제선원 선원장 원명 스님이 9월 23일 오전 6시 합천 청량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53세, 법랍 33세.

195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1970년 해인사에서 전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이 외국인 포교에 뛰어든 것은 1985년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연등국제불교회관을 개원하면서부터다. 이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독일 등에 해외 분원을 설치했고, 외국인 수행자가 늘어나자 1997년에는 강화도에 연등국제선원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스님들을 길러내기 시작했다. 맏상좌 일백 스님을 제외한 10여 명의 상좌가 모두 외국인 스님이다.

스님 입적 전부터 방글라데시 출신 일보 스님이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의 운영을, 스위스 출신 일고 스님이 강화 연등국제선원을 맡아오고 있어 이 두 곳에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권형진 기자

천안 성불사 가을 산사음악회

인 사 말 씀

천년의 혼이 숨쉬고 불자님들의 안식처이며 기도처인 천안 태조산 성불사가 가을산사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포교와 불교문화의 멋과 운치를 펼쳐 보이려 합니다.
이제 성불사가 잠에서 깨어나 꿈을 향해 나래를 폈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우리들 마음 깊이 점을 찍어 봅시다.
동료 불자와 가족들을 산사음악회에 초대하오니 무루동참하시어 이 가을의 낭만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불기 2547년 10월

주지 **원 경** 합장

⊙ 일 시 : 2003년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천안 성불사 경내



프 롤 로 그

사물놀이 성불사 풍물패
합 창 성불사 • 각원사 • 공주포교당 합창단 태조산 성불사, 기쁜날, 법고등등

본 공 연

1. 풍물팀 두드락 – 대북연주
2. 정태춘, 박은옥 – 시인의 마을, 촛불, 사랑하는 이에게 등
3.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연주 (1곡) : 영산회상
4. 성불사 • 각원사 • 공주포교당 합창단,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합창곡 – 운수대통, 우리는 서로 만났습니다.
5. 최정원, 성불사 • 각원사 • 공주포교당 합창단,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 부처님 이야기
6. 최정원,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 찬미의 나라, 꽃을 바치나이다 진도아리랑
7. 유진박, 천안시 국악관현악단 – 고구려의 혼
8. 유진박 – 락 & 롤 등
9. 유진박 & 홍화자 – 손에 손잡고, 빅토리
10. 정율스님 –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향심, 고향의 노래
11. 안치환 – 귀뚜라미, 철망앞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12. 박정숙 – 배뱅이 굿

대한불교 조계종 태조산 성불사 충남 천안시 안서동 178-8번지 TEL 041)565-4567



대충 대종사 열반대재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9월 28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전 종정 대충대종사 10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일주문



다보법회에 참석 법문

강릉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은 서울갈앙회가 15일 오후2시 서울 마포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주관하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을 한다.



서울 명선 어린이집 개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효암 대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1일 서울 명선 어린이집 개원식을 갖는다.



'불교발심대법회' 봉행

사단법인 자비신행회 이사장 현장스님은 7일부터 제2기 한꽃불교아카데미 불교발심대법회를 광주 자비신행회 교육관에서 봉행한다.



산신각 낙성 · 산신 점안식

마음의 쉼터 죽림산사 리선행 법사는 12일 강원 횡성군 죽림산사에서 개산3주년 기념 산신각 낙성 및 산심 점안식을 봉행한다.



제2회 조계사 사생대회

서울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은 12일 조계사 및 우정총국 일원에서 창건 93주년 기념 제2회 조계사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02)720-1390



고승대덕 초청 선서화전

불교텔레비젼 부산방송 사장 정암 스님은 10월 8~12일까지 국제신문에서 '불교TV 발전기금 마련 고승대덕 초청 선서화전'을 연다.



전국불청인지도자 연수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옥 회장은 3~5일 사흘간 강원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20차 전국 불청인 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관문사 창건 5돌 기념법회

서울 천태종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은 5일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관문사 창건 5주년 기념 국민화합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한 · 일 교육세미나 주제 발표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은 9월 27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2회 한 · 일 교육문제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했다.



'영화로 본 불교' 프로 진행

하재봉 문화평론가는 불교텔레비젼 가을 개편을 맞아 13일부터 '하재봉의 영화로 본 불교'를 진행한다.

화합 · 교종 본찰 면모회복에 최선

봉선사 주지에 선출된 철안 스님



"머슴노릇 잘 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 9월 19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로 선출된 철안스님(사진)은 평상시 사찰의 잡무를 해오던 스타일 그대로 주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스님 노후 복지 대책 마련, 홍법강원 재개원, 능엄학림 활성화 등 교구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밑그림도 제시했다.

"승랍 25년 이상된 스님들에게는 재선사를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제1의 성지순례지로 만들 것입니다."

철안스님은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 종책개발연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본말사 스님과 신도 외에 각 분야 전문가와 사하촌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민들도 포함된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교구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구본사 최연소 주지(세납 46세)답게 이메일이나 각종 통신 등을 통해 제언을 받겠다는 '젊은 생각'도 털어놨다.

스님 노후 복지 대책 마련, 홍법강원 재개원, 능엄학림 활성화 등 교구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밑그림도 제시했다.

"승랍 25년 이상된 스님들에게는 재

스님 노후대책 · 홍법강원 재개원 등 추진

소감을 묻자 "평소 생각해오던 것을 열심히 실천하면 다 잘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하지만 '평상시 생각'과 '실천'이라는 말 속에는 봉선사 발전을 위한 적지 않은 고민과 포부가 담겨있다.

"우선 1년여의 주지 선출 과정 속에서 표출됐던 문도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중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교종본찰의 면모를 되살리는 일도 서둘러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봉

원을 마련해 보험을 들어주는 등 편안히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생각입니다. 80년대 초까지 있었던 홍법강원을 다시 개원해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등록도 해야 하고요."

철안스님은 1976년 봉선사에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뒤 21하안거를 성만했다. 2001년 봉영사 주지를 거쳐 현재 조계종 법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후학 위해 장학금 5억원

평생 모은돈 쾌척 박관호 교수



동국대 박관호 명예교수(79 · 사진)가 교수 생활을 하며 한푼 두푼 모은 5억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아 화제다.

1958년부터 89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31년간 화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박 교수는 지난 9월 25일 홍기삼 총장을 방문해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가 걱정된다. 후학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히고 5억원을 기탁했다.

동국대는 '박관호교수 연구장학기금'으로 명명해 매년 기초 과학분야 석 · 박사과정 연구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만해정신 전하는 명소로"

만해마을 대표 신경림 시인



"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만해 정신을 전할 수 있는 명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9월 22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법장)에 의해 만해마을 대표로 추대된 시인 신경림(68 · 사진)씨는 이렇게 말했다.

신 씨는 2년 전부터 만해시인학교 교장을 맡으며 만해스님과의 인연을 키워왔다. 또 그의 대표작인 '농무'로 제1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만해스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족문학의 토대를 일궈와 만해사상실천선양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그는 "만해마을 내 숙박 시설이 완공되는 대로 '문인의 집'과 '만해문학박물관' 등지에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를 유치 · 장려할 계획"이라며 "문인들에게는 만해사상에 기반한 집필과 토론의 환경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불교 사상과 민족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문학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1956년 시 '갈대'로 등단했으며, 1960년대에는 '겨울밤' '눈길' '전야' '폐광' 등으로 문단의 이목을 끌었다. 1970년 이후에는 핍박받는 농민들의 애환을 담은 '농무' 등의 시를 창작해 '민중문학'의 기틀을 다졌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배움 · 실천 … '청년붓다' 배출

조계사 청년회장 정우식 씨

"수행에 기쁨을 느끼고 그 속에서 배움과 실천을 이루는 신행공동체 '청년 붓다'를 만들겠습니다."

9월 20일 조계사청년회 20대 회장으로 재선출된 정우식 회장(35 · 사진)은 "청년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을 기본으로 전법에 매진해야 한다"며 "1인 1수행법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해 수행하는 청년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의 신앙심 고취와 포교능력 배양을 위한 설법대회와 집전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타종교청년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연대활동에도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성북구민 걷기 대회 주최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회장 정수)는 월21일 고명여상에서 개운산 공원까지 '성북구민 걷기 대회'를 열고 지역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는 만덕사 주지 백운, 적조사 자성, 천중사 법현, 대성사 정성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명대사 열반 393주기 추모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9월 22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사명대사 열반 제393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법회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부회장 혜총 스님, 수석부회장 도원스님, 오거돈 행정부시장 등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제12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9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2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운 봉선사 조실 스님을 비롯해 종범 중앙승가대 총장,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A SEMINAR FOR SOCIAL WELFARE OF THE RELIGION

제1회 사회복지 학술세미나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에서는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2003년 10월 7일(화) PM 2:00 ~ 6: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Conference Hall

프로그램

1부
등 록 13:00 ~ 14:00
개회식 14:00 ~ 14:30
▶개회사 : 이중욱 / 청호불교문화원 재단 이사장
▶축 사 : 김득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인사말 : 김용택 /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기조연설 14:30 ~ 14:50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최일섭 : 전 사회복지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부
●발표와 토론
▶사 회 : 황진수 / 한성대학교 교수,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발 표 1 15:10~15:30
●한국 기독교 의 사회복지 활동 시 역할과 과제
▶전광현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표 2 15:30~15:50
●천주교 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이준상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15:50 ~ 16:20
▶최애경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용철 / 그리스도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휴 식 16:20 ~16:30
발 표 3 16:30~16:50
원불교 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이광찬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표 4 16:50~17:10
불교 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이정호 / 전 한국보건사회연수원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수
토 론 17:10~17:40
▶박경일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성희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종합토론 17:40~18:00
▶사회: 김용택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리셉션 18:00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8-12번지
■재 단 : TEL.02)517-3052/FAX.02)542-0519
■연구소 : TEL.02)517-3045/FAX.02)515-3021 www.chbuddha.com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전국驛舍서 '풍경소리' 은은히…

철도·지하철역 1700여곳에 포교게시판

18일 도선사서 설치완료 고불법회 봉행

이제 전국의 모든 철도역과 지하철역에서 풍경소리 포교게시판을 볼 수 있게 됐다. 부산역을 마지막으로 총 603개 철도·지하철 역사에 1,700여개의 풍경소리 포교게시판 설치가 완료된 것.

이에 따라 풍경소리(대표이사 혜자)는 10월 18일 오후 3시 서울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포교게시판 설치 완료를 알리는 고불법회를 봉행한다. 풍경소리 포교게시판은 1999년 9월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3, 4호선 115개 역사에 460개가 설치된 이래 철도청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도시철도공사 소속 지하철 역사로 확대 설치돼, 열독자가 생길 만큼 시민들의 인기를 얻어 왔다.

풍경소리는 이번 고불법회에서 기존의 게시판 관리와 유지를 비롯해 공공장소에서의 각종 전시와 공연, 책 발간 등을 통한 문화포교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발표한다. 포교사업의 확대와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 개통되는 광주, 대전 지하철 역사와 고속철도 역사, 신설되는 지하철 역사에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도 내놓는다. 1,700여개의 게시판을 후원하는 사찰과 단체가 220여 곳에 불과한 문제점도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회는 게시판 설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철도청·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관계자, 풍경소리 작가·이사진, 후원회원, 포교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법회를 통해 그동안 포교게시판 설치에 힘을 보탠 종단과 사찰,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소속 불자, 포교위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용성 사무처장은 "이번 고불법회는 풍경소리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포교사업을 확장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며 "지하철과 철도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문화포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개통될 광주·대전지하철·고속철역도 추진

불자들, 곳곳서 수해복구 구슬땀

통도사 사부대중 파손건물·딸기밭 보수

선재마을의료회 경남의령서 무료진료

불교텔레비전 염불공양모임(회장 하성심행)과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경남지부(지부장 이기표)등 회원 100 여명은 9월23일 부산 강서구에서 태풍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가덕도 눌차마을은 160가구 중 태풍 매미로 인하여 105가구가 수해를 입었다. 염불공양 모임 회원들은 부산 강서구 눌차동 눌차 마을에 쌀 10 Kg 110 부대와 김치 4 Kg 105 박스, 김 등을 전달하고 수해 어민을 위로했다. 눌차 초등학교에는 축구공 10개를 기증했다.

염불공양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태풍으로 부서진 마을 화장실 5동을 신축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물에 젖은 벽지를 떼어낸 후 도배를 할 수 있도록 벽면을 청소하고 그릇, 이불 등 살림살이를 정리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하성심행 불교TV 염불공양모임 회장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내가 당한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다"며 "좀 더 많은 분들이 봉사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사부대중도 원동면의 딸기 하우스 복구 현장에 참여했다. 원동면 딸기 하우스는 이번 태풍으로 딸기 모종이 물에 쓸려가고 흙에 덮여 딸기 농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통도사 강원 스님, 통도사 종무소 소임 스님, 통도사 큐샨티 봉사반, 통도사 청년회 등 100여명은 딸기 하우스 주변 청소, 딸기 모종이 쓸려간 땅 고르기, 완파된 건물 철거, 반파된 건물 수리 등에 비지땀을 흘렸다. 이 밖에도 부산불교신도회 산하 봉사회와 법륜회 개인택시 불자회도 25일 강서구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광수)는 20~21일 이틀간 수해지역인 경남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일대를 찾아 무료 진료활동을 벌였다.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22명이 동참한 이날 진료에서는 지역 주민 100여명을 진료했다.

천미희·김철우 기자





◇사진 원내는 선재마을의료회가 무료 진료 활동을 벌이는 모습. 아래 사진은 통도사 사부대중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펼치는 모습.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금강선림회 발족

11월에 본격활동

선방 대중공양·간화선 중흥 모색

"스님, 부디 깨달음을 얻으세요. 수행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계종 선방 수좌스님들을 후원하는 사부대중 모임이 결성됐다. 이름은 '금강선림회'. 이 시대 수행자들이 더욱 치열하게 정진해 확철대오하길 바라는 대중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이미 100여명이 회원으로 동참했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상당수 중앙종회의원들도 참여의 뜻을 밝혔다.

금강선림회의 주요 사업은 대중공양. 안거에 들어간 전국의 선원을 찾아가 대중공양을 하며, 그 기회에 수좌스님들로부터 참선실수 지도를 받을 생각이다. 대중공양은 동안거, 하안거에 각 2차례씩 모두 네 번을 계획하고 있다.

수좌스님들의 건강과 복지도 챙긴다. 불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비용도 일부 부담한다. 금강선림회는 올 11월 시작되는 동안거 때 해인사 선방에서 간단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강선림회는 고정회원제와 후원회로 운영된다.

선원외호 외에 금강선림회는 또 다른 큰 뜻을 가지고 있다. 바로 간화선 중흥이다. 2005년 봄에 '전국민화두갖기 대회'를 개최해 간화선 수행법을 불자와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금강선림회 회주를 맡고 있는 선각스님(종정예경실장)은 "회원들부터 화두를 받아 수행에 몰두하면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한다.

금강선림회 회장 김명숙 보살은 "장기적으로는 간화선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홈페이지 운영, 계간지 '선' 창간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7-7159 한명우 기자



◇북한에 지원할 가사를 펼쳐보이는 평불협 대표단.

가사50벌·목탁 10개 전달

평불협, 북한스님들에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가 북한 스님들에게 가사 50벌과 목탁 10개를 지원한다.

평불협은 9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불협 대표단 22명이 참가하는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시 영천 은해사와 공동 제작한 가사와 목탁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타 스님은 "은해사 개산대제 경축의미로 가사 1000벌 불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 중 100벌을 따로 북한 스님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 방북 때 나머지 50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가사 지원은 1991년 LA 관음사에서 열린 남북한 해외불교지도자 조국통일기원법회 당시 보현회가 보시한 100벌이 최초다. 남동우 기자



◇행사 참가자들이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 문지기는 어디 갔네?"

좋은벗들,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체육축전

"뽈을 앞으로 줄 때는 크게 크게 띄우라우. 후반전에는 령철이가 빠지고 철승이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문지기는 어디 갔네."

9월 21일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전반전을 1:3으로 뒤진 백두산팀 선수들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나름대로 작전을 내놓는다. 잠시 후 호루라기 소리가 후반전 시작을 알린다. 전반전의 부진을 만회하려고 애쓰지만 예선에서 한라산팀을 3:2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온 두만강팀에게 부전승으로 올라온 백두산팀은 역부족이다. 결과는 두만강팀의 4:1 대승. 축구 우승은 두만강팀에게 돌아갔다.

북한이탈주민 300여명이 운동 경기를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정토회 산하 국제평화·인권·난민 지원을 하는 좋은벗들(대표 유수)이 '제1차 통일체육축전'을 개최했기 때문이다.

추석맞이 합동차례로 시작된 통일체육축전에서는 한라산(북:서울 송파구·노원구, 남:서울 정토법당 신도회), 압록강(북:서울 양천구·강서구, 남:서울 정토법당 청년회), 두만강(북:하나원 35~40기, 남:부산·울산 정토법당), 백두산(북:전라·경북·충청·강원, 남:대구·대전·청주·제천·마산 정토법당) 4개 팀이 축구, 족구, 피구 등에서 경합을 벌였다.

족구 경기 결승에는 각각 두만강팀과 압록강팀을 이기고 올라온 백두산과 한라산팀이 맞붙어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결국 백두산팀이 우승했다. 북한말로 '제기던지기'인 피구 경기는 한라산팀의 우승. 개인별 경기로 열린 100M 달리기에서는 7살짜리 어린이와 정토회 대표 유수스님의 출전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외에도 줄다리기와 통일기원 박터트리기, 내 고향 맛 자랑, 이웃돕기 일일장터, 전통놀이마당, 얼굴그림 그리기 등이 열렸다.

한라산팀의 종합우승으로 끝난 체육대회 참가 소감을 묻자 함경북도 청진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왔다는 김경식(가명, 56) 씨는 "이런 자리에 참석하면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추석을 맞아 고향에 있는 친지 생각이 나기도 한다"며 어두운 얼굴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 후 유수 스님은 "내년부터는 북한 동포들이 주체가 된 큰잔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바람을 내비쳤다. 남동우 기자

서울大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내사주 내가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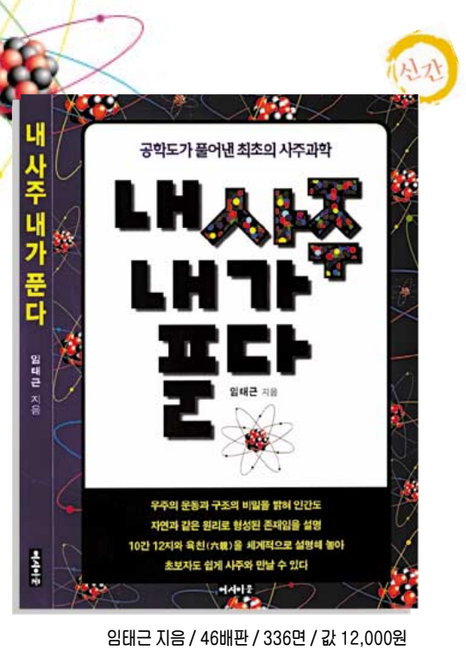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 거친 원광석
· 辛金 :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 午火 :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 문화의 산물을 저장및 중재하는 장소
· 申金 :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酉金 :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 낙엽 지고 메마른 땅
· 亥水 : 생명이 숨쉬는 얕은 바다
· 子水 : 고요하고 깊은 바다

- 부시 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木火) 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중화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代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2-1521(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종정 '공석' 인 종단 많다

잦은 분종·종단내 이해복잡 이유

총지종 등 일부종단 추대 움직임

종단의 최고 어른에 해당하는 종정이 없는 종단이 많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큰 어른을 모셔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종정은 종단의 종통을 계승하고 신성과 존엄의 최고 권위를 지니는 정신적 지도자로서, 모든 종도와 불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큰어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원로급 스님 가운데 평생을 수행에 진력해 온 스님을 추대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총지종, 대한불교법상종, 대한불교무량종, 한국불교미륵종, 대한불교해동종 등은 종정(종령)을 추대하지 못해 공석 상태로 비워놓고 있다. 이들 종단들은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고 종풍 선양을 위해 큰어른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정을 추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정으로 추대할만한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데다가 종단내 이해관계에 따라 종정 추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종 등으로 인한 여파도 한 이유다.

이에 따라 최근 최고 어른을 모시려는 종단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총지종은 10월 20~22일 예정된 추계강공 기간 중 승단총회를 열어 종령을 추대하기로 했으며, 미륵종도 9월 27일 종정 추대를 위한 종정추대위원회를 구성했다. 관음종은 21일 전 종정 혜옹스님이 입적한 지 3년여만에 새 종정을 추대했다. 오랜 기간 궐위로 남아 있던 종정을 선출한 관음종의 사례는 큰어른을 모셔야 한다는 여론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은 "종정은 종단의 법통을 잇고 종풍을 선양하는 표상임과 동시에 최고 권위를 갖는 상징적 지도자"라며 "각종 행사와 종무 등 종단 대소사에 대한 종정 스님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오랜 궐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관음종 6세 종정 죽산스님 추대



관음종은 9월 21일 묘각사에서 종정추대위원회를 열고 죽산(竹山) 스님(포항 약사사 조실)을 제6세 종정으로 추대했다.

죽산스님은 9134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으며, 55년 탈해사에서 운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59년 통도사 전문강원 졸업했으며, 63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67년 묘각사에서 관음종 중창조인 태허스님으로부터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63년 이후 통도사, 범어사 등지에서 15안거를 성만했으며, 포항 약사사, 부산 보현사 등지에서 수행에 진력해 왔다. 저서로는 <수행 용맹 정진> <금강경 재해석> 등이 있다.

추대법회는 11월경 총본산 묘각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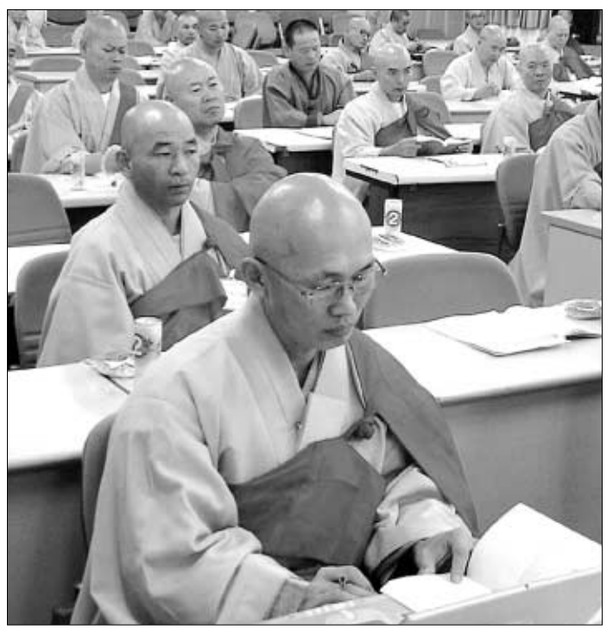
중국 구화산 등 성지순례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중국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에서는 지장보살도량인 구화산 화성사와 영파 보타산 관음보살 성지에서 법회를 연 것을 비롯해 항주 영은사, 상해 옥불사 등을 참배했다. 한편 이번 순례에는 종정 일공스님과 총무원장 법륜스님, 부원장 선진스님, 중앙비구니회 회장 대월스님 등 종단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포교원 무각사 개원

대각종은 9월 21일 부여 미암사의 대구지역 포교당인 무각사(원장 혜광)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소재한 무각사는 총무원 직할로 운영되며, 신도교육을 위한 한국불교교양대학을 부속기관으로 개설했다. 총무원장 만청스님은 "대구지역 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모든 신도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교양대 모집 (053)426-0062~3



천태종, 몽골불교와 교류추진

첫사업으로 생필품·불교용품 보내기로

천태종은 몽골 최대 사원인 간단사원, 불교예술대학 등 몽골불교계와의 교류를 시작한다. 이의 첫 사업으로 생활필수품과 불교용품을 지원하기로 하고, 9월 22일 전국 각 말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한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7월 21~28일 몽골 간단사원 등지를 방문, 몽골 불교지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천태종과 몽골불교계는 문화교류를 포함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18~22일 총무원장 운덕스님이 몽골을 다녀왔다.

이에 따라 천태종은 총무원 총무부와 사회부 주관으로 추가적인 교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승려 연수

태고종은 9월 21~25일 이천 중부수련원에서 승려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1~23일에는 21~25기, 23~25일에는 1~20기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태고보우국사의 원융회통사상을 오늘의 시대에 살려 모든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천=박봉영 기자

중앙종무기관 업무 정지

대승종, 30일이내 재구성

대승종은 종헌 제 60조 5항에 의거 9월 23일 종정 도암스님의 지시에 따라 총무원장 대오스님 명의로 총무원, 중앙종의회, 감찰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의 업무 정지를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종무기관 조직정비와 개혁을 위해 취해졌다.

도암스님은 "총무원법 제 10조 4항에 근거해 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급 종무기관장을 비롯해 종무원 임용 등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일체 종무직원의 임용은 종무직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로 종정의 재가를 얻어 임용하라"고 지시했다.

종단소식

수진사서 중앙연수교육

총화종은 10월 8~9일 남양주 수진사에서 제20회 중앙연수교육과 법계고시를 실시한다. 연수교육은 총무원장 남정스님의 '종단의 미래 비전', 중앙종회 의장 화담스님의 '육바라밀'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승덕·중덕·대덕 법계는 필기시험으로, 종사 법계는 논술시험으로 각각 치러진다. (031)592-8891

사미(니)·재가법사 배출

관음종은 9월 21일 총본산 서울 묘각사에서 사미(니)·재가법사 수계식을 열고 사미 15명, 사미니 2명, 재가법사 3명 등 20명을 배출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홍파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국민화합 방생대법회

한국불교해동종(총무원장 혜우)은 9월 21일 충주 중앙탑 공원에서 남북통일 및 국민화합 기원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괘불이운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육법공양, 영산재, 방생의식, 위령제, 탑돌이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경우스님, 총무원장 혜우스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필 초청 산사음악회

태고종 울산 용암사(주지 법광)는 10월 14일 오후 4시 경내에서 가수 조용필 초청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 앞서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만등불 행사도 열린다. (055)382-0301

게시판

행사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9월 29~10월 5일 '실버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은평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한지공예, 한지그림공예, 동양화, 한글서예 등 총8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료 무료. (02)385-1351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0월 1~2일 '탑골자원봉사박람회'를 연다.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자활대상자모집, 자원봉사자모집, 자원봉사체험장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02)739-9504

▲보건복지부는 10월 10~12일 'GIVING EXPO 2003'을 개최한다.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부문화헌장 제정을 위한 세미나, 자선바자회, 홍보영화상영 등으로 진행된다. (02)504-6419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무전산교육'을 실시한다. 10월 21~23일 3일간 열리며, 한글 2002, 홍보물 제작기법,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비 3만원. (02)713-3362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2일 오전 11시 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길놀이, 연예인 공연, 레크레이션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02)466-6242

모집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정토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을 모집한다. 60세 이상 거동불편 및 심신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센터 이용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오후 5시. 월 이용료 8만원. (02)852-0525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 2학기 내원장수대학 회원을 모집한다.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4시에 열리며 레크레이션, 민요, 단전호흡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회비 10만원. (02)264-9033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10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부분은 댄스스포츠, 주부노래교실, 한국무용, 한자검정대비반, 중국어회화, 택견 등의 상설강좌와 발레교실, 동화구연, 클래식기타 등의 청소년, 어린이 강좌. (051)868-0750

구인 ▲분당 원릉사는 종무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고졸이상이며 준비서류는 이력서 1통이다. 전화로 접수하며 모집인원은 1명. (031)707-0108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영남불교대학 유치원 불사 모연문

전국 유치원 8,292곳 가운데 불교 유치원은 123곳 뿐.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어린 불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최첨단 최대의 유치원을 짓고자 대구 도심에
부지를 마련하고 설계까지 마쳤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12월에 착공할 예정인 "참좋은 유치원" 불사에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동참방법
① 성의껏
대구은행 :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015-05-003474-2
② 백옥부처님 만(萬)분 모시기 (3년 동안 108만원 넣기)
1인 1불 모시며, 천일간 축원 기도해 드립니다.
유치원 5층 법당에 모셔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우학 合掌**
TEL. 053)473-5802 www.TVbuddha.co.kr

종무기관 해산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종도여러분의 건승과 대작불사 성취를 기원합니다.

금번 2547년 9월 23일자로 발행된 종정 업무지시서에 따라 종단의 기강을 쇄신하고, 종단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헌 제 60조 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는 바 입니다.

– 아 래 –

1. 종단내 각급 종무기관인 총무원, 중앙종의회, 감찰원, 중앙고시원, 교육원, 포교원 및 기타 개설된 일체의 종무기관을 종헌 제60조 5항에 의거 공고 당일부로 해산한다.

2. 위 1항에 소속된 각급 종무기관의 일체 종무직원(선임직, 품임직, 위촉직)직무는 종무기관 해산에 따라 공고 당일부로 그 직위와 직무를 종료한다.

3. 위 1항에 소속된 각급 종무기관의 직인과 계인은 공고 당일부로 무효이다.
(단, 해산된 각급 종무기관은 종법상 총무원법 제10조 4항에 의거 30일 이내로 재 설치하되, 각급 일체 종무직원의 임용은 종무직원 자격표상 법계만을 자격기준으로 하며, 종정의 재가에 의해 임용하는것으로 한다)

불기 2547년 9월 23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도 일오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 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 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9월20일 열린 '제1회 화성 용주사 승무제' 는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의 유일한 가을 축제다.



화성 용주사 '효축제'

孝하면 心풍성 해져요

효 · 불교 어우러진 유일한 축제
75세 이상 1천여 어르신 한자리
백수연,승무제로 만수무강 기원
정조의 효심,이웃사랑 살아난 듯

부모-자식 간의 천륜을 어긴 범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구닥다리' 취급 받을까 망설여지는 현대에도 효(孝)는 여전히 유효한 덕목일까?

풍랑에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으로서의 자부심보다 '뒷방 노인네' 소리에 섭섭함을 느낄 때가 더 많았던 '어르신'들이 모처럼 가을 축제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에 위치한 용주사(주지 정락)가 9월 20일 개최한 '제1회 화성 용주사 승무제'는 하고많은 우리나라의 축제 중에서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의 유일한 축제라 할만하다. '효행본찰' 용주사와 화성시가 공동 주최하고 용주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1천여 명과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 손학규 경기도지사 내외, 우호태 화성시장 내외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해 엷어져 가는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여느 고찰과 달리 차도 옆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용주사는 조선왕조 임금 중에서도 효자로 소문난 정조 임금의 효심이 깃든 절이다. 보경 스님으로부터 <부모은중경> 설법을 듣고 감동 받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재의 '융릉(隆陵)'으로 옮기고 그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願刹)로 세운 '효찰(孝刹)'인 것이다.(1790년) 또한 시인 조지훈이 19살 되던 1939년 어느 이름모를 스님이 주는 승무를 보고 저 유명한 시 '승무'를 지은 곳이기도 하다. 조지훈보다 150여 년 앞서,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자주 이 곳에 들렀던 정조도 승무를 보지 않았을까? 정조의 효심이 2백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승무제'로 되살아나는 순간이다.

총 3부(백수연-승무제-산사음악회)로 진행된 이날 축제는 어르신들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백수연(白壽宴, 백수는 아흔아홉살을 일컫는 말로 '百'에서 '一'을 빼면 99가 되고 '白'이 되는 데서 유래한다)'이 열었다.

백수연은 정조가 화성으로 행차해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 잔치를 열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궁중 진찬연(進饌宴)에 따라 그 형식과 격식을 재현한 행사. 회갑 이상 된 어른의 생신에 자제들이 술을 올리며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수연(壽宴)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70~80살이 된 노인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직접 지팡이를 하사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는 기록도 전해온다.

이날 백수연에는 허언년 할머니(105세) 등 화성시에 거주하는 99세 이상 어르신 16명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7명이 참석했고, 우호태 화성시장 내외가 아들 · 딸이 돼 꽃을 바치고(獻花, 헌화), 술을 따르고(壽酒禮, 수주례),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杖, 궤장)를 올렸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8호 김복련 선생과 그 문하생들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을 쓰고 화성재인청류 승무를 선보였다. 승무는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내용을 춤으로 엮은 것.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시를 들을 기회는 많지만 승무를 직접 볼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라며 "'승무제'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는 산사음악회로 이어졌다. 불자 개그맨 김병조씨의 사회로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국악관현악단 오느름(대표 김희경)의 연주와 국악인 김영임(중앙대 교수), 경기민요 이수자 최수정씨 등이 출연해 한껏 흥을 돋우었다가 사물놀이와 국악관현악단을 위한 '신모듬'(박범훈 곡)으로 어울림의 장을 연출했다.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정조는 어머니의 회갑 잔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화성과 그 인근의 노인, 결손 가정,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소금을 나눠주는 등 각계각층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승무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해 '승무제'를 화성시의 지역 축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권형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우호태 화성시장 내외가 어르신들께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있다.



◇제2부 승무제의 한 장면.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외부에 각인된 반야심경반지 반지내부에는 '옴'자가 각인 18K Gold 폭 약 8mm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외부에 각인된 반야심경반지 반지내부에는 '옴'자가 각인 은92.5% 로듐도금 폭 약 8mm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내부에 각인되어 있고 외부에는 연꽃을 형상화 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 18K Gold 폭 약 8mm
■농 협 131-01-368761 예금주:(주) 엑스피아 금액: 198,000원 ■인터넷주문 http://www.xpialand.com으로 오시면 제품이미지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엑스피아 문의및신청전화 ☎031-382-3719, 080-382-3719

모두가 天·地·人 하나로

3일 조계사서 세계 종교문화 대축제
'천지인 어울림 소리' 103명이 대합창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양한 인연의 고리로 연결된 '한 생명 한 살림'이며, 너와 내가 따로 존재치 않은 원만상생(圓滿相生)해야 할 공업중생(共業衆生)이다."

조계사청년회(회장 정우식)는 조계사신도회(회장 이연숙),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청년위원회와 함께 종교 간의 화합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축제마당 '天·地·人'을 10월 3일 조계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개신교, 천주교, 카톨릭, 유교 등 7대 종단과 이슬람, 힌두교 등 기타 종단 종교인과 청년회원 200여명 및 조계사 신도 800여명이 참여해 각종 문화행사·공연 등을 펼칠 계획이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1부 개막식은 정우식 조계사청년회장의 사회로 이연숙 조계사신도회장의 개회사와 조계종 총무부장 성관스님, 변진홍 KCRP 사무총장의 격려사,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기타 종단 대표장들의 축사, 종교 간의 화합을 다짐하는 '종교인 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진행되는 2부 천지인 화합 한마당은 방송인 이익선 씨의 사회로 소리마루의 '청년의 노래' 원심회 수회공연 '몸짓으로 나누는 대화'가 포문을 열고, 천주교 '마가렛 놀이방' 천도교 '검무' 원불교 '국악' 개신교 생명교회 공연단과 세계평화청년연합 한·미·일 연합공연단, 불교어린이합창단 등 각 종단별 공연이 펼쳐진다. 각 종단별 공연 사이사이에는 조계사중·고학생회의 깜찍한 댄스공연이 행사의 흥을 돋을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종교인 103명이 함께 부르는 대합창 '천지인 어울림 소리'로서, 맑고 향기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종교인들의 뜻을 화합이란 하나의 선율로 합창하며 행사는 마무리 된다.

조계사청년회는 이날 조계사 안 소나무, 회화나무 주변에 시화전과 고승 선서화, 수예작품 등과 풍경소리 포스터를 전시해 참가한 이들의 눈과 마음의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우식 회장은 "종교 간의 이해를 넓히고 공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통한 손쉬운 접근이 우선되야 한다"며 "이번 천지인 행사는 종교인들의 화합은 물론 환경, 생명 등 사회적 문제에 있어 종교인들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사신도회와 조계사청년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1회 이웃종교인들을 초청, '이웃 종교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종교 간의 이해와 공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청담 정보고, 10월14일 전국중학생 대상

첫 컴퓨터그래픽·정보검색 대회

컴퓨터 그래픽. 정보검색의 '짱'을 찾아라.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교장 이근우)는 10월 14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전국 중학생 컴퓨터그래픽.정보검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청담문화재단, 도선사, 현대불교, 평택시, 평택 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와 정보검색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컴퓨터 그래픽 분야는 포토샵 7.0, 일러스트레이터 10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캐릭터. 포스터. 심벌마크. 브로슈어 디자인 부문의 최고 실력자를 가리게 된다. 정보검색 분야는 간단한 이론 시험과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을 병행해 가장 빠르게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분별 대회 최고상인 대상과 금상에게는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을 비롯해 청담정보고 입학자격과 3년간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참가신청서와 학교장 추천서 1부를 10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청담정보고 홈페이지(http://cheongdam.hs.kr)로 접수하면 된다.

이근우 교장은 "이번 대회는 디자인과 컴퓨터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고 말했다. (031) 691-8095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8일 자원봉사학교
각종교 청년·학생 100명

(사)종교인평화봉사단(NCRPC)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청년·대학생 중심의 자원봉사조직망 체계 구축을 위해 제2회 자원봉사학교를 대한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10월 8일 개최한다.

이번 봉사학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 각 종단 청년·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종 사회위기에 대처하는 자원봉사조직망 구축을 통한 상시구호활동과 긴급재해시 위난구호 활동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고려대 불교학생회 교우회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대불련·현대불교신문사

'高佛人' 40년 지켜온 자부심

매년 7월 평창서 조난 선배영가 천도재
학번별 모임 활발…졸업생 취업 알선 주력

고려대학교 불교학생회(이하 고불회) 창립 40년. 1963년부터 봉행된 수요법회, 선배 영가의 넋을 위로하는 연화제, 동문과 재학생간 긴밀한 유대관계…. 오늘날 사회 각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는 '고불인(高佛人)'을 있게 한 전통들이다.

고불회의 특징은 단연, 매년 7월 강원 오대산 월정사 연화탑에서 올리는 연화제. 지난 65년, 불어난 급류로 평창군 동비골에서 운명을 달리한 선배 10명의 영가를 천도하는 법회다. 이날 법회는 동문모임인 교우회와 재학생들이 모여, 먼저 간 선배들의 구도열정을 기리고 그간의 활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선후배간 만남의 장도 마련해 상호친목을 도모한다.



◇불의의 사고로 먼저 간 선배들의 넋을 위로하는 연화제. 고려대학교 불교학생회 교우회원과 재학생들이 지난해 7월, 오대산 월정사 연화탑에서 천도재를 올리고 있다.

고불회 역사는 1980년에 결성된 동문모임인 '불교교우회(회장 최의수·73학번·한국휴렛패커드 이사)'에서 빛을 더욱 발한다. 고불회 동문이 뭉친 이유는 간단했다. 재학 시절의 구도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 위해서였다. 또 한국불교의 장래를 이끌 후배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불교교우회 최의수 회장은 "재학생 불교학생회 활성화는 불도를 철저히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제대로 고불회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교우회는 신행활동도 열심이다. 매월 한 차례 서울 정릉 청학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주지 청암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 등 왕성한 신행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불회는 학번별 모임이 활성화됐다. 이 같은 학번별 모임은 동문간 모든 의사 통로 창구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동문들에게 사회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를 공유케 하고 있다.

불교교우회는 앞으로 고불회 졸업생 취업 알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재계, 학계, 공직, 법조계 등에서 활동 중인 풍부한 동문 인맥을 십분 활용해 재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신행활동 여건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자랑스런 동문들

63년 이후 동문 1천여명 배출
공직·학계·불교계 등 고루 포진



◇안홍부(공직)



◇이연창(출판계)



◇박종희(학계)

지난 63년 창립한 고려대 불교학생회는 40년간 배출한 동문만 1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동문들은 공직·학계·불교계·재계·언론계·출판계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직에는 한국공무불자연합회 사무국장 안홍부(63학번·감사원 감사2국 2과장·사진), 이권상(73학번·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심의관) 등이, 학계에는 김우주(77학번·고대의대 교수), 박종희(79학번·고대법대 교수·사진) 등이 있다. 재계에는 최의수(73학번·한국휴렛패커드 이사), 권석목(76학번·삼성전기 수출부장), 송영섭(79학번·LG경영개발원 부장) 등이, 출판계는 이연창(74학번·지영사 대표·사진) 동문이 있다. 또 언론계에 정진민(72학번·MBC홍보국), 황인선(78학번·서울경제신문 정치부장) 등이, 불교계에는 이건식(78학번·좋은일하는사람들 대표), 권태정(82학번·청소년파라미타협회 과장) 등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okbat@kornet.net

■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후원금 내신 분

▲김광삼(현대불교신문 사장) ▲혜월 스님(〃 관리이사) 격려금 ▲박봉영(원광대 92) 10구좌 ▲노종환(전북대 67) ▲박문숙(이화여대 68) ▲염공현(전남대 68) ▲최이곤(전북대 71) ▲이자옥(수도여사대 68) ▲서성태(중앙대 70) ▲하금성(서강대 71) ▲이윤정(숙명여대 71) ▲홍순영(중앙대 73) 5구좌.

9월 25일 현재 총 2,764구좌

■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47-2004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경남 창원에 교사불자회가 창립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지부장 김형춘) 창원지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최근 창원 성주사에서 발기인 모임을 갖고, 오는 11월 9일 창립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창립준비위는 이날 모임에서 불자회 정관을 마련하는 한편,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을 초대지도법사로 위촉했다. 또 창립준비위원장에 강영철(경일고), 총무에 이성곤(영지여고), 재무에 최명숙(팔용중) 교사를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창립준비위는 지난 7월부터 회원모집에 들어가 현재 25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창원시내 55곳 초·중·고등학교 불자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입회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내 미창립 사찰불교학생회의 창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에 50여 사찰을 돌며 주지스님과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창립준비위는 특히 창원시사암연합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상담실과 공부방을 마련, 지역 청소년 포교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 봉림천, 주남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불교학생회 자연생태환경보호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창립준비위 강영철 위원장(49·법명 취봉)은 "창원시내 불교학생회가 창립된 사찰은 불과 2곳뿐"이라며 "앞으로 신입 불자교사 모집 활동과 함께 청소년 포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교사 불자련 경남지부
창원지회 11월9일 창립
200여명 대상 회원가입 유도



◇일터불심이 문화 향기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은 경북 청도군청 불자회가 지난해 10월 적천사에서 주최한 산사음악회 모습.

산사음악회·승진축하·차량안전기원 등
문화·이벤트법회 "얼쑤~"
신행활동 다양화·회원확대 긍정 효과
회원들이 직접 기획·홍보…화합도 다져

일터 불심에 문화 향기가 스며들고 각종 테마이벤트의 즐거움도 피어나고 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가 창립 3주년을 맞아 4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산사음악회를 여는 한편,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도 18일 서울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경찰의 날 기념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불교 한마당' 행사를 벌인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불자회 연합회인 성불회는 대덕 태전사에서, 경북 청도군청 불자회는 청도 대흥사에서 이번 달 중순 산사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이벤트' 성 법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승진축하, 생일, 차량안전 기원, 찬불가 배우기 등 테마가 있는 법회가 직장 특성에 따라 다채롭게 진행돼 직장불자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청 불교회는 대한불자가수회 고문 남강수 씨를 초청해 찬불가 법회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는 철도청 불교단체협의회와 함께 환경을 테마로 걷기대회 행사를 열고 있다. 또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는 승진축하법회를 갖고 있다.

문화 개념의 법회가 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신행활동의 다양화'에 있다.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기존 법회형식이 가진 일터불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불자회 회원 감소와 노령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등 직장불자회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그간의 일방적인 법문 전달 위주 법회가 불자회원들의 흥미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문화 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램이 알차게 구성됐다는 점. 합창단, 불자 가수 공연은 기본이고 영산재 시연, 색소폰·국악·사물놀이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성불회의 경우,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초청해 범패, 바라춤 등의 불교음악을 선보이게 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군청 불자회 박동규 총무는 "산사음악회 같은 법회는 회원들이 직접 기획·홍보·섭외 등을 맡아 진행해, 자연스럽게 회원 간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며 "회원은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돼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해평복지관서 무료진료

경희의료원 불자회(회장 권혁운·사진)는 3일 경북 구미 해평사회복지관으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떠난다. 011-317-5727



무비 스님 초청 정기법회

서초반야회(회장 김동건·사진)는 15일 서울 우면동 대성사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제2회 불자가수 가요제' 개최

대한가수불자회(회장 김활선·사진)는 14일 서울 마포 불교방송국 2층 법당에서 제2회 대한가수불자회 가요제 예선을 실시한다.



추계 의료봉사·수련대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사진)는 11~12일 이틀간 합천 해인사에서 제7차 추계 의료봉사 및 수련대회를 갖는다.



대전 교사불자련, 정기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전지부(회장 여성구·사진)는 9월 26일 보문고등학교 천불전에서 보문중학교 김홍섭 교법사에게 법문을 들었다.



청원 해남사로 성지순례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사진)는 12일 충북 청원 해남사 및 청남대로 10월 정기 성지순례 및 산행을 떠난다. 011-603-8866

우리불자회는요
대우종합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 불교법우회
分社로 해체위기 때 불심으로 결속 다져
불우사우돕기… 10명에 생활비 등 지원

우리 불교법우회는 경남 지역 대우종합기계와 한국우주항공산업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원래는 (구)대우그룹의 한 울타리에서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항공사업본부가 분할됐고, 법우회 식구들도 나눠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비록 분리됐지만, 회원들의 법우회 사랑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우종합기계(주)·한국우주항공산업(주) 불교법우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창립은 84년 9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17살이 된 셈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스물 살 청년이 됩니다. 그간 법우회원들은 빠르게 변하는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법회와 모임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18명이던 초창기 회원이 80여 명으로 늘어난 것도 매주 법회를 여는 등 빠짐없이 신행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불교법우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법회는 물론 성지순례,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월별 단위로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자체법회, 체육행사, 초청법회, 사찰순례 등을 일정별로 야무지게 신행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법우회의 자랑은 또 있습니다. 회원들의 믿음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년 전부터 안정순 전 불교법우회장의 원력으로 펼쳐온 불우한 사원 돕기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사우 자녀 5명에게 생활비를 주는 이 운동은 지금은 대상을 10명으로 늘려 불교법우회 내 소모임인 봉사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걸어온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역경도 겪었습니다. 핵심조직인원이 한꺼번에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2개 회사로 분사되었을 때 등 모임 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놓인 적도 있습니다. 회원들이 나이를 먹어 가는데도 신입회원은 거의 없고, 법회 참석률도 떨어져 사기가 저하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회원들이 강한 응집력과 불심으로 더욱 결속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회원들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교법우회 지도법사인 부산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 창원불교대학 강사 옥련암 주지 원광 스님에게 받는 신행상담 시간을 늘릴 생각입니다.

■서성열 총무



◇대우종합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 불교법우회원들이 17일 창립 17주년 기념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

3판 60쇄 본 1만 부의 판매금 전액을 '범우출판장학금'으로 출연(出捐)합니다!

▶ 범우문고 1판 1,2,3쇄 본(정가 280원)을 보내 주시면 양장본(값 6,000원)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4×6변형 양장본 | 값 6,000원

山寺에 심은 뜻은 — 이청담 지음
참회와 참선으로 가득찬 현묘한 법문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영혼의 소리!
인생은 태어나서 육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잠시의 나그네길이다. 육신의 길은 일회적(一回的)이다. 이러한 사상의 핵이 담긴 스님의 마음표현은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며 감명어린 정신의 경지를 마련해 준다.
문고판 | 값 2,000원

불조직지 심체요절 — 佛祖直指心體要節 — 백운선사 | 박문열 옮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선도(禪徒)들에게 선도(禪道)와 선관(禪觀)의 안목은 물론 선풍(禪風)을 전등(電燈)하여 법맥을 계승케 하기 위한 책! 이 책은 우리나라의 학승(學僧)들이 대교과(大敎科)를 마치고 수의과(隨意科)에서 공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학습서다.
신국판 | 값 9,000원

법화경 이야기 — 法華經 — 박혜경 지음
반야(般若)의 공(空)을 활성화 시킨 반야의 공[說法實相]
법화경이 천하 제일의 가르침으로 평가되는 까닭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설하며 밝힌 경전이기 때문이다. 법화삼부경 삼십이품의 연결에 주력하며 각품의 요점과 꼭 알아 두어야 할 대목들을 현대적 감각에 알맞도록 해설한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이다.
신국판 | 값 7,000원

백운화상어록 — 白雲和尙 語錄 — 석찬선사 | 박문열 옮김
스승 백운화상을 향한 제자 석찬선사(釋璨禪師)의 애절한 절규!
암울한 고려 말기의 어둠을 밝히는 외로운 등불과도 같고 더위를 식혀 주는 신선한 바람과도 같은 독보적인 선풍(禪風) 중에서 후세의 선도(禪徒)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송(頌), 찬(讚), 명(銘), 서(書), 게(揭) 등을 집록한 청량서다.
신국판 | 값 10,000원

수타니파타 — Sutta-nipata — 김운학 옮김
불경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으로 시와 글귀로 이루어진 구송문학의 백미!
'수타'는 경(經) '니파타'는 집성함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 의해서 운문형식으로 구전돼 오다가 팔리어로 정착해 경전의 모습을 갖추고 '수타니파타'가 태어났다. 부처님의 첫 말씀으로 육성에 가까운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
신국판 | 값 6,000원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범우사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TEL.02)717-2121 FAX.02)717-0429 www.bumwoosa.co.kr

옛스승들께 '오늘'의 길을 묻는다

옛 스승에게 길을 묻는다. 고승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이 가을에 잇달아 열린다. 9월 22일 태고학회의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7일 보조사상연구원, 29일 봉은사와 사명당 기념사업회, 30일 월정사와 탄허문화재단,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10월 16일 성철 선사상 연구원은 태고 보우, 보조 지눌, 사명대사, 탄허 스님, 월초 스님, 성철 스님을 기려 현대인에게 고승의 지혜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조 지눌


◇월초 스님


◇탄허 스님

지눌 · 월초 · 탄허 스님 조명
학술회의 잇달아 열려

▣ 보조 지눌의 사상은 조선 중기 사상계를 움직여

"지눌의 사상은 조선 중기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조사상연구원 제52차 월례발표회에서 전북대 이창구 교수는 "서산은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을 이어 받아 당시 선학자들과 교학자들의 경통을 지적, 조선 중기 시대적 상황을 해결하는 길을 마련해주었다"며 "돈오만을 강조해 수행을 게을리했던 선학자들에게 돈오 이후 깨침을 이루는 점수의 필요성을, 선가의 깨침을 믿지 않고 방편에만 집착한 교학자들에게는 돈오의 사상을 통해 퇴불심을 없애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 선교회통, 간화경절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선 사상"이라고 부연했다.

▣ 월초 스님 등 고승에 대한 연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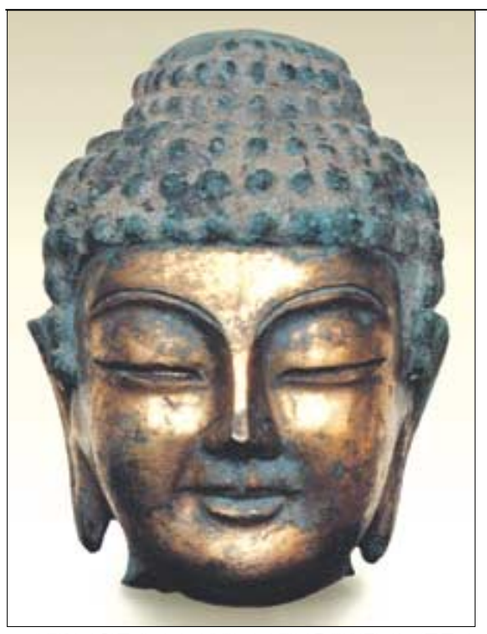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월례발표회에서 한동민(중앙대 강사) 씨는 '근대 불교계 홍월초와 봉선사 홍법강원'을 통해 "동국대 전신 명진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월초 스님은 일제시대 한국불교의 낙후성을 인정하고 포교 등 일본의 선진화된 부분은 배우자는 합리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선시대 마지막 도총섭(조선시대 최고의 승직)으로서 일본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승의 권위를 지녔고, 전 재산을 시주해 '홍법강원'을 만들어 후대 양성과 교학 발전에 이바지했다"며 "운허 이학수와 운암 김성숙 등 독립운동의 족적을 남긴 이들의 실질적인 스승이었던 월초스님의 사상적 기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라고 월초스님을 조명, 고승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조 지눌 돈오점수사상 조선중기 큰 영향
월초 스님 홍법강원 세워 교학발전 이바지
탄허 스님 평생 역경 · 교육 통해 인재 양성

▣ 탄허 스님의 화엄관은 이타행

"중생의 성불은 여래 출현으로 이어지므로, 적극적인 보살의 이타행이 중요하다." 9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탄허 스님 열반 20주기 학술회의에서 동국대 해주 스님은 탄허 스님이 강설한 <현토역해 신화엄경합론>을 통해 "보광명지에 의한 사무량심의 전개인 십바라밀은 닦아도 닦음이 없이 닦는 깨달음 후의 닦음인 화엄수행으로, 탄허 스님은 화엄 수행을 참선하는 법으로 간주하여 선교를 회통시켰다"고 탄허스님을 재조명했다. 윤창화(민족사 대표) 씨는 "탄허 스님이 평생을 통해 전개했던 불사는 불전역경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었다"고 스님의 업적을 요약했다. 윤 씨는 "전통강원의 텍스트로서 선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중요한 경전을 교학적 입장보다는 선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현토번역해 후학의 학문 연구에 지침이 되었다"며 "그 이면에는 스승 한암의 유촉과 인재양성, 경전의 원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불제자로서의 사명감과 강한 의지력이 그 뒷받침이었다"고 해석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작업이 힘들때 마다 이호관 씨의 잡념을 떨쳐줬다는 '금동여래상 불두'. 현재 일본 나라시에 보관돼 있다.

미공개 한국불상 156점 소개



이호관 前 중앙박물관 미술부장 日 관서지방 조사
"국보 · 보물지정 대상 수 건"

"슈퍼에서 파는 김치는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안다. 불상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불상은 한국인의 눈으로 봐야 한다"

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이호관(68) 씨가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일본 관서지방에 있는 한국의 불상을 조사하게 된 결정적인 한마디다. 1980년대 당시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관장이었던 고(故) 구라다 문사꾸 씨는 "일본 관서지방에 있는 한국의 불상이 400여 구가 넘을 것"이라며 이 씨에게 조사를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198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확히 3개월간 조사한 한국 불상이 모두 160점. 이 때의 조사 결과가 <일본에 가 있는 한국의 불상>(학연문화사)이란 책으로 엮여, 일반에 공개됐다. 이 가운데 156점이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불상이다.

삼국시대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외교 경로, 강탈 등에 의해 현해탄을 건너간 한국의 불상이 많다고 알려져 왔지만, 이 책만큼 많은 양의 알려지지 않은 불상이 조사된 것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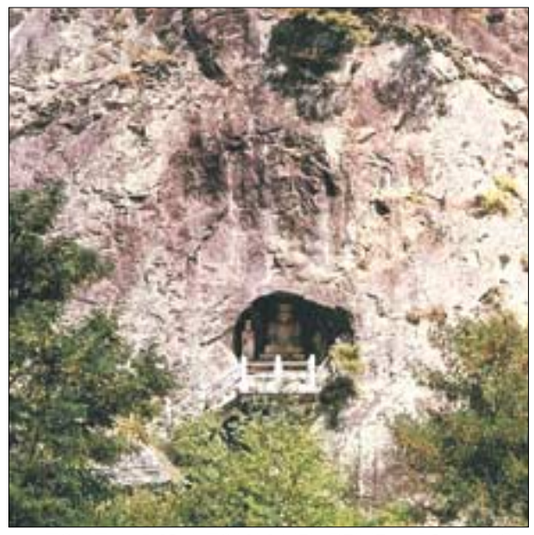
이 씨는 "160점 가운데는 국내에 남아있었더라면 국보 · 보물로 지정될 불상도 수 건에 이를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오유진 기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불 상(9)

우리나라 최초 석굴사원


◇군위삼존불. '제2의 석굴암'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석굴사원'이다.

대구 팔공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귀에 솔깃한 표지판이 눈에 띈다. "제2의 석굴암". 국보 제109호 지정된 군위삼존불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누가 이 말을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아마 경주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유명세에 기대어 군위삼존불을 드높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 불상을 석굴암과 비교하면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팔공산 암벽 뚫어 아미타삼존불 조성
인도 · 중국의 영향, "제2석굴암" 호칭 잘못

군위삼존불은 7세기말에 조성되고 석굴암은 751년에 건립되었으니, 군위삼존불이 석굴암보다 약 60여년 앞선 것이다. 그러니 굳이 앞의 방식대로 군위삼존불을 표현하자면, "제2의 석굴암"이 아니고 오히려 "제1의 석굴암"이다. 더욱이 석굴암은 자연 암반을 뚫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돌을 쌓아 만든 석굴이다. 석굴사원이 인도에서 살인적인 더위를 피해 산 중턱의 석굴에서 예배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원래의 취지를 염두에 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석굴사원은 군위삼존불이다. 따라서 군위삼존불을 정확히 평가하자면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석굴사원이자 본격적인 석굴사원"인 것이다.

팔공산 봉우리중의 하나인 가산에서 군위 쪽으로 내려온 산줄기는 거대한 암벽을 드러내 보이면서 멈춰 섰고, 그 앞에는 계곡의 물이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곳만큼 석굴사원을 조성하기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도 드물다. 돈황 막고굴, 유림굴, 병령사석굴, 맥적산석굴, 용문석굴 등 중국의 여러 석굴사원들로 이처럼 거대한 암반과 충분한 물을 갖춘 곳에 조성되었다. 역시 신라인들은 이곳을 놓치지 않았다. 웅장한 절벽에 동그랗게 굴을 뚫어 아미타삼존불을 모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석굴사원에 익숙한 감각으로 보면 생경하게 느껴진다. 바위의 크기에 비하여 석굴의 크기가 작고, 수많은 굴들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은 것이 아니고 단 하나만 뚫은 것이다. 아무래도 이곳은 실크로드의 석굴사원처럼 국제적인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실크로드의 석굴사원들은 상인들이 머물면서 사업의 번창과 안전을 기원했던 곳이다. 아무튼 인도에서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진 석굴사원의 열풍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드디어 팔공산 자락에서 아시아 석굴사원의 역사가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군위삼존불은 나름대로 엄연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석굴암"이라는 잘못된 평가로 일반인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군위삼존불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역사에 대한 왜곡이다. 군위삼존불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굴사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장심사 중창 불사기금 모금을 위한
수화스님의 분청사기 달마도 복 항아리

선원에서 다년간 참선과 선묵을 정진해오시던 수화스님께서 경기 광주 장심사 불사를 위하여 "분청사기 달마도 복 항아리"를 한정 제작하여 장심사 불사가 회향 될때까지 많은 불자들의 동참과 포교차원의 가격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를 가진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禪

도예가 토광 장동국 선생이 빚고 수화 스님이 혼을 담아 직접 달마도를 그려 넣어 만든 "분청사기 달마도 복 항아리"는 소장가치로서도 최고의 작품입니다. 특히 복 항아리 달마도는 전사지를 이용하지 않고 수화스님이 직접 그림으로써 각 달마도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어 세계유일의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 크기 : 55cm × 35cm(쌀 20kg)

수화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분청사기 달마도 복 항아리"를 소장하시고 장심사 건립불사동참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불사추진위원회 합장

◈ 최고의 작품인 만큼 주문 후 제작 시일이 걸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100여점 한정판매)
◈ 주문 제작시 생년월일에 따라 행운을 상징하는 표시를 해드리고 원하시는 이름도 넣어 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장심사에 직접 방문하시어도 됩니다.

연락처 031-763-8785, 011-685-8760

귄 천불지장기도도량 장 심 사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장심리 30-7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구인구직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바라춤, 나비춤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하신 곳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051-265-5692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공양주보살님 모 십 니 다
▷ 충남 천안 광덕면
도 인 사
041-567-5539

공양주보살님 모 십 니 다
부전 스님 모 십 니 다
011-576-2737

(주지 소임 비구니 스님)
산자 수려하고 기도 영험 도량에서 수행과 포교를 갖춘 참신한 비구니 스님이면 됩니다
(조계종 사찰 연령 50~60세까지)
직통 016-510-3455

古 蔘 洱 茶(일괄판매)
홍인 10편, 진운호 1편, 정홍긴차 2편
홍연원차 1편, 복록공차 1통(7편), 광남공병 1편
광운공병(조기) 60편, 광운공병(후기) 100편
등시해 교수 수장품 (개인 소장중)
저자: 등시해, 번역: 김동희 진년보이차 참조
019-553-3013/011-844-8949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 마산 봉화산 성진사
055-248-2644
011-571-5451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 예정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위장약을 불자님들께 원가에 드립니다
소화, 복만, 위장, 설사, 하복통, 구역질, 소화 계통 일절, 오래된 위장병 자신 있음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011-392-4984

기 도 스 님 모 십 니 다
▷ 영도 복천사
051-416-3121
011-9678-2340

조용한 암자에서 평생 살고 싶은 57세 보살입니다
혼자 암자 운영하시는 64세 정도의 비구스님으로 신도 있고 안정된 사찰을 찾습니다
054-472-5072

보 시
후불탱화 및 각종 손상된 탱화 금박(GOLD)입혀 드립니다
서울경기지역만 가능
무료 보시합니다
본 각 스 님
011-9447-9941

전통 의식 행사에 스님 필요하신 곳
- 전통의식 각종 행사
- 천도재, 시식, 다비의식
- 기타 불공 등
02-939-3327
범음,범패, 제의식, 바라춤, 나비춤, 염불 배우실 학인모집中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착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공양주 보살을 모십니다
(신심이 있는 분)
▷ 50 ~ 60세 사이
02-938-7957
011-738-0338

불치병 치료
30년간 명산을 다니며 생식, 단식 기도수행 정진하여 약사부처님의 위신의 가피에 힘을 입어 정신병, 난치병을 만져서 고침
사업실패, 가정문제 해탈로 제도합니다
약 산 암
031-746-6795
017-257-6795

부전직 원함
▷ 세납 55세, 승납 25년
약간의 장애가 있으나 염불의식은 지장없슴
원하는 보시 30만원
011-9429-5786

신심과 원력이 있는 자비 보살을 모십니다
(보시금 면담후 결정)
▷ 충남 공주 미륵선원
041-841-6689
011-457-2459

비구니 스님만 보세요
1. 사정상 병원을 못 가시는 스님
2. 병원에서도 병이 잘 낫지 않는 스님
3. 자유 정진 하실 스님
4. 걸망을 풀고 편히 쉴 곳이 없는 스님
5. 매월 보시 지급합니다
서울 불광동 북한산하 심우선원
02-357-8090 / 011-9870-5060

무 료 강 좌 안 내
■ 장애인 협회 협찬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강좌를 실시합니다 ■
▶ 과목
(1)침술학 - 매주 토요일 13:00~17:00
(2)명리학 - 매주 토요일 10:00~12:00
▶ 개강일정 : 2003. 10. 4 (토요일 부터)
▶ 대상 : 3-6급 장애인(성별, 연령 제한 없슴)
※ 수강당일 장애인 증명서 지참할 것
▶ 교재 : 개별 구입
▶ 수강신청 : 선착순 15명 (전화신청 불가)
사암침술학회 011-307-2975. 02)355-8312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 실력테스트 해보세요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계룡산 정통좌경 법사 수강생 모집
◆ 지도 과목 ◆
① 청 ⑤ 선거리장단
② 고장(장단) ⑥ 대금(피리)
③ 문서(경문) ⑦ 아쟁
④ 설경 ⑧ 판소리 및 북장단
◆ 수련장: 경남창원시 청명산(경남도청 뒤)
◆ 정통 국악인 선생 직접 지도 ◆
· 판소리 전국대회 입상(부산)
· 판소리 전국대회 금상(서울)
· 국악 지도자상 수상
· (사)한국 국악협회 공로상 수상
· 국악신문 감사패 수상
지산국악예술학당 055)264-8269. 011-864-8269

오산 선생의 사주학 비결 강좌



♠ 핵심강의내용:
-용신을 확실하게 잡을수있는 비결
-사주구조의 좋고나쁨 판별 비결
-육친분석 및 대.세운 해석 통변술
♠ 3개월 완성 수강료: W820,000원
(오산선생의 명리학 비결 교재대 포함)
♠ 매주 2회 수강/오전, 오후, 저녁반
♠ 수강신청:수시접수
오산팔자심리학 연구소
(2호선 대림역에서 도보 10분거리)
(02) 831-0055/011-208-0051
www.sazoopalza.com

눈
안구 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꼽, 눈부심, 희미함
이물감, 시력 저하, 시신경 개선, 활성산소 제거
다른 질병으로 눈이 나빠진 분, 눈 수술전후 회복
불자, 학생, 직장인, 운동선수등 눈을 많이 쓰는 분
일본특허 : 2790212 식약청 HSK : 2106909099
미국특허 : 5382714 상표출원 : 2002-5278069-80
주문상담 : 눈밝은세상(02)2237-8004
인터넷주소 : 눈밝은세상(한글로 5자만 치세요)
제조원 : 日本(주)MERCURY-MK(완제품 수입)
전국지사 대리점모집

개산3주년 기념 산신각 낙성 및 산신 점안식
많은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동참으로 산신각 조성 불사를 마치고 산신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산신님의 오법 아심과 불보살님의 무한 가피에 힘입어 죽림산사 모든 불자들이 마침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무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죽림산사 善行 합장
▶ 일시 : 불기 2547년 10월 12일(음 9.17) 일요일 오후 2시
▶ 장소 : 마음의 쉼터 죽림산사
▶ 문의 : 033)3456-008. 팩스 : 033)345-7025

수 인 작 법 사 주 팔 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히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조계사 가까운 곳 [책방 여시아문]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주: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화상방지용 전통 氣항아리 부황
■ 실용실안출원등록 (03-21028) ■



⊙ 화상방지 부황단면도 ⊙



⊙ 부황관자 SET ⊙
⊙ 제품 특징 ⊙
▶ 본제품은 전통항아리 부항의 단점인 화상의 문제점을 보완. 화상방지용 특수관자로 제작 되어 부항시술시 화상을 입지 않고 안전함
▶ 氣 제품으로 특수 제작되어 수맥 및 전자파를 차단하고 몸 안에 독소를 흡착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혈액순환과 내장기능 운동을 활성화 시켜 진정 이완 · 반사 · 교정 · 효과를 극대화 시킴
▶ 현재 전국 유명 찜질방과 사우나 등에서 성황리 판매 영업중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하여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유망직종으로 전문샵을 운영할 분 에게는 통증완화 알콜숙성 방법등 부항요법 무료교육
카히로힐링아카데미 cdhk0514@hanmail.net
031)792-8444. 011-9954-9534

志 晛 易 理 學 硏 究 院
檀園門下生 韓 恩 炅
◆ 자연오행과사상체질&수지침시술법강의
- 오장육부의 기맥혈과 장기 복진법. 맥진법의 자의관리
◆ 단원역리학 강의(초급~연구반)
- 이석영 선생 수제자 단원 이병열 선생의 정통 학문
◆ 생활 상담 · 작명 · 택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
현대기림 오피스텔 1004호 (강남역 3번출구)
www.지현역리학연구원.wo.to
(이달의 건강메모)
02)2243-9598. 018-470-6314

- 난 치 병 치 료 -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다
디스크, 관절염, 당뇨, 간질환, 두통, 우울증, 화병, 불면증, 신(神)병, 원인모를병 기타 불치병
사업실패, 가정불화등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 상담합니다
천지사포교원 02)2051-5549

유 명 침 구
♥ 저의 업계는 침구류 제조 업계로서 새 상품은 물론 사용하시던 제품을 보료, 방석, 이불, 요, 솜을 살균 소독 재생하여 맞춤,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998-1717. 011-702-2015
02)999-1717. 011-320-6296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부처님의 자취가 그리워 떠나는...
佛敎聖地
삼보에 귀의 하옵고...
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는 12년을
初心의 마음으로 佛者님과 함께합니다.



혜초여행사
HYECHO ADVENTURE TOURS,LTD.
대표 : 02)733-3900 / 직통 : 02)6263-4848
대구사무소 : 053)567-8848
www.hyecho.com
불자님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친절!과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할인 항공권 ▣ 여권 제작 대행 ▣ 세계 각국 비자 수속 대행업무
※ 스님은 수수료없이 대행하여 드립니다.
◆ 서울 담당자 : 석채언 / 이진영 / 김진석 / 이아름
◆ 대구 담당자 : 신동우, 김선희

싱가폴 항공 전세기 취항!!! (싱가폴 ↔ 부다가야)
후원 SINGAPORE AIRLINES



인도 / 네팔 佛敎聖地巡禮 佛敎 聖地巡禮만을 위한 싱가폴항공 특별기가 최고의 佛跡地인 부다가야로 모십니다.

불교성지 순례여행 - 189만원 단2회
● 1차 전세기 : 11월 21일
● 순례지 : 싱가폴-가야-나란다(불교대학)-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열반당 및 다비터)-룸비니동산-스라바스티(기원정사)-고락푸르-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싱가폴
● 2차 전세기 : 12월 8일
● 순례지 : 싱가폴-부다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바라나시-델리

불교성지 배낭여행 - 108만원
※ 일정은 불교성지 순례여행과 동일합니다.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인도 성지순례에 따른 교통, 숙박, 가이드
● 불포함사항 : 비자, 관광진흥기금, 식사, 입장료, 싱가폴 지역 관광
*** 승가대학, 신행단체, 학생 단체 대환영!!! 미리 계획하시면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지 순례가 될 것입니다.

고품격 인도/네팔 성지순례 NO 1! NO 2!
15명 이상일 경우 1분은 무료로 모십니다.(15 + 1 free)

▣ 불교성지순례 - 8박 9일(아시아나항공) 215만원
델리 직항편을 이용하여 편안하고 빠르게 다녀오실수 있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 인천-델리-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나란다불교대학-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아그라-델리-인천
● 출발일 : 1/8, 2/5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 불교성지순례 - 10박 11일(싱가폴 항공) 225만원
불교성지순례는 물론 인도 문화유적지의 보고 델리/아그라의 여유있는 탐방과 싱가폴 투어까지 이어지는 엄선된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 인천-싱가폴-델리-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나란다불교대학-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아그라-델리-싱가폴투어-인천
● 출발일 : 12/25(성도재일), 1/26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성지지역 및 각 도시 최고의 호텔과 한식 전문 요리사가 함께 합니다

▣ 불교성지순례 - 12박 13일(상가폴 항공) 259만원
8대 성지와 불교미술의 보고 아잔타,엘로라 그리고 산치 대탑의 화려함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불교성지순례의 모든것이 담겨 있습니다
● 일정 : 인천-뭄바이-엘로라/아잔타석굴-산치대탑-아그라-스라바스티(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열반지)-바이샬리-라지기르(영취산,죽림정사)-보드가야-바라나시(녹야원)-델리-인천
● 출발일 : 12/8, 1/2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후원 SINGAPORE AIRLINES

스리랑카 6일 119만원
불교의 보고로 불리우는 "아름다운 섬" 스리랑카 성지순례
● 일 정 : 콜롬보-네곰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당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당불라-캔디-켈라니아-콜롬보
● 출발일 : 11/7,11/2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미얀마 6일 159만원
황금불탑과 살아있는 불교의 나라 미얀마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싱가폴까지 함께하는 최적의 불교성지 순례!!! - 대만족
● 일 정 : 인천-싱가폴-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싱가폴-인천
● 출발일 : 10/21,11/4,11/18 ● 포함사항 : 개인 경비를 제외한 일체

인도 호텔팩 시리즈
미리 호텔과 기차예약을 해두고 안전하게 떠납니다. 2명이상 수시출발!!(복대+티셔츠+안내문까지)
인도기본 10일 113만원(주중) ● 일정 : 델리-바라나시-아그라-자이푸르-델리
인도핵심 15일 126만원(주중) ● 일정 : 델리-자이푸르-아그라-오차-카쥬라호-바라나시-델리
인도/네팔 22일 139만원 ● 일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석굴-아헴다바드-우다이푸르-자이푸르-델리-아그라-카쥬라호-바라나시-룸비니-카트만두

겨울 티벳 단체 배낭 8일 133만원
해발 4,000m 겨울 티벳고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티벳 사람들의 문화를 자유롭게 둘러 보실 수 있습니다.
● 출발일 : 10/18, 11/22, 12/20, 1/17
● 포함사항 : 국제선, 국내선 티벳여행 허가서, 숙박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전문인솔자, 현지가이드
● 불포함 사항 : 관광진흥기금. 현지공항세, 식사비, 입장료, 개인경비

티벳 세미배낭 여행 시리즈
3-4명이 팀을 이루어 광활한 티벳 고원을 질차로 달립니다.
● 출발일 : 매주 화, 목, 토, 일 (3-4인 수시 출발 가능)
● 상 품 : ❶ 티벳 8일 - 155만원 ❷ 티벳 11일 - 179만원 ❸ 티벳 / 네팔 8일 - 169만원 ❹ 티벳 / 네팔 11일 - 179만원 ❺ 동부티벳 12일 - 183만원 ❻ 티벳 / 에베레스트 BC / 네팔 16일-197만원
● 포함 사항 : 국제선, 국내선, 티벳여행허가서, 숙박,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전문인솔자, 현지가이드
● 불포함사항 : 관광진흥기금, 중국비자비, 현지공항세, 식사비, 입장료

대만 5일 95만원
10/26, 11/9, 11/23

중국 구화산/황산 5일
11/10, 11/24 89만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대창
- 대지 : 23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가액 : 1억5천
- 전형적인 시골사찰 (토굴)

- 위치 : 부산
- 대지 : 107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 4억5천
- 주택지 도심사찰

- 위치 : 부산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전세 1억(월세150)
- 주택지 도심사찰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택지 지구내 아파트밀집지역(뒤)
- 면적 : 33평(공양간 별도)
- 전세 : 3천만원(월세없음)
- 시설비 : 2천만원(절충가능)
- 장엄 화려함. 즉시 법회 가능 (10년 포교지)
- 주지스님 전라도 암자로 가는 관계로 저렴하게 양도함

016)234-318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전세 : 1천만원
- 물품비 : 100만원

011)839-4165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 150평, 밭 250평
- 임법당 1채, 요사채 2채
- 가액 : 1억 2천만원

055)585-239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선산읍 부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부지 : 350평(국유지 100평) 총합계 450평
- 가액 : 8천만원

011)540-3313

토굴 별장 펜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3천만원(대출 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016)367-2112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 가평
- 대 지 : 1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6평
- 가 액 : 1억8천

- 위 치 : 서울
- 대 지 : 25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5평
- 가 액 : 1억매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150평, 요사채 25평
- 법당(목조토기와) 11평
- 교통 편리. 도로 접
- 가액 : 1억 3천만원(절충가능)

016)652-754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 : 2000평
- 가액 : 9억원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338-2993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마을에 인접해 있는 사찰로써
- 자연녹지 임야 2천평
- 사찰년도 70년. 인지도, 지명도 확실
- 요사채,법당-기와골조 현대식 25평
- 산신각 10평, 독립 요사채 5평
- 종각 2평. 2차선도로 인접.주차장 40평
- 가액 : 3억 2천만원(절충가능)

011)564-12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김해에서 20분
- 임야 32,000평
- 종교 부지 1600평
- 법당, 요사, 산신각
- 가액 : 3억 8천만원

016)9422-80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 법당 20평. 산신각, 용왕각
- 요사 20평. 승방1, 약수물 풍부. 백년고찰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8)555-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노원구 (지하철역 200m)
- 대지 : 7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4억8천(융자가능)

※ 역사 오래된 도심 포교사찰임

- 위치 : 인천 부평 소재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양도가 : 3억

※ 뒤는 산이며 역사 80년된 고찰로써 교통의 요지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목조 임법당, 대지 300평
- 건평 40평 (방4, 법당1, 부엌1, 목욕탕1)
- 가액 : 8천500만원

054)437-1857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 월포, 칠포해수욕장중간
- 대지 : 약 80평. 1층 22평, 2층 32평
- 별장형 법당, 조립식 15평,
- 샤워장, 화장실 4개
- 심야전기, 주차무한대
- 특징 : 스님 노후나 휴양처로 최고, 조용한 바닷가
- 가액 : 2억

011)9372-5977

산사의 포교당

- 위치 : 서울 구로구 오류동
- 법당 : 20평.
- 삼존불,후불,신중,칠성,산신탱화, 산신 동불
- 요사채 30평 1동, 20평 1동
- 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등산로에 위치. 법회 즉시 가능
- 시유지 500평 점유
- 가액 : 2억5천만원(절충가능)

011)327-5863

인가된 교육기관 안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평수 : 약 375평
- 건물 : 강의실2, 사무실 1
- 특징 : 인가된 3개학과 9개 전공설치
- 기타 :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인가. 92년도 불교대학원과정 교육기관
- 가액 : 매매 2억

011)412-8040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김천, 상주에서 20분 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462-5275

사 찰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1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150평
- 가액 : 8억2천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3천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527평, 법당 25평
- 삼성각 20평, 요사채 60평
- 임야 : 15,000평(별도 계산)
- 가액 : 6억~7억(답사후 결정)

055)932-7503(전화문의요망)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 대지 430평. 실평수 1천평
- 임법당 30평, 목조 황토 기와
- 2002년 11월 완공
- 특징 : 계곡 산세 좋고 청정지역 아산 15분거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나들목 4m지점. 2006년 완공예정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 가능)

017)479-787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팔공산 파계사부근
- 대지 : 306평(법당 20평, 요사채 방 5칸) 하우스 공양간 20평임
- 산신각 5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함
- 가액 : 2억8천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53)985-9824
017)522-5544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법당 25평(주지실), 요사 50평
- 약사여래입불(조선시대 조성)
- 등기필 300여평, 시유지 1천평
- 시내 인접
- 가액 : 1억 3천만원
- 장난 전화 사절합니다

011)677-852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동 전철 10분거리
- 상가건물 5층. 2층 독채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9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32)612-6917
016)368-6917

사 찰 (토 굴) 안 내

- 위 치 : 중랑구
- 부 지 : 70평
- 법 당 : 17평
- 요 사 : 50평
- 가 액 : 5억원

※ 도심 사찰

- 위 치 : 서울시내
- 부 지 : 132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200평
- 가 액 : 15억원

※ 도심 사찰

- 위 치 : 충남 서부
- 부 지 : 1800평(종교부지)
- 법 당 : 13평(임)
- 요 사 : 20평
- 가 액 : 2억8천만원

※ 마애불 문화재 지정

◈ 전국소재 사찰 · 암자 ·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참 인연됩시다 - 정인불사 전 화 ☎ 02)722-8968 휴대폰 011-707-8204
-(조계사앞 도장전각전문점 02)735-0750 정인사)-

사찰 안내

- 위치 : 광주시 남구 관할지역
- 불구 일체, 비품 제공 (미륵불, 종등 등)
- 건평 : 78평(3층 건물)
- 대지 : 59평
- 가액 : 2억2천만원(전세도가능)

011)9604-4730
019)602-4730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소재지
- 대지, 임야합 7500평
- 법당 (목조), 요사채 2동
- 가액 : 6억 5천
- 백년 전통의 사찰

011)9344-964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에서 10분거리임
- 대지 : 164평
- 건물 : 법당15평, 삼성각5평, 요사채 30평 (손볼것 없고 주차장 완비)
- 가액 : 9천만원(절충가능)

054)252-7749
017)803-789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 포천군
- 대지 : 약 205평 자터
- 법당 28평
- 산신각 4평
- 요사채 28평
- 조립식 건물
- 창고 6평
- 가액 : 5천5백만원(급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
- 시설비 1700만원→35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자세한 문의사항 만나서 상담. 전화요망

019)335-082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청평
- 평수 : 1,860평. 임법당10평. 산신각
- 가액 : 3억 5천만원
- 외곽순환도로 4차선 공사중.
- 서울-춘천간 지하철 공사중.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산세수려. 경관 좋음

031)585-768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남쪽 금강산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건물 현식, 교구본사, 사찰, 연수원, 수련원, 기도터, 기타 종교 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사리 33과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016)838-9394

포교당최적지안내

- 위치 : 서울 상봉동 번화가 3층 중 2층
- 크기 : 60평 포교당 필요한 시설 완전 구비
- 공양방, 사무실 방
- 가액 : 5천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포함)

011)251-3151
02)434-8212. 9110

사찰 안내

- 위치 : 최고 물좋고 24시간 물흐름
- 냇가 있고 경치 좋고 산세 수려
- 2500평이상 평당 35만원
- 오래된 대웅전, 요사채 , 용화전, 산신각, 전각 2개

011)9126-226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부지 : 12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1)881-50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상인동 대로변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 70평
- 방2, 부엌, 화장실, 법당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1)814-901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북구덕천로타리에서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500만원

055)386-7463 / 016)355-4264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 2천평 밤산 군유지 2만평
- 건물 :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 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동 안대 동양화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선원 적합
- 가액 : 2억7천만원

011)531-1334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곡성군 겸면 마전리
- 잘 수리된 한옥 2동. 마을 안
- 비구니 스님 처소로 적당
- 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가액 : 7500만원

061)362-8898
011)662-1868

부처님 및 불구일체를 양도합니다

- 포교당을 운영하던 보살이 국외로 가게 되어 채무정리차 조금만 보시 받고 양도하고자 합니다(580만원)
- 삼존불, 탱화 일체, 종, 징, 북, 기타 포교당 살림 일체임. 새로이 포교당 시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011)9705-21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두류네거리 부근 인구밀집지역. 위치좋음
- 평수 : 52평
- 방2(大1, 小1), 공양간, 실내 화장실
- 삼존불, 신중전, 영가단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답사후결정

018)747-0408

양도 및 교환(급)안내

- 불교용품 백화점과 교환하실 분
- 암자, 사찰, 대지, 기도터
- 내부방4개-주방, 욕실
- 법당 조성 및 살림 가능
- 답사후 가격 절충

02)478-4334
011)9410-0031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도 승마공원 입구
- 부지 : 1,293평
- 건물 : 53평, 25평, 17평 3동
- 서울에서 50분거리
- 특징 : 산세수려, 전망좋음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안성 비봉산
- 법당, 산신각, 종각, 요사2동, 노천미륵대불, 창고 등
- 종중땅 400평 사용
- 40여년된 전통사찰. 모든 시설A급
- 불상 및 집기 일체
- 안성 최고 포교 위치
- 가액 : 1억3천만원

011)452-8374

사찰 안내

- 위치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에서 5분거리
- 대지 : 680평, 한옥 3동
- 집들이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덕봉미술관으로 사용중
- 가액 : 2억

011)659-5917
063)445-5606

사찰(급)안내

- 위치 : 목동사거리
- 60평
- 시내 한복판 . 시장 입구
- 가액 : 5천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포함)

02)2645-2445
011)9947-4458

사찰부지 안내

- 서울 근교(강남 45분거리)
- 부지 : 1500평(1,000평 종교부지 허가)
- 산세수려, 수목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5억5천만원

017)438-337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인근(섬)
- 대지 : 100평
- 법당 : 30평(한옥기와)
- 요사채 : 17평
- 가액 : 1억8천만원

※ 불심 깊은 곳(운영 잘됨)

011)9677-272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 평수 50평, 방 大2, 거실 大1
- 약사소불 108불, 약사 탱화, 신중, 지장 탱화
- 최고 시설. 웅장하고 깨끗함
- 주차 시설 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가격 절충 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부탁드립니다

011)867-572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택가
- 대지 203평, 현거래시가 250~260만
- 사정상 급 평당 19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5층, 7층 탑
- 백년이상된 고목 1그루
- 포교 적합지
- 화장실 남2, 여2
- 주차 7~8대 가능
- 주인 직접, 소개인 사절

011)883-785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2층 약 30평(4층건물)
- 가액 : 23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아주 깨끗함. 아파트 밀집지역
- 재래시장 근접

051)524-8180
011)597-6700
011)9531-6879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 75평. 3층
- 보증금 3천만원, 월 170만원
- 보증금+시설비 : 5천만원
- 매월 정기법회 즉시 사용
- 삼존불, 약사여래+지장보살 ; 1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분리형. 도시가스 시설완비

02)444-3918

목어

생각이 팔자다



윤제학 본지 논설위원

문득 유리창을 닦고 싶었다. 하늘이 너무 맑았기 때문이다. 불과 보름 전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든 바로 그 하늘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았다.

"가을 들판은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한국 속담)"지만, 올 가을은 "곡물이 비쌀 때 죽음은 싸다(아르메니아)"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풍년에 팔 것 없고, 흉년에 살 것 없는(한국)" 서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가파른 절벽이다.

"요리사의 실패는 한끼 분이지만 농부의 실패는 일년 분(네팔)"이라고 했다. 농민들의 상심이 어느 때보다 더 큰 상황이다. "농사일만 묻고 수확은 묻지 않는다(중국)"는 그들이지만, 올 가을에도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는지.

"유월 저승(여름 고생)이 지나면 팔월 신선(수확)이 온다(한국)"고 했다. 그러나 올해는 한가위에 가장 큰 비를 맞았다. 그야말로 "천 날 가뭄에 하루 홍수(일본)"격이었다. 하지만 홍수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농민들에게는 값싼 중국 농산물과 선진국의 수입 개방 압력이라는 더 큰 홍수가 기다리고 있다.

"가을볕에는 딸을 쬐이고 봄볕에는 며느리를 쬐인다(한국)"는데, 그 아까운 볕을 쬐 보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것들로 하여 이 가을은 참으로 우울하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가을 마당에 빗자루 들고 춤을 추어도 농사 밑이 어둑하다(한국)"는 말에라도 위안 삼는 수밖에.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잠시 동안의 암흑은 겁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그것도 중국의 지배 하에서 신음하는 티베트의 속담이다. '생각이 팔자'다.

장애인들 차별없는 하루 '만끽'

사단법인 우리는선우와 우리는선우청년회는 9월 21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장애인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운동 · 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행사에 참가한 1백2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밝게 웃고 있는 자신의 표정을 담은 폴라로이드 즉석사진을 선물했다. 참가자들은 몇시간에 불과했지만, 차별 없는 하루를 만끽했다.

장군죽비

러, 달라이라마 입국 거부

러시아 외무부는 9월 23일 달라이라마의 입국이 러시아-중국간 협정에 위배돼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외무부는 성명서에서 "달라이라마는 훌륭한 종교지도자로 추앙받고 있고, 그를 따르는 신자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입국과 관련해 국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러시아의 달라이라마 입국 거부는 2001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다.



불자 세상보기

최성렬 조선대 교수, 불교철학

뻐꾸기의 '얌체 산란'

뻐꾸기 울음소리로 여름이 왔음을 감지하던 때는 참으로 소박한 사람들의 세상이었다. '뻐꾹 뻐꾹' 시간을 알려주는 '뻐꾸기 시계'는 그런 시간의 상징성 때문에 히트 상품이 되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소리가 '가난'을 유감(遺感)시키기도 한다. 보릿고개가 한창일 즈음이면 그 울음소리가 유난히 슬퍼진다. 마음씨 고운 아우를 죽인 눈먼 형의 회한 섞인 울음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설화는 형을 늘 욕심쟁이로 설정해 놓는다. 이 얘기도 예외는 아니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마로 연명하던 시절의 얘긴 모양이다. 큰 마를 캐어 오면 언제나 형에게 주는 아우였다. 하지만 형은 그런 착한 아우를 오해하여 죽여버리고 만다. 작은 것만 자기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 진실은 언제나 슬픔을 삼킨 후에 드러난다. 고민하던 형은 죽어서 뻐꾹새가 되었다. 그래서 마가 영그는 오뉴월이면 '포복포복'하고 슬피 운다는 것이다.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비원(悲願)이 투사된 것일게다.

또 어떤 때는 '얌체'로 묘사되기도 한다. 뻐꾸기의 탁란(托卵) 습성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듯하다. 제 둥우리를 틀지 않는 뻐꾸기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저보다 몸집이 작고 알의 크기나 색깔이 비슷한 꾀꼬리나 멧새의 둥지에 얌체 산란을 한다. 기왕에 탁란을 했으면 잘 품어주기(抱卵)라도 하면 덜 미울 텐데 그것마저 꾀꼬리한테 미루는 놈이 뻐꾸기다. 그런데도 꾀꼬리는 제 알인 줄 알고 뻐꾸기의 알을 품어 새끼를 깐다.

생태적으로 꾀꼬리보다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된다고 한다. 뻐꾸기의 부화기간은 열흘 남짓한데 꾀꼬리는 그보다 하루 이틀 늦기 때문이다. 부화된 뻐꾸기 새끼는 이틀을 넘기지 않고 알에서 갓 깨어난 꾀꼬리 새끼나 남아 있는 알을 둥지 밖으로 모두 밀어낸다. TV에서 본 그 모습은 '생의 의지'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러고도 약 3주일간 꾀꼬리한테 먹이를 받아먹고 지내다 날 때가 되면 본래 제 어미에게로 가버리는 천생이 얌체 같은 놈이다.

뻐꾸기의 이런 유감과 원정출산은 너무나 닮아 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이민할 경우 영주권 취득용이, 군복무 기피 등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국민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는 회피하고 혜택만 누리겠다는 것이다. 일견 버거운 과외비, 치열한 입시경쟁, 병역의무, 취업난 등 불안과 막막함이 겹친 미래를 생각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의 의지로 이해해주고 싶다. 그런데도 법의 맹점이나, 이중 국적을 악용하여 갖은 이익을 다 챙기려 드는 일부 가진 층의 행태는 뻐꾸기보다 더 '얌체' 같다.

그런데 최근, 원정출산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뉴스가 전해졌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미 해외이민의 열풍이 분데다가 이제는 원정출산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부 계층이 누려온 비뚤어진 특권을 애써 눈감아온 중산층까지 원정출산 대열에 합류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이러다가 금수강산이 텅텅 비어 버릴 날이 올 지도 모르겠다. 원정출산의 이익을 제로화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

'도덕 불감증'. 다만 이것을 걱정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이 왜 이중국적자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부모에게 과연 존경심이 생길까. 요즘 급증하고 있는 원정출산을 보면서 엉뚱하게 뻐꾸기가 생각난 것은 '솔 적다'고 울어대던 소쩍새가 그리워서 였던 모양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태풍 '매미' 복구현장 봉사자들의 목소리

'희망 심어주기' 관심과 동참 필요

제14호 태풍 '매미'가 남긴 상처는 4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130여명의 인명피해 만이 아니다. 보다 더 큰 피해는 물에 잠긴 집과 들녘을 넋놓고 바라보는 농민들과 보금자리마저 물에 쓸려간 현장에 서있는 서민들에게 밀려드는 절망감이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내미는 구호의 손길은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복구 현장에서 땀 흘린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정리=김은경 기자〉

수재민에 웃음 찾아 줘야



여오숙 선재마을의료회 간사

수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고자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22명의 의료봉사팀을 구성, 9월 20일 의령 봉수면 서암리로 황급히 내려갔다. 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간중간 태풍 매미가 쓰러트리고 간 처참한 흔적들이 눈앞에 스쳐지나가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서암리에 도착하니 다행스럽게도 군인들의 수해복구 작업으로 마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가재도구며 집안 살림들이 집밖에 펼쳐진 가운데 반겨주시겠다며 뛰쳐나온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에 가슴이 저며졌다.

그 분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조금이라도 지울 수 있길 바라며, 우리는 서둘러 마을 노인당에 진료실을 마련했다. 팔, 다리 관절이 아파 절뚝거리시는 분들과 갑작스러운 수해로 놀라신 분들의 몸과 마음을 단 한번의 진료로 치료할 수는 없으나, 그 아픈 가슴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었다.

진료를 마친 후, 도매상과 약국 등의 지원을 받은 파스, 피부연고 등의 의약품과 가재도구 닦을 때 쓰실 퐁퐁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4시간여 동안의 짧은 봉사를 마무리했다.

마을어르신들은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는 않은 우리를 보고 곧 다른 봉사팀이 올 것이라며 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관심과 봉사는 2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모아져 수해민들의 얼굴에서 전과 같은 환한 웃음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재정마련과 인력수급 시급



이기표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 지부장

봉사를 하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일손이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 사흘 동안 봉사활동에 함께 할 사람을 모으느라 보냈다. 각 사찰마다 전화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 했다. 16일부터 지금까지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이 인력이다. 다음이 재정의 문제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인력처럼 그때그때 마련하면서 겨우 봉사단의 활동을 유지시켜 나갈 정도다. 봉사를 하다보면 도움이 필요한 곳은 끝이 없고, 비용과 인력은 텃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재난 앞에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 구호활동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자원봉사단과 같은 불자들의 봉사 조직 발족되면서 일손이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긴급재난구호 현장에서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미미했기 때문이다. 불자들의 봉사활동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 마련과 봉사 인력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재정적 기반 마련에 스님과 불자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스님들과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애태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손길이 닿게 하는 방법이다. 후원 및 봉사 동참 (051)506-0146

정부의 적극적 대처 절실



김용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자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찾은 강원도 정선의 한 마을은 매스컴 보도 보다 더 참담한 모습이었다. 하루아침에 집과 논, 밭 등을 수해에 내줘버린 현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 돼지 등의 가축들이 무더기로 폐사됐지만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손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서는 전염병 발생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자원봉사자들과 군인, 경찰들이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자원봉사나 생필품의 지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강원도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해마다 수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늦장대응과 안이한 피해복구 지원 비난 대상이 되곤 한다.

올해도 정부의 이런 태도는 수재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남부지방보다 더 빨리 추위가 찾아오는데, 집과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실의는 추위와 함께 더욱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해피해 지역의 현지상황을 시급히 파악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상 불필요한 단계를 생략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 선문화학회'가 창립됩니다

창립선언문

만유의 실존을 통찰과 직관력으로 바라보게 하고 공적(空寂)속에 상생과 조화로서 세상을 이끌어 온 선(禪)은 인류의 정신적 의지처이자 마음의 평온과 삶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정신문화의 보장(寶藏)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통해 불안과 고뇌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 걸림 없는 무애의 삶을 살았으며, 이웃에게는 자재와 여유, 안심(安心)과 적정으로 중생사를 이겨내도록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세분화된 가운데 급변하는 오늘날의 삶의 현상은 시대의 난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세계와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있고, 선 또한 여기에 맞춰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물질만능과 배금주의,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인간성 상실을 초래한 오늘날의 정신문명은 이제 더 이상 인류를 구제해 줄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류를 파멸과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선은 바로 이런 인류의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유일한 활로(活路)라고 평가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학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문화학회(가칭)를 창립하여 선학을 통한 시대사상의 정립 및 정신적 자재와 삶의 평온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선학의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 및 재조명, 선을 통한 현대적 제 문제의 극복방법 고찰과 대안제시, 기존 선문화에 대한 연구,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선문화의 연구와 발표 등을 하고자 합니다.

선사상의 정립 및 현대적 조명, 시대문제의 선학적 접근과 극복방안, 새로운 삶의 환경 제시를 통해 선의 현대화와 생활화를 이루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교류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학과 선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동참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03. 10. 4.
한국 선문화학회(가칭)

창립 학술대회 안내

한국선문화 학회(가칭) 창립 학술대회를 각계의 전문가와 제방의 고승대덕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3년 10월 4일(토) 1시 30분**

■ **장 소 : 불교방송 3층 법당**

- **제 1주제** 한국 선학연구 현황
  - ● 사 회 :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
  - ● 발 표 :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
  - ● 토 론 : 김방룡(원광대 강사), 김영욱(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 2주제** 한국 수행문화 현황과 전망
  - ● 사 회 : 송위지(서울보건대 교수)
  - ● 발 표 : 문을식(동국대 강사)
  - ● 토 론 : 미산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유진스님(동국대 교수)

■ **전 화 : 017-243-5838** E-mail : zen@zenculture.org **홈페이지 :** www.zenculture.org

〈**발기위원 명단**〉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고강옥(부경대 교수), 고명수(동원대 교수), 고재욱(강원대 교수), 권오민(경상대 교수),김 진(울산대 교수), 김경집(위덕대 교수), 김경회(대구대 교수), 김광식(부천대 교수), 김규철(불교방송 사장), 김낙진(진주교대 교수), 김명식(진주교대 교수), 김문용(고려대 민연 교수), 김미영(서울시립대 교수), 김방룡(원광대 강사), 김병환(외국어대 교수),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 김성철(동국대 교수), 김영선(인천대 명예교수), 김영욱(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환(부경대 교수), 김용정(동국대 명예교수), 김용헌(한양대 교수), 김은종(원광대 강사), 김종명(영산대 교수), 김종순(강원대 교수), 김주현(강원대 교수), 김준홍(대구정신병원 진료과장), 김천학(동경대 연구원), 김철수(창원전문대 교수), 김철완(정통부 정보격차해소위원장), 김치온(동국대 강사), 김태완(무심선원 원장), 마성스님(팔리문헌연구소 소장) , 문을식(동국대 강사) , 미산스님(조계종 사회부장),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박광서(서강대 교수), 박봉우(강원대 교수), 박선영(동국대 교수), 박성배(스토니부룩대 교수), 박세일(서울대 교수) , 박영록(충주대 교수), 박영재(서강대 교수), 박영환(동국대 교수), 박용광(강원대 교수),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박재현(경희대 강사), 박종연(인제대 교수), 박태원(울산대 교수), 박해당(서울대 규장각 연구원), 방 인(경북대 교수), 선혜스님(선다전공자), 성태용(건국대 교수), 소은희(이화여대 교수), 손창대(국민대 명예교수), 송영신(한양대 강사), 송위지(서울보건대 교수), 신윤환(서강대 교수), 신종원(강원대 교수), 신철균(강원대 교수), 신희섭(KIST 교수), 안재철(제주대 교수), 안종태(강원대 교수), 양무석(대전보건대 교수), 양형진(고려대 교수), 오상무(고려대 교수), 오진탁(한림대 교수), 오채현(선조각가), 옥한석(강원대 교수), 용운스님(초의학술재단 이사장), 원경스님(송광사 학감), 원정근(증산도사상연구소 연구원), 유권종(중앙대 교수), 유병우(고려대 교수), 유진스님(동국대 교수), 윤경식(고려대 교수), 윤영해(동국대 교수), 윤용택(제주대 교수), 윤원철(서울대 교수), 윤종갑(부산카톨릭대 교수), 윤철환(「시우」지 주간), 은정희(서울교대 교수), 은희천(고려대 교수), 이계경(여성신문사 전 사장),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 이병욱(중앙승가대 연구원), 이복수(강원대 교수), 이상미(성신여대 강사), 이선미(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이선옥(선무용가), 이수덕((주)동진메카트로릭 대표이사), 이승환(고려대 교수), 이종철(정문연 교수), 이중표(전남대 교수), 이진오(부산대 교수), 이창구(전북대 교수),이태승(위덕대 교수), 이호근(강릉대 교수), 이효걸(안동대 교수), 임명화(동신대 강사), 임병권(대전대 교수), 임영택(단국대 교수), 장현천(한국부동산개발투자(주) 고문), 장호득(단국대 교수), 전경갑(부경대 교수), 전영하(JNLtech 대표이사), 정계섭(덕성여대 교수), 정균화(고려대 교수), 정기문(강원대 교수), 정대련(동덕여대 교수), 정상홍(중문학 박사), 정세근(충북대 교수), 정영근(서울산업대 교수), 정천구(영산대 전 총장),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조명제(고마자와대 연구원), 조범환(서강대 교수), 조성택(고려대 교수), 조용원(원광대 교수), 종호스님(동국대 교수), 진철문(한국 조형연구소 대표), 차차석(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최성렬(조선대 교수), 최연식(서울대 강사), 최유진(경남대 교수), 최재영(외국어대 교수), 최정규(증산도사상연구소 연구원), 최종윤(강원대 교수), 한기문(상주대 교수), 허인섭(덕성여대 교수), 허일범(진각대 교수), 현남규(제주대 교수), 혜월스님(동화사 강주), 홍석경(고려대 교수), 홍원식(계명대 교수), 황명윤(한국예총 김천지부장), 황용식(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황인규(중앙승가대 연구원), 양민석(이화여대 여성학 연구소 연구원), 손수일(변호사), 김영재(대전시립미술관 관장)

내원사 스님 · 수녀 · 교무 등 '천성산 관통' 강행 항의

삼보일배로 '화엄벌' 오른다

3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40여 일째 이어지고 있는 3천배 기도 정진에도 불구, 천성간 공사 강행이 발표되자 천성산 내원사 비구니 스님들이 분노하고 있다. 내원사 대중스님들은 대중 공사를 거쳐 천성산을 수호의 단호한 의지를 담은 삼보일배를 9월 26일부터 시작했다. 부산역을 출발, 천성산 정상인 화엄벌까지 삼보일배로 오르는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내원사 대중스님 15명은 물론 천주교 수녀, 원불교 교무도 함께 종교를 초월한 생명 사랑을 재확인한다.

부산역 앞 출발 … 10월 3일 정상서 회향식
산상 퍼포먼스 · 불꽃진혼제 – 선언문 채택

10월 3일까지 8일 동안 계속될 종교인들의 삼보일배에 환경단체, 학생, 일반인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개천절인 3일 오후 2시 천성산 화엄벌 정상에서 열릴 회향식에서는 풀꽃 진혼제, 산상 퍼포먼스 등의 행사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6일 부산역 광장을 울리는 법고 소리로 막을 연 입제식은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의 인사말, 발원문, 결사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삼보일배를 시작한 스님들은 결사문을 통해 "위법 망구의 정신으로 말 못하는 뭇 생명들의 생명을 품은 천성산을 살리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법률적 대응 방안 검토에 주력하고 있는 지율스님은 짐을 챙겨 나와 부사시청 앞 봉고차에서 잠을 잘 정도로 촌음을 아껴가며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 20일, 21일 천성산 안적암에서 열린 '생명에 대안은 없다' 2차 토론회를 통해 천성산 관통을 막아내기 위한 천성산보존비상대책위가 꾸려진 가운데 지율스님의 시청앞 3천배 기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내원사 대중스님들이 삼보일배로 부산역~서면~시청~노포동~양산 국도 방면~양산시청~홍룡사~원효암~천성산 화엄벌로 이어지는 긴 여정으로 천성산을 향하는 동안 지율스님도 삼보일배에 함께 하게 된다.

지율스님은 "이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천성산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생각이다. 어떤 틀에 묶이지 않고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생명들의 소리를 다시 듣고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겠다"며 최악의 경우 단식도 불사하겠다는 의중을 비쳤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박물관에서 전시될 신흥사 그락보전 솟을 모란 꽃살문 사진.

'극락의 꽃' 꽃살문 사진전

부산박물관 10월 26일까지 72점 전시

민중의 정서와 취향이 반영되어 탄생한 불교예술의 정수인 사찰 꽃살문 사진전이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박물관(관장 박유성)은 국립청주박물관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극락의 꽃'이라 불리는 <사찰 꽃살문 사진전>을 개최한다.

10월 26일까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부산 범어사에서 수행하며 한국의 사찰과 자연을 사진에 폭넓게 담아온 관조스님의 사찰 꽃살문 사진 작품 72점이 전시된다. 이번 사진전은 기림사 대적광전 솟을꽃살문, 내소사 대웅보전 빗국화꽃살문, 범어사 팔상전 격자매화꽃살문을 비롯하여 정수사, 통도사, 신흥사 등 전국 명찰의 꽃살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한데 모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의 큰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부산박물관은 이번 사찰 꽃살문 사진전을 통해 소박하면서도 정감어린 조선 불교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다. (051)624-6343~4 천미희 기자



◇한국 정토학회 주관으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불교 의례 · 의식에 나타난 정토사상 및 염불행자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규에 녹아 든 정토사상 조명

정토학회, 부산 감로사서 학술세미나

한국정토학회(회장 강동균)는 9월 20일 부산 감로사에서 '정토의례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2003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감로사 주최, 한국정토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조강연으로 강동균 동아대 철학과 교수의 <정토신앙에 있어서 의례, 의식의 의의>가 발표되었고 주제발표에는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 법혜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태원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스님, 동국대 장례문화학과 정각스님 등이 참여했다.

특히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 법혜스님가 발표한 <선원청규에 나타난 정토의식>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정토의 의례가 선종의 청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으며, 선종에 정토사상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선원청규의 조문을 통해 확인해 주목을 받았다.

법혜스님은 "선원청규에 보면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월 6회 승당에서 십불명을 부르면서 기원을 했는데, 3일에는 국가 및 불법의 융창를 기원했고 8일에는 무상을 관하면서 자신의 수행 완성을 기원했다. 이러한 염송은 자력신앙의 선종에서 타력신앙인 정토를 겸수하는 소위 선정쌍수의 제도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토 제사의 예참에 대한 소고> <정토 예불문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됐다. 천미희 기자

신라문화제 개최

경주시, 10월 8~10일

신라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오늘에 되살리는 신라문화제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열린다.

신라문화 선양과 경주를 21세기 세계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신라문화제는 수해여파와 엑스포 등을 감안해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내용 면에서는 5개 부문 12개 종목으로 개최한다고 경주시가 최근 밝혔다.

10개 단체 1,5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새벌향연 제전행사를 시작으로 화랑씨름대회, 전국국악대제전, 신라미술대전, 백일장 등의 예술행사를 비롯해 원효예술제, 신라문화재 해설 및 학술발표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 등이 마련된다.

경주 신라문화제는 지난 62년 시작, 올해로 31회째를 맞았다.

박원구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 상량

제주지원 선 독거노인돕기 음악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10월 12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108평 규모의 전통 목조양식으로 조성되고 있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웅전 불사는 2001년 6월 대웅전 기공 법회를 갖고 시작됐다. 중요무형문화재 74호인 최기영 대목장에 의해 조성되는 대웅전은 근래에 보기 드문 전통 목조양식으로 대들보, 기둥 등에 국산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은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기념음악회'를10월 3일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천미희 기자



◇성악 전공 불교합창단 지휘자로 구성된 가릉빈가 중창단의 공연 모습.

'가릉빈가' 중창단 창단 공연

불교합창단 지휘자 6명
찬불가 · 민요 등 18곡

성악을 전공한 부산지역 불교합창단 지휘자 6명이 낙후된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결성한 '가릉빈가 중창단(단장 이혹희)'이 9월 24일 동래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7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단 공연을 가졌다.

삼보불교음악협회 부산불교지휘자협회에서 주최하고 부산불교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창단 연주회는 이경진, 황보미영, 김혜연 씨의 반주로 '구름걷힌 달처럼' '당신의 미소' '바람부는 산사' 등 찬불가와 귀에 익숙한 뮤지컬, 민요 등 총 18곡을 선보였다.

천미희 기자

통도사수련회 총동문회 야외참선 등 재발심 모임

통도사수련회총동문회(회장 장태호)는 9월 27일, 28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제4차 통도사수련회 총동문회를 개최했다.

'천년고찰 통도사 그 느낌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총동문회에는 서울, 대구 등 각지에 흩어져 생활해 오던 수련회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야외 참선, 삼보일배, 수화공연, 자장암, 서축암 암자순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발심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도법사인 통도사 포교국장 정법스님의 수화무 공연은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계기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천미희 기자

관오사 법당 신축 회향 삼존불 봉안 · 점안법회

대구지역 대표적 불교복지단체 대구불교사회복지회가 9월 24일 자체 법당인 관오사에서 삼존불 봉안식을 봉행했다.

관오사 신축법당 건립불사 회향을 겸한 이날 행사는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 점안식에 이어 봉불기념법회가 진행됐다. 봉불기념법회는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의 법문, 영산재 및 천도재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대구불교사회복지회는 22일, 23일 각각 제주 남국선원장 혜국스님, 조계종 교육위원장 지오스님 등을 초청하는 고승초청법회를 가졌다. 박원구 기자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육임강의 · 육임활용서 안 내

활용서 (입금 다음날 수취됨)
■ 육임래정비법 350,000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2,500,000
■ 上 휴대용 (10일치씩 6권) 310,000
■ 육임강의록 (上권 학습용 · 下권 활용서) 410,000
■ 육임 비디오 · CD 900,000
■ 육임신수비결(비디오 1개 포함) 300,000
■ 출생 일시 운명 예언 비법 74,000
(태아(胎兒) 길일 길시 선택 분만 선정 · 택일)

강 의 (전지역 효사선생 직강)
● 매주 일요일 전주 저녁 6시 063-284-7714
● 매주 월요일 광주 오후 3시 062-224-8680
● 매주 화요일 진주 오후 6시 055-755-1644
● 매주 수요일 부산 오후 6시 051-762-0141
● 매주 목요일 대구 오후 6시 053-642-8680
● 매주 금요일 서울 오후 5시 02-993-8680
● 매주 토요일 강남 오후 6시 02-996-3335

문의 02-993-8680
입금처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門

● 치열한 이 시대의 예민한 물음들에 대해서는 육임에 나타난 대답이 가장 신임할 수 있습니다. – 효 사 –

『이것을 알면 당신도 숯박사!』
"숯이 사람을 살린다" 저자의 완벽한 제2탄
숯을 알면 건강하게 산다



한국목탄연구소장 강 재 윤 지음

숯으로 독을 빼면 중병도 낫는다
쌓인 병독, 쌓인 약독, 쌓인 음식독,
쌓인 실내공기독 을 숯이 해독하면 기적이 보인다!



♣ 체내에 쌓인 독이 병을 만든다
♣ 지금 먹고 마시는 독이 위험하다
♣ 난병에 고생하는 분 숯요법에 주목하자
♣ 왜 숯이 독을 빼는지 알게 된다
♣ 신축아파트는 독가스실이다
♣ 숯응용사업이 보인다(사업, 부업, 겸업)

한국목탄연구소 | 410쪽 | 신국판 | 12,000원 | 전국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 02)925-0300

가을 산사에서 法香에 취해보자

분홍빛으로 물든 가을산사를 찾아 사찰을 개창한 고승대덕의 가르침을 배우고, 불교문화의 향취에 흠뻑 빠져보자.

양산 영축산 통도사, 대구 팔공산 동화사, 영천 은해사, 김제 모악산 금산사, 서울 수도산 봉은사, 공주 계룡산 갑사, 고성 연화산 옥천사 등 전국 사찰에서 개산대재가 잇달아 열린다. 올해 각 사찰의 개산대재는 불교문화에 취할 수 있는 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지역축제로 자리매김될 전망이다.

통도사·동화사 등 개산대재 잇달아

문화행사 다채…지역 축제로 변모

통도사

개산 1358주년을 맞아 10월 3일~4일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3일 설법전에서 열리게 되는 입재식과 법요식외에도 부처님 가사와 자장율사 가사 친견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 도량 곳곳에서 도예전시, 서예 전시, 꽃꽂이, 사진전 등의 전시회와 영축사상대회가 열려 중·고등학생들에게 개산의 의미를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4일에는 통도사유치원 원아들의 재롱잔치와 개산대재 기념 합창제, 개산대재 기념 제10회 괘불탱 특별전, 지역노인 경로당 위문공연 등 문화, 복지 등이 고루 어우러진 행사가 치러진다. 055-382-7182

동화사

개산 1510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 및 전통문화축제를 10월 11일~12일 양일간 봉행한다. 동화사 개산대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역대조사 스님들에 예를 올리는 헌공다례를 시작으로 극달화상 영정이운식, 개산기념 법요식에 이어, 오후 4시 '코리안팝스 오케스트라 초청 산사음악회', 만등불사 점등 및 탑돌이가 진행된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규방다례, 태교다례, 신라차법 등을 재현하고 다양한 행다법을 시연하는 '팔공산 차문화제전', 시화전 '글과 그림의 만남전', 대형종이와 붓으로 동화사 개산 축하 글을 쓰는 서예시연 퍼포먼스와 국악한마당이 펼친다. 053-982-0101

은해사

10월 12일 개산 1194주년 기념 가사불사 및 만등불사, 산사음악회를 봉행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법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법공양 순으로 이어지며, 오후 2시부터는 산사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안식, 산사음악회 등이 진행된다. 은해사는 전야제로 11일 오후3시 역대 조사스님들에 예를 올리는 다례제를 부도전에서 봉행한다. 054-335-3318

금산사

10월 15일 개산 1404주년 개산대재를 연다. 오전 9시 30분 조사전과 부도전을 참배를 시작으로 개산대재 기념법회에 이어 오후에는 보살계 수계식이 진행된다. 063-548-4441

봉은사

개산 1208주년을 맞아 9월 28일~10월 4일 봉은불교문화축제를 연다. 봉은사는 9월 28일 오전 10시 개산대재 및 다례제, 인경체험전을 시작으로 29일 사명대사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어 1일부터 4일까지 무료차 시음회, 가훈 써주기, 도농불이 직거래 장터,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진다. 02-511-6070

갑사

개산 1583주년을 맞아 계룡산 갑사(주지 장곡)는 11월 2일 기념법회 및 의승장 영규대사 추모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월 26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계룡산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은 제4회 계룡산 산중음악회'를 개최한다. 041-857-8981

옥천사

11월 23일 개산 364주년 개산대재를 앞두고 제 1회 전국불교문학작품 공모전을 연다. 전국불교문학작품 공모전의 응모내용은 운문부, 산문부 각 2편 이상.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응모 가능하다. 응모마감은 10월 31일까지이며, 시상식은 11월 23일 고성 옥천사에서 개산대재 행사와 함께 열린다. 055-672-0100,

한편, 합천 해인사는 9월 21일 개산조 스님에게 육법공양을 올리는 다례제 행사를 가졌으며, 경북 봉화 청량사는 개산 1340년을 기념해 9월 27일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처님 품안에서 즐거운 한국생활을"

광주 외국인노동자 쉼터 개소

의료, 종교, 교육등의 기회제공

광주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긴다.

광주 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꽃외국인노동자쉼터를 10월 11일 개소한다.

광주 동구 내남동 옛 지원초등학교에 자리한 한꽃외국인노동자쉼터는 하남공단과 광주첨단산업단지, 정읍농공단지 등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한글교육, 의료지원, 문화체험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편다. 한꽃외국인노동자쉼터는 국가와 종교,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섭 사무국장은 "지난 8월 광주 하남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홍보를 시작한 이후 4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자비신행회 사무실을 내방했다"며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 생활상담, 종교,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기자

고 정몽헌 회장 49재 도선사서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49재가 미망인 현정은 씨 등 유가족과 현대그룹 관계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21일 서울 우이동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열렸다.(사진)

천도재는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의 집전으로 도우스님 관욕, 현향및 헌화 영가시식,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몽헌거사가 사바세계를 온것도 떠난것도 없다"며 "영가의 진실은 보이지 않으니 대체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법어했다.

한편 고 정 회장의 49재를 맞아 인터넷 다음카페 모임인 정몽헌을추모하는 카페 는 이날 오후 6시30분 현대 계동사옥에서 촛불 추모제 를 개최했다.

김원우기자

홍성군 23일 제9회 만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유업을 재조명하는 만해제가 열린다.

충남 홍성군은 10월 23일 만해 생가지(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일대와 군청강당에서 제 9회 만해제를 개최한다.

만해제는 만해 시인학교(23~25, 홍성군청), 추모다례(23일 10시30분, 만해 생가지), 문학의 밤(23일 18시, 홍성군청) 제8회 만해 백일장(23일 11시, 홍성군청) 한우리 축제.만해의 밤(24일 13시~20시, 홍주성 푸른쉼터), 한마음 걷기대회 및 기념식(24일 15시, 홍주의사총)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김원우기자

포대화상 석상 제막식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는 9월 26일 경내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높이 2m 가량의 포대화상 석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제막식에서 혜자 스님은 "웃음을 잃고 사는 시대에 모든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고 늘 웃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포대화상을 모셨다"며 조성 취지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우리절 우리신도

"마을사람 합심해 일군 약수암"

파주읍 약수암 지킴이 문수행 보살

"어머니를 따라 약수암에 다닌 게 벌써 40여년이 됐어. 마을사람 모두가 그래. 스님이 거북산 한 귀퉁이에서 조그만 움막을 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른, 어린아이할거 없이 다 돌을 지고 날라 터를 닦고 법당을 지었거든. 그러니까 약수암은 마을사람들 공동의 집인셈이여."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한 약수암에는 대웅전의 서까래와 함께 나이 먹어 가는 지킴이보살들이 많다. 문수행(본명 류일형,71·사진 오른쪽)보살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약수암이 위치한 거북산(본칭 태봉산)은 원래 문 보살의 어머니가 묻힐 묘 자리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을에 사찰이 생겨 이웃들의 신행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말의 주저 없이 절터로 스님께 내놓았다. 마을사람들 역시 제 집일처럼 돕겠다며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섰다. 그렇게 마을사람들이 직접 일구고 지켜온 도량이 약수암이다.



따라서 다른 사찰 같은 체계적인 신도조직이나 법당청소와 공양간 봉사 등의 역할분담이 거의 없다. 그냥 김치를 담그다 스님과 기도 정진하는 보살들이 떠올라 한통 더 담고, 밥을 지으려 쌀을 푸다 부처님 공양 생각에 한 봉지 지고 올라올 뿐이다. 또한 법당이 지저분하거나 먼지가 뽀얗게 앉았으면 묵묵히 걸레를 들고 쓸고 닦는다. 그렇게 내 집에서 부처님을 모신다는 기분으로, 마을의 즐거운 일 괴롭고 힘든 일들을 모두 약수암에서 기도하며 풀어왔다.

요 근래 문 보살은 스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스님이 마을 내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해 '거북마을'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의 큰 어른으로써 별다른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이다. 또, 지난 세월 약수암과 함께 한 문 보살의 몸이 슬슬 고장이 나 사찰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 때문이다.

어머니 묘자리 주저없이 신행공간으로

김치 한통, 쌀 한봉지 정성으로 신심키워

하지만 문 보살은 오늘도 아픈 관절을 지팡이에 의지하고서라도 이웃보살들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약수암에 오른다. 그리고 오를 때마다 생각한다. 초행자가 찾기에는 어려운 이 구불구불한 길을 마을 앞 4차선 도로 개통과 함께 일자로 쭉 내주고 싶다고.

그 동안 약수암이 그래왔듯 이웃과 가깝고 편안한 부처님 도량으로 자리잡아, 많은 이들이 찾아 북적거렸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김은경 기자



추천의 말

혜각스님 약수암 주지

약수암은 순전히 주민들이 손으로 일군 도량입니다. 그 중 문수행보살은 약수암 지킴이라는 표현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초창기부터 절일을 모두 도맡아 해 온 분입니다. 건강상 지금은 못하시지만, 젊었을 때에는 매일 법당을 찾아 나무아미타불 정진을 하는 등 수행에도 열심이셨습니다. 불심 깊은 문수행보살의 모습은 약수암을 찾은 많은 신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불심 깊어 신도들의 귀감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성불 천수화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님의 현신을 믿습니다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성불 천수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보면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음성을 듣고, 찾아와 즉시 괴로움을 없애 주고 모두를 해탈케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고 했습니다. 또한 관음경에 이르길, 중생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외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들을시고 모두 해탈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SW상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성불 천수화는 수행하는 보살님을 위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명작입니다. 가죽이 아닌 신소재 피혁으로 제작되었기에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성불 천수화 입니다.

천수화는 신는 순간부터 소원을 성취하고 우주만물의 복을 부르는 옴자를 앞축에, 깨우침을 상징하는 卍자를 자크에, 신발 안쪽 뒷면에 "성불합시다"의 문구를 넣어 만행 하기전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신행화 입니다. 천수화는 만행하실때에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과 영험을 느끼게 하는 케주얼 풍 최고급 신발입니다. 특히 타사 제품과는 달리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세련되게 디자인된 불자님들의 필수 만행화 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최저의 단가로, 최고의 품질을 개선하여, 전국의 비구니스님과 보살수행신도님의 용맹정진을 위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불 천수화 입니다.

* 최초의 모델이므로 사이즈가 230 ~ 250까지(10mm단위)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 가격 : 30,000원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211-284306-13-101 예금주 : SW 상사

총판 및 불교용품 딜러 모집

(주)SW상사 080-331-1818, 051-334-2494, 314-5618



◇일명 '구봉산'이라고 불리는 속리산 묘봉줄기가 지나는 모습(위)과 형질 우수한 소나무를 표시하기 위해 조선 왕실이 설치한 금표(禁標).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16) 속리산 법주사



四覺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

◇법주사 들머리 솔숲에서 노송들이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다.

청황봉을 비롯 아홉개 바위 봉우리 우뚝
'육림선사' 떠올리는 자생 소나무 즐비
두 그루의 전나무는 사찰조경 품격 높이고
기와 파편 이용한 토담은 재활용의 좋은 예

옛날 완주 땅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소들이 풀을 뜯는 동안 친구들과 함께 냇가에 가서 개구리를 잡았다. 잡은 개구리를 버들가지에 꿰어놓고는 물놀이를 하다가 개구리를 깜박 잊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해에 소년이 소를 먹이러 다시 그곳으로 갔을 때, 바로 그 개구리가 버들가지에 꿰어진 채 살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큰 슬픔을 깨달은 소년은 그리고 어느 날 홀연히 집을 나서 산으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법주사를 세운 신라 말 진표 율사의 출가기를 각색해본 것이다.

법주사 주차장에 내려 절로 들어가다 보면 충주 달천의 상류인 속리천 물길이 다리 아래로 지나간다. 이 물길은 피안과 피안의 세계를 가른다.

피안의 다리를 건너면 멋진 소나무들이 무리지어 잔디밭 위에 서서 내방객들을 맞고 있다. 소나무는 대중적 가치도 높지만, 조경수로도 품작이 다른 나무를 뛰어넘는다.

오리숲에는 참나무를 중심으로 30여종의 활엽수들이 노송들과 함께 터널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갈참나무 군락이다. 오리숲 왼쪽으로는 속리천 맑은 물이 흐른다.

법주사 경내에 들어서면 멀리 속리산 묘봉 줄기가 풍광 좋게 지나가고 있다. 속리산은 해발 1,058m의 천황봉을 비롯하여 비로봉, 문수봉, 관음봉 등 아홉 개의 바위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일명 구봉산이라고도 부른다.

경내에는 솔향이 그득하다.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면 온통 솔숲이다. 소나무들은 속리산 정상 주능선에서부터 바위가 노출된 능선들을 따라 물 흘러내리듯이 법주사까지 내려와 있다.

법주사의 솔숲을 보면 중국 운문종의 동산선사라는 분이 떠오른다. 그는 절 뒷산에 1만주나 되는 소나무를 심어 후인들이 '육림선사'라고 불렀다. 그는 소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금강경> 한 편을 독송했다고 전해진다. 후학들은 그 뒷산을 만송령이라고 불렀다.

법주사 주변의 소나무는 식재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생이다. 법주사 대중들에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네 절집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우주관과 사각(四覺 : 不覺-相似覺-隨分覺-究竟覺)의 수행관에 입각한 조형적 체계에 따라 지어지고 배치되었다. 가람배치의 중심축에 따라 금강문-천왕문-팔상전-석등-대웅보전이 자리한다.

천왕문 앞에는 두 그루의 잘 자란 전나무가 우뚝 서 있다. 이런 풍경은 춘천 오봉산 청평사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두 그루의 전나무는 법주사 가람배치의 중심축과 절묘한 질서를 보여준다. 단 두 그루의 나무로 만들어 내는 사찰조경의 품격이 뛰어나다. 식생이 다양하고 숲이 울창하다고 해서 조경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다. 한 두 그루의 나무라도 주위의 전각들과 조화되면 멋진 조경을 이루어낸다.

천왕문 뒤에 팔상전이 거대한 목탑으로 서 있다. 우리의 석탑과 목탑은 그 모양새가 나무를 닮았다. 팔상전은 잘 자란 한 그루의 후덕한 나무이다.

절에 와서는 담장도 볼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법주사에서는 부서진 기와조각들을 주워 모아 황토에 섞어서 담장을 쌓은 곳이 많다. 폐자재의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 예가 된다. 가을이 되어 붉게 단풍든 담쟁이가 토담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길가에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열녀목이 서 있다. 자두나무와 사촌인 열녀목은 삼국시대에 스님들이 과수용으로 처음 들여왔다. 법주사를 비롯하여 지방의 여러 암자에서 관찰되는 열녀목도 모두 그 후계목일 것이며, 강원도와 충북지역에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열녀목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난봄에 발견된 희귀종 황금소나무가 개울 건너 중턱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삼척의 황금소나무는 관광객들의 등쌀에 말라죽은 지 이미 여러 해 되지만, 이 황금소나무는 다행히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려운 개울 건너에 자리해 있다. 또, 삼척의 황금소나무와는 달리 홀로 있지 않고, 주위의 다양한 나무들과 함께 어울려 숲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주사의 지표종으로 삼을 말한다.

법주사와 속리산의 소나무는 중부내륙형 소나무 가운데 형질이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점찍고 금표(禁標)까지 박아놓았다. 금표는 세심정 가는 길에 지금도 박혀 있다.

식생은 문장대쪽보다 천황봉쪽 계곡이 더 다양하다. 가는장구채, 금강제비꽃, 긴금강분취, 등대시호, 매화말발도리, 모데미풀, 속리기린초, 참꿩의다리 등의 초본류와 천연기념물인 망개나무를 비롯하여 녹다래나무, 참갈퀴나무 등의 목본들은 속리산의 식생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고유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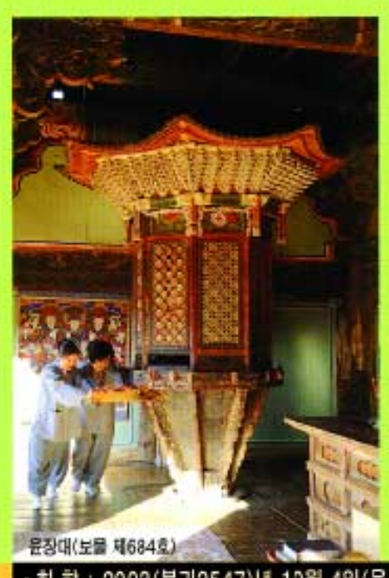
얼마 전에 발견된 고란초 군락지도 천황봉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고란초는 환경부가 희귀멸종식물로 지정한 단엽식물(일엽초)이다. 제주도, 울릉도 등 제한된 청정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양산 내원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산중사찰 주변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법주사 가람배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나무.



윤장대(보물 제684호)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용문사 대장전 • 윤장대 보수, 목각탱 • 석탑 • 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부터 1,200여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천년고찰입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정신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어느덧 용문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용문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그리고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 윤장대는 부처님의 힘으로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1,200년 동안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비로운 가르침을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용문사에서는 앞으로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윤장대 윤전 법회를 봉행하여 온누리에 불법이 두루 퍼져 한없는 복덕이 성취되길 기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003년 10월 4일(음 9.9) 중양절에 윤장대 윤전 법회 및 대장전 · 윤장대 보수, 목각탱 · 석탑 · 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를 봉행합니다. 세월의 무게 만큼이나 퇴락하여 빛이 바래 보수하고 수선하여 새롭게 부처님 위의를 빛내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그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신도회장 대행 박우식

• 회 향 : 2003(불기2547)년 10월 4일(음 9월 9일)토요일 • 동참금 : 등(1인1등) 1만원, 영가등 1만원 • 윤장대 윤전하실 분 동참금 1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47028-51-009313, 우체국 702191-01-000252 예금주 : 용문사


대장전(보물 제145호)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영부전 지장보살 · 업경대


보광명전 삼존불


진영당


교지(보물 제729호)


자문루(문화재 자료 제143호)


극락보존


영남제일강원


범종각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만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병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선(禪)건축가’ 김 개 천



◇꼭 닫힌 문이 벽이 되어 산의 실루엣을 담는 정토사 법당.



◇닫힌 문을 활짝열면 건축공간이 자연공간으로 치환되는 정토사 법당.



◇걸을 때마다 시공간이 변화무쌍하게 느껴지는 만해마을 법당.

건축가 김개천은?

개천절날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름이 개천(開天)이 된 김개천(46 · 법명 石千, 호 雲齊) 씨는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며 또한 불교철학자이다. 스물 네 살때부터 미국 로스엔젤레스, 알래스카,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설계사무소, 건설현장 등에 뛰어들어 10년에 가깝도록 ‘건축구도’ 생활을 했다. 중앙대 대학원 건축학과를 거쳐, 미국 파사데나 아트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Pasadena Artcenter of Design)에서 환경디자인을 수학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도 수료했다. 현재 이도(二圖) 건축 대표이며 서울대와 국민대에 출강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백담사 만해마을, 관자재보살(동국대 법당 대각전), 담양 정토사, 양평 강하미술관, 창녀도 부처도 없다(G.V빌딩), 감나무 부처 콘크리트 부처(하산리주택),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O주택) 등이 있다.

산문밖의 禪

건축을 화두로 10여년 외국서 구도행
만해마을 설계로 ‘선(禪)건축’ 제시
일상적 미 벗어난 명묵(明默)세계 펼쳐
정토사 법당은 자연 · 건축 하나되는 공간
“의미없이 모방하는 예술계 풍토 우려”

“내 건축은 스스로 존재해요”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이 언제나 설법하고 있다’고 했다. 세상에 설법하지 않는 존재, 불사(佛事)하지 않는 존재는 없으며 그것은 무정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일렀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건축물로도 ‘무정설법(無情說法)’을 할 수 있을까?

김개천(46 · 이도건축 대표)씨는 그 가능성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준 건축가다.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들고 세계 각지에서 10여 년의 ‘건축 구도작업’을 벌인 그는 결국 “건축을 통해 하려던 말이 불경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 후 건축과 불교의 길이 둘이 아님을 느끼고 동국대 대각전과 담양 정토사 법당을 비롯, 최근에는 백담사 만해마을을 설계해 ‘선(禪)의 건축’을 제시했다. 형(形)도 색(色)도 공간문법도 기존의 사찰 양식에서 멀리 벗어난 건축. 그러나 양식의 파격을 통해 건축에 담고자 했던 그의 정신 세계는 견고했다.

“침묵하지 않지만 침묵하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드러내거나 요구하는 것이 없는 ‘밝은 침묵’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명묵(明默)의 세계는, 항상 여여(如如)한 구족(具足)의 세계이면서 일상적 미를 넘어선 본적(本寂)의 진여(眞如)와도 맞닿아 있지요.”

개념적으로 들리기 쉬운 김개천의 선(禪)은 그의 건축물에서 생생하게 살아난다. 그가 설계한 정토사 법당은 색(色)을 통해 공(空)까지 드러낸 ‘일획의 건축’이라 평가받는다. 벽이 따로 없는 법당에서는 문을 모두 닫으면 절대 유(有)의 완전한 건축 공간이 되고, 문을 완전히 열면 건축 공간은 무(無)가 되면서 자연 공간으로 전격 변환된다.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는 꼭 닫힌 격자문 위에 공존하고, 그곳에 비치는 산그림자는 어느덧 벽이라는 건축적 요소가 되어 버린다. 건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자연이 되고 자연이 건축이 되는 합일(合一)의 경지다.

“제 건축은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건축입니다. 그래서 변한 바가 없으면서도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완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축과는 구별될 수 있겠지요.”

선은 완성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김개천 씨는 작위적인 완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건축 소재를 세련되게 다듬으려 애쓰지도 않았고, 나왕과 합판 등 통속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가장 싸고 흔한 시멘트를 이용해 경건의 공간을 만들었다. 가장 하찮은 재료로 평범을 넘는 지극함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스님이 단순하고 평범한 옷을 입는 것과 통한다.

“진실에 가까이 있는 아름다움은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지극한 아름다움은 본디 기쁜 것으로, 감상자에게 깊이를 알 수 없는 희열을 가져다주지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형(形)’으로 ‘미(美)’를 이룬 것은 ‘도(道)’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개천 씨는 전통의 양식을 의미없이 모방하고 답습하는 예술계의 풍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전통에의 향수는 문화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며, 거기서 머무는 가치는 미미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진실을 이룩하지 못한 건축은 ‘사법(邪法)’과 같이 일시적 만족은 줄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 평안함으로 일체를 선(善)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자연이 주는 것과 같은 일상의 감동을 전하려는 선건축가 김개천 씨. 전하려는 감동은 건축 너머에 있기에, 그는 200개 작품이 넘는 자신의 건축물에 별다른 애착이 없다고 얘기한다. 또한 그가 이룩한 건축물에 그의 냄새가 진하게 배여 나오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도 미래도 떠나 ‘지금 이 순간’ 자유로운 건축을 꿈꾸는 그의 목표는 언제나 ‘현재의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글=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자연과 건축이 합일된 담양 정토사 법당. 못은 법당을 담기도 하고 때로는 땅의 연장이 된다.

scom

에스콤을 만나는 순간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에스콤은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 가정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또한 평안한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풍요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 지금 에스콤으로 오십시오!

에스콤과 함께할 불자가족(총판 및 대리점)을 찾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경비구역의 경비업무를 경비원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장치를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인 경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지속적으로 그 기능이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CCTV카메라를 이용한 경비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은 녹화 감시 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며 그 녹화도 아직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고 디지털화 되어 있어도 대부분 건물 경비에 사용되며 일반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장치로는 거리가 있었다.
이 번 S-COM에서 개발한 제품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히 설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어디서나 설치된 장소를 본인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난 및 가스, 화재 방지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정 및 점포에서 든든한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관리 지사 모집
▶ 모집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 전주, 원주, 대전, 인천, 경기
▶ 모집자격 : 금융거래 하자 없는 지역유지로 순 자기 자본 2천만 이상 가능자

가정용 CC카메라 도난 경보기 S-COM (에스콤)
S-COM을 설치하시면, 밖에서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에스콤이란?”
보안 및 경비를 필요로 하는 사찰, 사무실, 고급주택, 상점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침입자의 영상을 잡아내어 사용자의 PC 또는 PDA 등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보내주는 컴퓨터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어디서나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며 사용자가 지정하는 8곳에 침입사실을 전화 또는 메세지로 통보하여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가스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비실과 관리실, 사용자 휴대폰 등 사용자가 지정하는 8곳으로 자동 연락해드립니다.
둘. 도둑이 들어오면 사용자가 지정한 8곳으로 통보할 뿐만 아니라 본사 상황실에서 판별하여 인근 파출소나 112에 출동을 신고합니다.
셋. 아이들이 집에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외부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 지체 부자유자나 노부모님들에게는 비상 목걸이를 드려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로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상황실에서 판별하여 119에 출동 신고합니다.

“제품의 구성”


●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5호 진성프라자 404호 ● 문의전화 : 1544-1088 (전국)

릴레이 수행일기 〈上〉



김함대

대흥도장(塗裝)대표

건강한 육신이란 실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주위 모든 환경을 가장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필수조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육신의 건강과 올바른 정신과의 관계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에 틀림없다.

2000년 10월, 우곡선원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만 해도 나의 심신상태는 최악이었다. 1998년 IMF관리체제 시절, 내 몸처럼 여기던 사업체를 정리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파생된 산더미 같은 부채와 삶의 좌절감 속에 모든 의욕과 용기는 사라져 버렸다.

이 때부터 가슴엔 고통의 멍에만 가득 담은 채, 감당하기조차 힘든 경제적인 압박과 모진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고 늘 긴장된 마음상태는 얼굴을 항상 발갛게 상기되게 하였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져 비염과 기관지 장애로 발전하여 숨쉬기조차도 힘든 절망과 역경의 나날들이 이어졌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생이 이렇게 고통이라면 차라리 모든 것을 마감해버리고 싶었다.

설상가상으로, 1999년 10월에는 작업도중 5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발바닥 뼈가 열세 조각으로 부서지는 심한 골절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왼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정신과 육체가 다 망가져 버린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자신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은 이렇게 철저히 고통만 있는 것이냐' 고….

그러나 우곡선원 참선교육에 입문한 후, 교리보다는 육신을 바로 세우는 근본 방편인 '날숨 호흡'을 하면서부터, 나의 모든 고뇌들을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힘으로 이어졌다. 어려운 일들이 밀어닥칠 때마다 날숨 호흡으로 마음을 통제하고 나면 숨쉬기가 편안해진다. 답답하던 가슴이 순식간에 풀어지고

날숨통해 고뇌 내려놓는 용기 얻어

지난날 고통 현재모습 위함임을 깨달아

상기되었던 얼굴도 가라앉아 고요한 가운데 복잡한 현실과 당당히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삶의 긴장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날숨 호흡을 일상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념의 정화와 호흡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련방법인 '실상관법(實相觀法)'과 '눈 씻기' 수련을 익히게 되었다. 참고로 실상관법은 순간순간 변하는 실상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 무념무상(無念無想)이 되어지는 심신수련이며, 눈 씻기는 숨을 길게 내쉰 후 물 속에 얼굴을 담구어 눈을 상하좌우로 3번씩 운동하는 호흡에 관련된 주요한 수련이다. 이 수행법을 체득하면서부터 내 심신상태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하루 1~2회의 눈 씻기 수련을 통해 점차 눈이 맑아지고 비염과 기관지 장애도 어느새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계속)

"팔정도 수행에는 출·재가 구분 없다"

"연기법의 체득을 위한 팔정도 수행에는 출가, 재가의 구분이 없다."(미산 스님)

"스승만 제대로 만나면 간화선만큼 쉬운 수행이 없으며, 일상생활과 수행을 함께 해야 하는 재가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수행법이다."(박영재 법사)

최근 국내외적으로 수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승속을 막론하고 이제 수행이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깨달음을 향한 재가 수행자들의 구도의지는 스님 못지않게 높지만,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수행에 관한 한 주로 출가승단 위주로만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외면받아 왔던 재가자 수행의 현주소와 전망을 모색하는 강연 및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계간 〈불교와 문화〉 창간 10주년을 맞아 10월 1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갖는 '재가자 수행, 무엇이 문제인가 – 그 현주소와 전망'이란 주제의 특별강연회가 그것이다.

이번 강연회에는 재가자를 대상으로 다년간 수행 지도를 해온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람수행원장)과 박영재 선도회 지도법사(서강대 이과대학장)가 체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재가 수행문화를 제시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날 '재가자 수행문화 정립을 위한 방향 및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하는 미산 스님은 미리 배포된 원고에서 "연기법의 체득을 위한 팔정도의 수행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모든 불교 수행의 토대이기 때문에 출가자와 재가자의 수행환경은 다르지만 수행의 내용은 같다"고 주장했다. 미산 스님은 "언제 어디서든 수행의 지향점은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 "재가 수행자도 바른 목표 설정과 적절한 수행법을 선택해 세속의 어려운 수행환경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생동감있는 수행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행법은 근기나 성향의 문제이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다"는 미산 스님은 "아봐타, 마음수련, 단전호흡 등과 불교 유사수행법에 대한 단호한 경계 및 비판교육을 통해, 수행관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은 재가 수행자들을 위해서 정법 수행과 사법 수행의 기준점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미산 스님은 "삶의 모든 행위가 수행이 될 수 있다. 꾸준히 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성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수행으로 바뀐 삶은 행복한 삶이다"며 '수행향상의 점검기준'도 제시했다. 즉 △늘 화두와 함께 하는가 △밖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성찰하는가(廻光返照) △있는 그대로 보는가(如實知見) △항상 마음챙김(正念)과 알아차림(正知)이 되는가 △지금 여기에 있는가(直是現今) △보리심과 자비심이 증장되는가 △탐진치를 능히 조복받는가 △자유롭고 평화로운가 등의 점검목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자가 체크 혹은 선지식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 재가자의 간화선 수행,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하는 박영재 법사는 "간화선은 일상생활과 수행을 함께 해야 하는 재가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수행법이다"며 "간결할 뿐만 아니라 뜻만 있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화선이 힘들고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향 한 대 타는 시간 동안(40분 정도) 어떤 잡념도 없이 철저히 수식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대개 6개월이면 충분), 누구나 화두 공부에 온전하게 몰두할 수 있게 된다. 입실지도(일대일 지도점검)를 통한 화두참구로 길러진 집중력은 번잡한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각자 맡은 바 본업에 100% 몰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하루 24시간이 선정 속의 삶이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게 되면서, 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필자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함께' 주어진 일에 거의 100%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박 법사는 "재가에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간화선을 별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포교사회학과)는 〈불교와 문화〉 9·10월호에 기고한 '사이버상에서의 재가불자 선 수행 실태분석'이란 글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 수행 지도는 일종의 도구적 수단일 뿐 그 자체가 궁극의 깨달음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올바른 수행풍토 조성과 수행처, 지도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사이버 선수행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세간의 초보적인 수행자를 지도할 수 있는 출가 수행자를 배출해야 한다"며 "수행 입문과정과 정진과정, 그리고 점검과정 등으로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로 이끌어주고 점검해 줄 수 있는 수행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와 문화' 창간 10돌 기념 '재가수행' 강연회



◇미산 스님



◇박영재 법사



◇김응철 교수

미산스님–"수행의 점검 기준 제시돼야"

박영재–간화선은 간결하고 장소 불문

김응철–단계별 수행지도자 양성 시급



◇온–오프라인 상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의 참선 모습. 송사모는 9월 20~21일 송광사에서 2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정토로 가는 염불수행 "함께 배워요"



◇9월21일 제32회 '원효법회'에서 강의하는 청보스님.

서울 원효사 매주 일요일 '원효법회'

"원효 스님의 사상에 따라 염불수행하는 것은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歸一心源 饒益衆生)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옥수동 원효사. 빌딩 안에 자리잡은 도심 포교당에서는 50여 불자들이 '관세음보살' 정근과 〈천수경〉 기도 등으로 진행되는 일요법회를 열고, 곧바로 주지 청보스님의 제 32번째 '원효 법회'인 '유심안락도(遊心安樂道)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칠판에 한문 원문을 써놓고 한자 한자 뜻을 새기며, 원효 스님의 일심정토(一心淨土)사상을 설명하는 청보 스님의 표정에서 가능한 쉽게 신도들을 이해시키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정토사상은 자력과 타력, 지혜의 성취와 정토왕생 등 보살로부터 범부에 이르기까지 시작과 방법은 달라도 일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스님의 안내로 어려운 한자 용어의 경우 반복해서 읽어가며 정토사상의 원리를 공부해 온 신도들은 한결같이 "기복적인 염불에서 원리를 알고 바르게 염불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원효사가 개원한 것은 지난 1985년. '원효 법회'는 그동안 청보 스님이 일본 대동문화대에서 대학원과정까지 공부하는 동안 잠정 중단되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발심수행장〉 강의를 시작으로 재개되었다. 신도들은 절에서 강의와 염불 정근을 한 후 집에 돌아가서도 자율적인 '100일 기도'를 한다. 즉 한글로 된 〈천수경〉 〈아미타경〉 원각경〉 등을 하루 1독 한 후 108배 참회와 관음정근을 하는 형식이다. 원효사 최민정(47) 신도회장은 "원효 스님의 깊은 사상을 공부한 뒤 신심도 깊어지고 경전의 뜻도 이해할 수 있게 돼, 여성들은 물론 남성 불자들도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다. (02)2298-3540 김재경 기자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고암대종사 15주기 추모제
---------- 104주년 탄신제
◎ 추모제 : 2003년 10월 10일(9.15) 10시 ◎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5) 10시

제8주년 우리절 개산대재
2003년 10월 7일(화)10시
개산대재 참석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우리절에서 마련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빵처럼 맛있게 이웃사랑 익어요

바라밀현장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제빵' 봉사

5년째 자비의 빵 만들기 봉사
강좌 인연으로 이웃 돕고자 결의
판매 수익금 복지관 운영에 큰힘

"오늘은 바게트랑 버터링쿠키라죠? 바게트 맛이 나날이 좋아져요."

"저번 주에는 꾸물거리다가 결국 못 샀어요. 2시에 나오자마자 바로 사야겠어요."

9월 22일 서울 옥수동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 휴게실 한켠에서 주부들의 구매 환담이 한창이다. 이날은 자원봉사자들이 4층 제빵실에서 빵을 만드는 날. 제빵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후 2시가 되면 식욕을 돋우는 빵내음이 복지관 내에 가득해진다. 복지관 곳곳에 붙은 '오늘의 빵' 대자보가 주부들의 지갑을 재촉하면 '사랑을 만드는 빵, 빵을 만드는 사랑'이 완성된다.

복지관에서 만들어 내놓는 빵이 사랑을 만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 질문의 답은 빵을 만드는 4명의 보살들이 쥐고 있다. 정혜전(37), 조정술(54), 최정현(56), 정숭월(47) 씨가 바로 그들. 이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빵을 만들고 판매해 그 수익금을 복지관 경영에 오롯이 쏟아 붓고 있다. 제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 빵 만들기 자비행을 펼쳐온 것이 벌써 5년째다.

"복지관에서 익힌 기술을 되돌려 드릴 뿐인데, 봉사니 보시니 하셔서 부담스러워요."

이들은 98년 복지관의 제빵 강좌에서 만나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 자격증을 따서 제빵 사업을 펼쳐보겠다는 생각 등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러나 정작 자격증을 움켜쥐고는 마음이 달라졌다. 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미있는 강좌들에만 목말라 했었는데, 그곳을 드나드는 날이 거듭될수록 이웃의 불행에 지나치게 나 몰라라 해왔구나 하는 생각에 묘한 조바심이 일었다.

"저만 그런가 했더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구요. 제빵 수업 끝나고 함께 절을 찾는 날이 많아지면서 보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게 된 것 같기도 하구요."

제빵 봉사를 결의하고 함께 웃던 모습들이 떠올랐는지 최정현(56)씨 한 마디에 다들 말이 많아진다. 그땐 재료 배합도 제대로 못하더니 요즘엔 그나마 나아졌다는 농이 한바탕 웃음 속에 자연스레 흘러나오고, 온도를 잘못 맞춰 식빵 10개를 고스란히 버려야했던 웃지 못할 실수가 5년이 지난 오늘에야 공개되기도 했다.

"오랜 기간 한마음으로 봉사하기도 힘든 일일텐데 고맙죠. 매주 후원금으로 전달되는 빵값이 모이면 연 300~400만원은 되니 복지관에도 큰 힘이 된답니다."

문선영(29) 복지사는 이들과 요일을 달리해 제빵 봉사를 펼치는 팀이 여럿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제빵 강좌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면서 모두 흐지부지됐다. 그에 반해 네 명의 보살들은 부처님법을 공부하며 키운 불심을 구심점 삼아 선행을 지속해 복지관의 귀감이 됐다. 또한 복지관의 유료강좌를 이용하는 주부들에게 '봉사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주부들의 새로운 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관의 어르신 행사나 어린이 여름캠프가 있는 날이면 과자와 빵을 별도로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는 제빵봉사자들. 정성들여 준비한 재료와 따뜻한 손길을 모은 빵이 이날도 오븐에서 예쁘게 피어오른다. 보시에 몸과 마음을 담은 보살의 향훈도 함께 피어오른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옥수복지관 제빵실에서 봉사자들이 식빵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있다.

"민초들 건강 우리가 맡겠소"



◇영남불교대와 대구보건대 자원봉사자들이 9월24일 실시한 '사랑의 혜민서 무료진료' 장면.

대구 영남불교대학 부설 사회복지법인 '좋은인연(대표 박원권)'이 복지관에서 '사랑의 혜민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대구보건대학 보건복지전문자원봉사단이 함께한 이번 무료진료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9월 24일 각종 성인병 검진,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미용 서비스 등이 진행됐다.

영남불교대 '혜민서 무료진료'
교수, 학생 80여 봉사단 파견

이날 진료에는 대구보건대학 교수와 학생 80여명 등 대규모 의료봉사단이 파견됐고, 무료진료소를 찾은 인근 지역주민 100여명은 5개 팀(재활훈련 · 치의생 · 이미용 · 일반 · 종합)으로 나뉜 진료부스를 돌며 한 사람당 평균 3건 이상의 진료를 받았다. 특히 성인병 검진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 환자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혜민서 무료진료를 펼치고 있는 대구보건대학 보건복지자원봉사센터 담당자 백신현(31)씨는 "대구지역 복지관과 관공서 등 14개 기간과 협력해 2001년 10월부터 매달 6회씩 실시해온 무료진료의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 10~15회로 진료봉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 총무 밀허스님은 "조선시대 일반 민초들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졌던 혜민서 정신을 되살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진료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053)471-0991

대구= 박원구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칸드로 린포체 (下)

관용의 정토 창조위해 노력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심하게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를 아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순수한 자비심과 동정심이 일어난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연스런 마음의 상태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생각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런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대승적 접근 방식은 그 마음으로 아무런 조작이나 계획 없이 다가가는 것입니다."('카규 라이프 인터내셔날' 중에서)

인도 무수리(Mussoorie)에 위치한 삼텐체 수행센터에서 칸드로 린포체는 나병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의복과 생필품들을 그들에게 분배하고, 다른 필요한 구호품 등도 수시로 전달한다. 그는 지역 학교에 새 책상과 걸상을 기증하기도 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땅바닥에서 공부해야 했기에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었다. 삼텐체 수행센터의 비구니 스님들과 서양에서 온 수행자들은 정기적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한다.

린포체와 여성 수행자들은 사원의 경내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기도 한다. 비구니 스님들은 수행센터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운력에 나선다.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린포체는 티베트의 비폭력 사회운동의 정착을 위해 데킬링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기도 했다.

동체대비심 그리고 지혜, 관용의 정토를 창조하기 위해 칸드로 린포체는 이처럼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텐체 자선(慈善)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보시행은 가난한 지역민을 위한 건강 및 교육사업과 '나병 프로젝트', 불서 발간 등을 비롯해 그의 본사인 민드롤링 사원과 연관된 다양한 포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자비행은 중생을 향한 '대승적 접근방식'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곳에 자비가 표현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비로운 생각이 일고 다음으로 친절, 관용, 인내와 지혜를 통해 행동하는 자비가 옵니다. 그것들은 자비의 서로 다른 특질들로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행복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다른 중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원치 않는 것처럼 다른 중생들도 그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할 잠재력을 지닌 채 진정으로 자비로워지고 남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대승적 접근 방법입니다."(삼텐체 수행센터 홈페이지(www.vkr.org) 중에서)

칸드로 린포체는 서구인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 고승들의 법문과 경전을 번역하는 일을 위해 <다르마스리 저널(Dharmashri Journal)>을 발간, 모든 종파의 티베트 고승들의 핵심 법문을 소개하고 불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상의 문서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경 기자

정기적 의료·교육 지원 등 포교사업 펼쳐
불법전파 위해 <다르마스리 저널> 발간



◇인도 삼텐체수행센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 칸드로 린포체(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제1회 전국 중학생 컴퓨터그래픽 정보검색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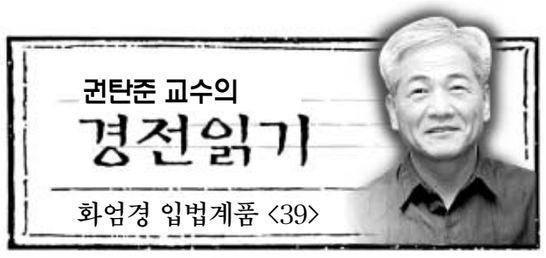


▶ 참가자격 : 전국 중학교 재학생
▶ 대회부분 : 가) 컴퓨터 그래픽 부문 - 캐릭터 디자인 - 포스터 디자인 - 심벌마크 디자인 - 브로슈어 디자인
나) 정보검색부문 - 이론 40% - 실기 60%
▶ 대회일시 : 2003년 10월 14일(화) 오후 1시 ▶ 대회장소 :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 대회접수 : 가)접수기간 - 2003년 10월 1일 ~ 10일(마감 시간 오후 5시)
나)접수방법 -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접수(행정실)
본교 홈페이지에서 대회참가신청서 1부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현재 재학중인 중학교의 학교장 추천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함(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시에 한함)
다)본교 홈페이지 - http://cheongdam.hs.kr
학교 주소 - (우)451-80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6-1
학교 전화 - 교무실 031)691-9100 행정실 031)691-8095
특성화부 031)691-5478 / FAX 031)691-8096
▶ 후 원 : 평택시 · 평택교육청 · 평택상공회의소 · 평택문화원 · 기남방송 · 현대불교신문
▶ 주 최 :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 주 관 : 도선사 · 청담문화재단
▶ 시상내역

구분	시상인원	상 금	기타특전	구분	시상인원	상 금	기타특전
대상	부문별 각 1명	부문별 7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3개년 장학금	동상	부문별 각 3명	부문별 2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1학기분 장학금
금상	부문별 각 1명	부문별 5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3개년 장학금	특별상	부문별 각 5명	상 품	본교 입학자격 부여
은상	부문별 각 2명	부문별 300,000원	본교 입학자격 및 1개년 장학금	입선	부문별 약간명	-	본교 입학자격 부여

▶ 심사위원 : 정보 및 디자인 분야의 권위있는 관계 대학교수와 본교의 컴퓨터관련 교사 및 디자인 교사로 구성
▶ 심사발표 : 2003년 10월 18일(토) (예정) ▶ 시상일시 : 2003년 10월 21일(화) (예정)

꿈이 있는 학교 열정이 있는 학교
21세기 디지털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인적자원 지정 자율학교 · 특성화 고등학교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변행 외도의 법문

때와 장소 가리지 않는 보살행 강조

세간 관찰하는 삼매 성취해야 중생교화

선재동자가 다음으로 찾아간 선지식은 남쪽의 무량도살라(無量都薩羅)라고 하는 큰 성에 있는 변행(遍行)이라고 하는 출가한 외도이다. 변행 외도에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에 편안히 머물렀고, 세간을 두루 관찰하는 삼매의 문을 성취하였으며, 의지한 데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의 힘을 성취하였고, 넓은 문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하였다.

나는 넓은 세간에서 갖가지 방소(方所)와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행과 이해로 온갖 길에 나고 죽나니 이른바 하늘 길, 용의 길, 야차의 길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지옥, 축생의 길이며, 염라왕 세계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모든 길이다. 여러 가지 소견에 빠지고 이승(二乘)을 믿고 대승을 좋아하는 이런 중생들 가운데서 나는 갖가지 방편과 갖가지 지혜의 문으로 이익되게 한다. 이른바 모든 세간의 갖가지 기술을 연설하여 온갖 공교한 기술다라니지혜를 갖추게 하며, 네 가지로 거두어 주는 방편(四攝法)을 말하여 온갖 지혜의 길을 구족하게 하기도 한다. 모든 바라밀다를 말하여 온갖 지혜의 지위로 회향케 하기도 하며, 보리심을 칭찬하여 위없는 도의 뜻을 잃지 않게도 하며, 보살의 행을 칭찬하여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소원을 만족하게도 한다. 나쁜 짓을 하면 지옥 따위에 빠져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일을 말하여 나쁜 업을 싫어하게도 하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착한 뿌리를 심으면 온갖 지혜의 과보를 얻는다 말하여 환희한 마음을 내게도 한다. 모든 여래, 응공, 정등각의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몸을 좋아하고 온갖 지혜를 구하게도 하며,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을 찬탄하여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몸을 좋아하게도 하며,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몸을 찬탄하여 여래의 가릴 수 없는 큰 위덕의 몸을 구하게도 한다.

선남자여, 이 도살라성 중의 여러 곳에 있는 여러 종류의 남녀들 가운데서 나는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의 형상과 같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알맞게 법을 말하지만, 그 중생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사실대로 수행하게 한다. 선남자여, 이 성에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처럼 염부제의 여러 성중과 도시와 마을의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이와 같이 이익되게 하노라.

선남자여, 염부제에 있는 96종 외도들이 제각기 야릇한 소견으로 고집을 세우면 나는 그 가운데서 방편으로 조복시켜 모든 잘못된 소견을 버리게 하며 염부제에서와 같이 다른 사천하에서도 그렇게 한다. 이와 같이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의 중생바다에서도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갖가지 방편 · 갖가지 법문 · 갖가지 몸 · 갖가지 말로써 법을 말하여 이익되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만을 알 뿐이다."

이와 같이 변행 외도가 설하고 있는 법문은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에 관한 것이다. 그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과 장소로 가서 가지가지의 형상과 행(行)을 나타내 보인다. 그의 이름이 변행(遍行)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세계로 널리 나아가 중생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교화하고 이롭게 하여 그들을 한없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변행 외도가 살고 있는 성의 명칭이 '무량도살라(도살라: 기쁨의 출생)'이다.

변행 외도가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의 행'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간을 두루 관찰하는 삼매(普觀三昧)를 터득하고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無依無作)신통력을 성취하여 보문(普門)의 반야바라밀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구애됨이나 사로잡힘이 없이 세간의 일체를 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시방세계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갖가지 방편, 법문, 형상, 말 등으로써 법을 설하여 그들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살도는 불교라고 하는 특정의 이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릇된 삶을 깨우쳐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요체(要諦)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모습이나 형식, 색깔 등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변행 외도가 외도(外道)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무수한 세계의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외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 불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를 내세우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수한 비행들을 돌이켜 볼 때에 변행 외도의 삶은 종교인의 삶의 올바른 지평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⑫

직지인심-11

마음 잘 들여다 보면 생사문제 풀린다

앞에서, 석가모니는 '생사라는 것이 본래 없다, 그러니 생사는 애당초 문제 거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깨달음으로써 생사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했다. 그런 이치를 대승불교에서는 무생법(無生法)이라고 일컫는다. 더 온전히 말한다면 무생무멸법(無生無滅法)이 되겠고 실제로 경전에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는 같은 뜻의 말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생겨남이 없으면 사라짐 또한 자동적으로 없으니 굳이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아니, 분명히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없어지는데, 어찌하여 생겨남과 없어짐이 없다는 말인가? 모든 존재를 개체로서만 보면 그 운명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생겨남과 없어짐을 꼽게 된다. 물론 그 사이에 얼마간 지속되는 기간과 양상이 있고, 그동안 온통 지지고 볶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존재가 지속되는 동안의 개체로서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며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절박하게 여겨지게 마련이다. 무생물이나 하급 생명체야 그런 고민이 없겠지만, 사람에게는 그만큼 절실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큰스님들 흔히 하시는 말씀이, '생사가 근본 문제이니 이를 해결하는 것이 납자의 본분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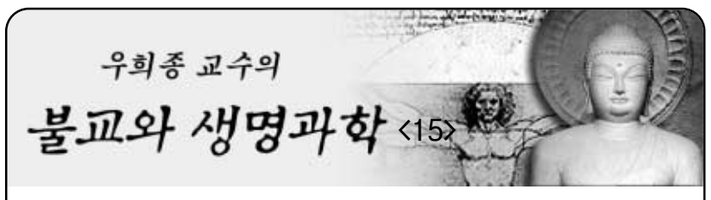
생사가 모든 존재의 너무나 자명한 운명이요 절실한 문제로 보이는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의 개체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세상 전체, 우주 전체를 단위로 해서 보면 생사라는 게 본래 없다고 했다. 리틀붓다라는 영화를 보면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찻잔을 내던지는 장면이 있다. 찻잔이 깨져 바닥에 흩어지고 잔 속에 들어있던 차도 쏟아진다. 쏟아진 차를 걸레로 훔쳐 하수구에 짜버리고 찻잔 조각을 주어 쓰레기통에 버리면, 찻잔과 차는 정녕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진 것인가? 그 찻잔과 차만 가지고 보자면 그렇다고 해야 하겠지만 세상 전체로 보자면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물을 마시면 컵에 담겼던 그 물은 없어지지만 그것이 소변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면서 유전(流轉)한다.

그리고 이철수씨의 판화 '백장암 가는 길에'를 보면, 두 그루 나무 사이에 부도가 서있고 그 위에 구름이 한 점 떠있다. 그 아래에 이철수씨가 써넣은 글귀는 다음과 같다. "탑, 비는 막돌이 되기까지야 고생 아닌가? 편할 날이 있으리니 참고 지내시게." 바위를 가지고 탑이나 비를 깎아 세워놓고는 이게 부처님 몸이라네, 이게 아무개 스님의 몸이라네 하면서 합장하여 절하고 그 주위를 돌며 기도를 해대니, 바위 그 자체로서는 고생이라는 얘기이다. 풍우에 마모되어 다시 막돌이 되어야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엉뚱한 의미를 덮어씌우지 않고 내버려두는 원래의 바위 그대로의 존재를 되찾으리라는 얘기이다.

비슷한 비유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뽑아내서는 그것으로 쟁기나 호미를 만들어 쓰다가 녹슬고 망가져 버려서 긴 세월 뒤에 분해되고 흙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철광석의 생사인가, 철의 생사인가, 쟁기나 호미의 생사인가? 철광석, 철, 쟁기나 호미의 입장에서 보면 생겼다 없어짐이 있지만 세상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말이 가서 붙을 데가 없다. 그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우주 전체를 내 몸으로 삼는 의식으로 보자면 아무 것도 나고 죽는 것이 없다.

그러니 생사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의식과는 무관하게 어디 저 밖에서 엄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 개별자로서의 사고방식에만 매어있는 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생사 문제를 풀려면 다른 것 힐끗거릴 필요 없이 바로 네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얘기가 '직지인심'이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창조와 진화, 그리고 수용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미 유전자 수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고, 진화론이란 간단히 말하여 너(환경)와 나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같이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듯 최선의 모양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지닌 특정 조건 속에서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진행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생물체의 진화는 최적의 모양이라는 우리의 관념적 기준이나 결과론적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의 흐름 속에서 빚어진다는 점이다. 불자라면 굳이 생물학자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부처님의 말씀과 그리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창조론을 이야기 하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불자들도 많은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유일신의 창조론에 익숙한 분들은 진화론뿐만 아니라 불교적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명과학을 하는 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론에 익숙한 사람이나 혹은 불교적 입장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상대에 대한 피상적 지식만 지니고 제대로 된 이해는 없이 열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과연 창조론과 소위 다양한 우리의 모습이 한 물건, 한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 고정된 실체 없이 변화해 간다는 불교적 입장은 서로 다른 것일까.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우리가 각각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진리, 생명, 법(法), 불성(佛性), 한마음(一心), 한물건, 하나님, 여호와, 길(道) 등등의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삼라만상의 근원, 바탕과 이로부터 비롯된 생명체의 관계를 어느 위치에서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본다. 생명, 신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생명체는 창조되어진 것이고 생명체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뿐이다.

불교나 다른 대부분의 종교도 비록 각자의 고유한 단어로 표현할지는 몰라도 진리나 법, 생명 이외의 방법으로 진정한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들의 육신이라는 것도 단지 흙이나 사대(四大)라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종교란 긴 시간 동안 역사적, 문화적 축적의 모양을 지니고 있기에 비록 가르치는 궁극적 가르침은 같아도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나 관점에 있어서 많은 다른 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이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기에 어느 종교이건 그 가르침만 제대로 알아들어 자기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다면 결코 다른 종교의 외적 모양이나 그 특정 종교의 종교인들의 모습만으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종교, 가르침은 같아도 관점은 달라

일상속 온전하고 평등한 삶 이뤄져야

나의 이해나 공감을 통한 수용이란 것은 결국 나의 아상(我相)에 맞는 것만 수용한다는 것이기에 진정한 불제자라면 종교나 학문적 관점을 떠나 너와 나는 이대로 온전한 것임을 받아들여 똑같이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 산 정 사

격월간 『불교와 문화』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불교 재가자 수행, 무엇이 문제인가
- 그 현주소와 전망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불교계 문화 잡지인
격월간『불교와 문화』가 계간『다보(多寶)』로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념 행사를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7(2003)년 10월 1일(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불교방송 3층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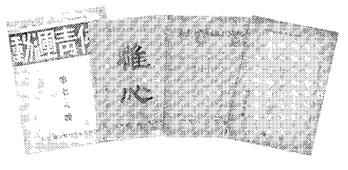
| 초청 법사 |
1. 한국불교 재가자의 간화선 수행, 가능한가
: 박영재(선도회 지도법사, 서강대 자연과학부 학장)
2. 재가 수행문화 정립을 위한 방향 및 전망
: 미산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백양사 참사람수행원장)

| 특집호 증정 및 다과회 |
10월 1일(수) 오후 2시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불교와 문화』 9/10월 특집호를 증정하며, 강연회 후 모든 참석자를 위한 다과회를 준비하였습니다.

* 재가 수행에 대해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회자에게 미리 메모를 전해 주시면 질의 응답 시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불교 잡지 전시회
- 제목 : 불교 잡지로 본 불교문화의 숨결과 무늬 展
해방 전후 불교계에서 발간된 70여 점의 불교 잡지 전시
- 기간 : 2003년 10월 1일 ~ 10월 7일(1주일간).
- 장소 : 불교방송 3층 대법당 및 로비



(재)대한불교진흥원 격월간 『불교와 문화』 www.kbpf.org 문의 : 02-719-1855, 3층 법당 02-703-0108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39화)

"우물안 개구리"

〈출전 : 잡아함경 제18;490경;2-126하〉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전투병 파병 요청

강요받는 우방의 희생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끝났다. 선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을 괴롭히던 독재자(?) 후세인이 제거되고 나서도 치안을 이유로 미군은 이라크에 머물고 있다. 전쟁은 끝났다는데도 이라크 사람들은 계속 미군을 공격하고 그런 만큼 미군이 희생되고 있다. 미군의 주둔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방위군과 예비군 가족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미군의 희생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미국은 우리에게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다.

선재는 이미 이상한 낌새를 챘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주고' 미국 관리들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유연한 발언을 쏟아낼 때부터였다. 급기야는 태풍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위로금까지 준다. 전투병을 파병해 달라는 미끼인 셈이다. '삼륜청정'이라는 말을 생각해낸 것이 과연 선재뿐일까? 위로금을 주는 미국 대통령이나 받는 우리나 모두 순수한 마음이어야 할텐데 꿍꿍이 있는 돈을 받자니 우리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방이니, 국익이니 하지만 유엔이나 우방국은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략하더니 상황이 불리해지자 뒤늦게 유엔을 찾고 우방에 파병을 요청하는 미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도무지 선재는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국익? 다국적군은 모든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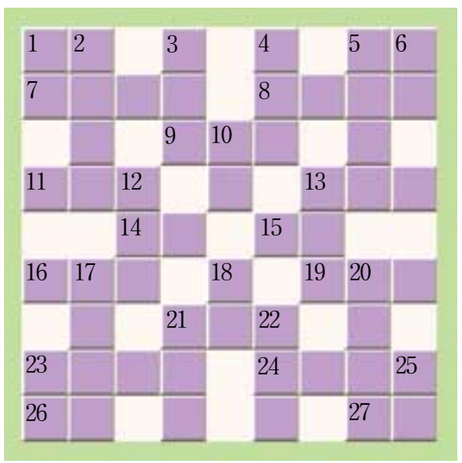
<육방예경>에서는 친구란 이래야 한다고 한다.

"위험에 처한 친구를 지켜주고, 병든 친구를 잘 돌봐주며, 친구가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러주고, 친구가 죽은 후에는 친구의 가족을 돌봐주며, 궁극적으로는 참다운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과연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가?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 해안을 덮치는 일 5. 배우자가 없는 홀 몸 7.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함 8. 가사를 짓는 불사 9. 부처님이나 수행자의 사리를 봉안한 탑 11. 지장보살님을 주존으로 모신 법당 13.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 14. 냄새를 맡는 감각 15. 가짜 이름 16. 적과 가장 가까운 전방 19. 완전하고 바른 해탈 21. 지옥세계 23. 지구상의 기상상태를 관측하기 위한 인공위성 24. 서로서로 도움 26. 빼어나게 아름다운 경치 27. 맞서서 주고받음.

〈440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1. 기강 등이 풀리어 느슨해짐 2. 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예배하는 것 3. 관심을 끄는 일 4. 경주 불국사에 있는 탑으로 다보탑과 쌍을 이루고 있다 5.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6. 점잖고 예의바르며 교양 있는 남자 10. 미터법에서 사용하는 용량의 단위 12.전방과 후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 13. 오래살기를 기원하며 밝히는 등불 17. 스승이 계법을 전하고 제자가 상속 받아 이어 감 18. 흰 옥 20. 이해와 실천이 서로 순응하여 어기지 않음 21. 참되고 성실한 마음 22. 예산에 올린 금액 23. 한 때 정신을 잃고 숨이 막힘 25. 새와 짐승.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신소재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별도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내호함 (도자기)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을 평안하며 안전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추모함 선택은 올바르게!

● 납골당이 공원화 되어가고있는 과정에서 문제가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처럼 가족과 참배하러 왔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고 마지못해 참배를 올리던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악취나는 유골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이 참된 효(孝)일까요?
이미 악취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취와 벌레까지 생깁니다.

2.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고 강하며 외관또한 미려한 이화사의 납골추모함이 있습니다.
이화사의 납골추모함은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강한 견고성으로 고인의 유골이 유실됨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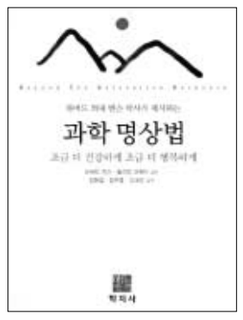
외관의 문양은 원하시는 문양 또는 글씨를 삽입 할 수 있으며, 문양 삽입후 코팅 처리되어 오래도록 봉안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제작됩니다.

이화사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피곤하세요? 명상 하세요

'과학명상법'

허버트 벤슨 · 윌리엄 프록터 지음
장현갑 · 장주영 · 김대곤 공역
학지사 /8천원



지난 8월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스토리는 '명상의 과학'이었다. 이 특집 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천만 명이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동양의 신비한 미신' 정도로 여겨졌던 명상이 이렇듯 '열풍'으로까지 번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명상의 효능이 과학적 · 의학적으로 규명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됨으로써 미국인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을 위한 치료요법의 하나로 명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 '명상' 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1960년대, 미국에서 명상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시작한 허버트 벤슨 교수.

이러한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시원을 찾아가다보면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교수를 만날 수 있다. '명상(Meditation)'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1960년대 미국에서 벤슨 교수는 '심신의학연구소'를 설립해 명상의 효과를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1975년 저술한 <이완 반응(Relaxation)>에서 명상수련자 3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명상을 하는 동안 평소에 비해 호흡 시 산소를 17% 덜 쓰고 1분당 심장박동수가 3회 떨어지며, 쎄타 뇌파(취침 직전 보이는 뇌파)가 증가하는 등,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저심박, 호흡수 감소, 혈압 강하, 신진대사 감소 등 특징적인 신체 상태에 도달하는 '이완 반응'이 스트레스에 의한 유해한 영향과 불쾌감을 극복하는 방법이며, 이는 기도나 명상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만 400만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명상'을 알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명상 + 믿음으로 생긴
'마음의 힘' 의료에 응용

이번에 나온 <과학 명상법>은 <이완 반응>의 후속작인 <이완 반응을 넘어서(Beyond the Relaxation Response)>(1984)를 번역한 것으로, '명상에 대한 이해를 신비적 성격으로부터 양자물리학과 현대 의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대 심신의학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과학 명상법>에서 이완 반응에 '신념요소'를 결합해 좀 더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유하거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념요소'란 명상과 철학적 · 종교적 신념을 결합시킨 것으로, 불자의 경우 단순한 '명상'을 '참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벤슨 교수는 이완 반응과 신념요소의 결합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가 직접 선정해준 티베트 스님을 대상으로 명상을 통한 신체 변화를 실험했다. 이 실험을 통해 그는 깊은 믿음이 신체를 반응하게 함을 밝혀내고, 믿음과 명상을 통한 마음의 힘을 일상생활에서나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벤슨 교수가 제시하는 '과학 명상법'은 조용한 곳에서 근육의 긴장을 풀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자신의 믿음 체계에 맞는 짧은 기도문이나 단어(불자의 경우 '관세음보살'이나 '옴마니반메훔' 등)를 숨을 내쉴 때 마다 반복하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몇 천년 동안 사용해온 기법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라는 벤슨 교수는 "'과학 명상법'은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삶의 활력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주는 건강지침이 될 것이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인터뷰

"초기 대승 사상 쉽게 이해"

산스크리트 원전 '팔천송…' 번역 김형준 씨



"공(空) 사상과 보살사상, 초기정토사상 등 초기 대승불교를 형성하는 다양한 사상의 발단과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천송 반야바라밀다경>입니다."

흔히 <소품반야경>, <팔천송 반야경>이라 불리는 <팔천송 반야바라밀다경>이 우리말로 옮겨졌다. 그동안 몇몇 한문 번역본이 출간됐지만, 산스크리트 원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팔천송 반야바라밀다경'
김형준 번역
담마아카데미 / 1만8천원

번역을 맡은 사람은 경전연구소(소장 돈연)에서 번역부장을 맡고 있는 김형준(43 · 사진) 씨.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교토(京都) 불교대학에서 석 ·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씨는 그동안 뉴질랜드 해밀턴 대학에서 '명상연구소' 개설을 준비하며 이 책을 번역했다.

"기존의 번역을 살펴보면, 일역은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불교용어의 풀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문맥을 이해하기 어렵고,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은 과감한 축약으로 인해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김 씨는 "이번 번역에서는 내용과 형식을 원전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독송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말한다.

해설이 필요한 불교용어를 책의 뒤편에서 주(註)의 형식을 빌어 의미를 풀고, 반복되는 특정 구절을 생략하지 않은 것은 반복을 통해 그 의미를 강조하고 독송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초기 대승불교가 아비담마 불교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어떻게 참 가르침으로 돌아가려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수령 기자

해방전후 발행 불교잡지 한곳에

'불교와 문화' 창간 10돌 … 전시회 열어
10월1~7일까지 불교방송 법당서

서점에서 불교 잡지를 구입해 본 적이 있으신지?

잡지는 오늘날 '인쇄물 시대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담는 또 하나의 '역사기록물'이라는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는 어느 서점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표 잡지' 하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잡지 불황' 속에서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펴내는 격월간지 <불교와 문화>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불교 잡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불교방송 3층 대법당 및 로비에서 선보이는 '불교 잡지로 본 불교문화의 숨결과 무늬 전'에서는 해방 전후 불교계에서 발간된 70여 점의 불교 잡지를 통해 각 시대별로 불교 잡지 속에 투영된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조선불교월보사에서 1912년 2월에 창간해 1913년 9월호로 종간된 월간 <조선불교월보>다. 이 보다 앞서 '불교 잡지의 효시'로 꼽히는 <원종잡지>는 만해 스님이 쓴 '불교 속간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그 내용과 형식이 불비하여서 완전한 잡지라고는 할 수 없으나 … 조선불교 잡지의 효시가 될 것이다"고 평가받기도 했으나 실물이 전하지 않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후 1910년대에 발간된 <해동불보>, <불교진흥회월보>, <조선불교계>는 10권을 넘지 못하고 폐간됐으며, 30본산연합사무소에서 발간한 <조선불교총보>(1917)만이 4년간 22호를 발행했다.

진정한 의미의 불교 잡지로는 1924년 7월 창간된 <불교>를 들 수 있다. (재)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이 운영하던 불교사에서 펴낸 <불교>는 83호까지는 권상로가, 84 · 85 합병호부터는 만해 스님이 편집을 담당했다. 1933년 재정난을 이유로 휴간했던 <불교>는 1937년 속간되기도 했다.

만해 스님이 주도한 유심사에서 1918년 창간한 <유심>은 문예작품을 현상모집하기도 했으나 3호로 종간됐으며, 이후 해방 전까지 발간된 <취산보림>(1920), <불일>(1924), <평범>(1926) 등도 모두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종간됐다. 1931년 선학원에서 창간한 <선원>은 1932년 8월 제3호를 발행했으며, 1935년 10월 간행주체가 조선불교선리참구원으로 바뀌면서 발행한 제4호 증간특배호가 그대로 종간호가 됐다.

광복 이후에는 <신생>(1946), <불교>(1947), <녹원>(1947)을 시작으로 현대적 의미의 불교잡지들이 창간되기 시작했다.



◇ '불교 잡지로 본 불교문화의 숨결과 무늬' 전에서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불교잡지 <금강저>와 <일광>, <녹원>, <선원> 등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맞아 '한국 불교잡지 개관'을 쓴 이철교 동국대 출판부장은 "불교 잡지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 포교의 기능을 더 가지고 있는 전문지"라며 "불교 잡지는 앞으로 핵심잡지 육성과 새로운 필진 발굴, 보는 잡지로의 전환, 불편부당한 편집방침 확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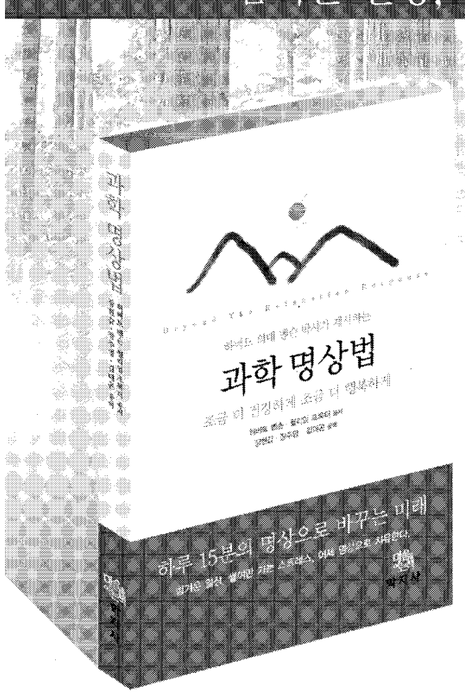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산중일지	현직 스님	지영사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3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킨지	김영사
4	영원한 대 자유인	강정진	궁리
5	파드마 삼바바	백이제	민음사
6	시공불교사전	곽철환	시공사
7	영원한 대 자유인을 읽고	청봉 스님	경서원
8	더 오래된 과학, 마음	허버트 벤슨 외	여시아문
9	법화경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10	티베트의 아이들	정희재	꿈꾸는 돌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왜 지금 명상의 열풍이 부는가?
힘겨운 일상,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 이제 하루 15분의 명상으로 치유한다.



명상계의 대가이자 400만 부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제시하는 과학 명상법

역자 : 장현갑(영남대 심리학과 교수/영남불교대학에서 유마경 강의) · 장주영(명상의학과 명상과학 전문번역가) · 김대곤(한경아카데미 원장/명상지도자)



명상이 세계 최고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스토리 '명상의 과학(the Science of Meditation)'이라는 특집기사로 실렸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1,000만 명 이상이 명상을 수행하고 있고, 학교, 병원, 법률사무소, 정부청사, 회사 사무실,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명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동양의 신비한 미신' 정도로 여겨졌던 명상에 대해 '무한 효능이 깃든 과학'이라고 경탄하며 그 효능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명상열풍의 모태가 된 의학박사 벤슨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이완반응〉의 후속서 〈과학 명상법〉이 명상열풍의 진실을 밝힌다.

"행복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가꾸는 방법으로 하루 15분의 명상을 추천한다. 명상은 지혜를 일으켜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며, 뜻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김해관 사장(앤프라니)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티벳 승려들의 수행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명상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우리 시대 최고의 명상 지침서." 정규수 회장(삼우 EMC, 세일반도체)

"몸과 마음의 행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과학 명상법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주변에 널리 번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병철 회장(우리금융그룹)

허버트 벤슨 · 윌리엄 프록터 공저/장현갑 · 장주영 · 김대곤 공역/국판/양장/212면/8000원

※ 이 책과 관련된 명상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신문사 한경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02-3604-8855)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상담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암이 진행되어 가는 단계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과 상담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추구해 보아야 할 주제들은 무엇인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경청하고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실제적이고 명확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M. Burton & M. Watson 저/이은희 역/신국판/양장/352면/15.000원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학지사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 187-10 혜전빌딩 2층 | 영업부 : 363-1333(대) | 편집부 : 363-8661 | 심리검사 사업부 : 363-1125 | 팩스 : 365-1333 학지사 홈페이지 www.hakjisa.co.kr

‘언제나 소박하게’

존 레인 지음 / 유은영 옮김

샨티 / 8천5백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렇다면 돈으로 행복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 존 레인은 돈으로 필요한 물건은 살 수 있지만 결코 행복까지 살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로 이른바 ‘성공한’ 많은 이들보다 오히려 제 3세계 국가로 불리는 곳의 소작농들이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고 충만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든다.

이처럼 이 책은 적게 가져도 오히려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준다. 적게 가진다는 것은 삶을 소박하게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 곳곳에는 왜 소박하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소박하게 살 수 있는지, 소박하게 살면 어떤 유익함이 따르는지 등의 내용들이 소개돼 있다.

적게 가져서 더 풍요로운 인생

소박하게 사는 방법 · 유익한 점 등 소개
가난 · 게으름 · 인색 · 고립된 생활 경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박한 삶이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는 물론 나아가 지구 환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풍부한 자료 분석과 경험적 증언, 그리고 동서고금의 예와 경구들을 인용해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소박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박한 삶’에 관한 교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박한 삶’이란 가난함, 궁핍함, 게으름, 인색함 혹은 자기 부정의 삶을 살거나 문명과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더 풍요롭게 사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은행원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도 <황무지>를 썼던 시인 엘리엇, 우편배달부이면서도 자기 내면의 요구에 따라 ‘이상의 궁전’을 건축한 조각가 페르디낭 슈발 등 결국 저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고 어떤일을 할 때 행복한지를 알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소박한 삶’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럴 결심이 섰다면, 우선 생활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추려내는 등 먼저 삶을 간소화하고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엄청난 정보 등에 대해 관심조차도 버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서는 돈의 지출을 줄여 나가야 한다. 신중한 소비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한 차원 더 나아가 자아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 목공이라든지 자동차 수리, 집 장식, 채소 키우기, 요리하기, 손으로 걸레질하기, 옷 수선하기 등 일상에서 가능한 노동은 삶을 고역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증진시켜 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손에 익지 않아 때론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박한 삶이 지니는 놀라운 행복의 마력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번거로움은 감수할만 하지 않을까.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나무도 氣를 쓰며 산다

물 주고 보살펴 주는 사람에 특별한 반응
70여종 나무의 기 · 효력 · 선택방법 등 설명

‘나무의 힘’

야스민 M. 라이트 지음 / 박원영 옮김

태동출판사 / 8천5백원



나무는 인류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인간에게 유 · 무형의 물질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나무가 인간과 통하는 기(氣)를 가지고 있어 인간에게 힘과 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이 책은 바로 나무마다 갖고 있는 기의 특성을 밝히고 그 특성이 ‘나무명상’을 통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형별로 밝혀 놓았다.

미국의 식물학자중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였던 클리브 백스터는 자극을 가했을 때 보여지는 식물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식물이 있는 방에 한 사람을 들여보내 잎을 따보도록 했을 때 거짓말 탐지기에 격렬한 반응이 나타났다. 또 처음 본 사람에게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물을 주고 보살펴 준 사람에게는 곧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백스터는 식물이 인간을 알아볼 수 있고 기억력도 가지고 있다는 추론을 얻어냈다. 이렇게 저자는 나무들에게도 물질적 영역을 초월해 생물의 구조와 형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학자들의 실험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결과를 통해 교감으로부터 무감각해 지는 것은 단지 ‘우리’ 일 뿐 우리 주변의 나무들을 비롯한 자연들은 언제나 제자리에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나무와 대화하며 기의 흐름을 함께 교감하는 ‘나무 명상’을 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저자는 오늘날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나무의 기(氣) 영역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즉 나무마다 끼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나무의 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단풍나무, 아카시아, 살구나무, 배나무, 회양목, 밤나무, 딸기나무, 물푸레나무 등 70여 나무의 기와 효력도 소개해 놓았다. 또 자신에게 맞는 나무를 선택하는 방법도 들어 있어 ‘나무 명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아, 여기!’

김기태 지음

한반도 / 9천원



道 마음의 병 치료하는 藥

도덕경 통해 망상의 정체 · 치유법 제시

경전(經典)은 근원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말씀이다. 노자(老子)는 자신이 깨달은 근원적 진리를 도(道)라고 부르고, 그 도를 가르치고 알려주기 위하여 도덕경을 서술하였다.

도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써 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다. 진실을 말하면, 도는 언제 어디서나 숨김 없이 모두 드러나 있지만,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말과 생각에 가로막혀서 도리어 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서 말과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다.

노자 <도덕경> 81편은 다양한 비유와 암시, 역설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온갖 생각과 말을 해체시켜서 있는 그대로의 도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

즉 도덕경의 가르침은 언어와 견해에 의하여 왜곡되고 가로막힌 우리의 병든 안목을 치료하여 바로잡아주는 병에 응하여 처방된 약으로서의 가르침이다. 이런 점에서 도덕경은 불경(佛經)과 다름이 없다.

도덕경이나 불경의 말씀은 모두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수천년 전에 지어진 오래된 처방전이다.

인간의 마음은 수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므로 그 처방의 약효는 지금도 그대로 발휘된다. 약효를 좌우하는 것은 이 오래된 처방전에 의지하여 오늘날의 약재(藥材)를 가지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쉽게 먹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알맞은 약을 새로이 조제하는 의사의 역량이다.

이런 점에서 김기태 선생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의사이다. 스스로가 오랫 동안 마음의 병에 시달려 왔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일상의 평범한 삶을 버리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다가 드디어 그 병이 치유되어 건강을 되찾는 즐거움을 직접 경험한 분이기 때문이다.

직접 그 병을 앓으면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써보다가, 결국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유한 경험을 거친 사람보다 더 그 병을 잘 알고 더 그 치유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고질병이라고 여겼던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즐거움을 맛본 김기태 선생은, 성경(聖經) 불경(佛經) 도덕경 등 동서양의 경전들이 바로 마음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처방전을 응용하여 실제 오늘날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아온 지가 여러 해 되었다.

이제 그 동안 모인 처방전을 엮어서 한 권의 작은 책을 내었으니, ‘찰나에서 샘솟는 행복의 향’이라는 부제가 붙은 <아, 여기!>라는 제목의 책이다.

이 책은 겉으로는 도덕경을 해설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살아 있는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 앓고 있는 병의 정체를 밝혀내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처방된 약임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은 마음에 가진 분별심이라는 병 하나만 치료하면, 지금 있는 이대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번뇌가 없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진실을 김기태 선생은 자신의 체험과 다양한 치료의 사례를 통하여 실감 있게 전해주고 있다.

도(道)에 어떻게 마음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을까? 그것은 도가 지금 여기에서의 내 삶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병이란 겉으로는 다양한 모습을 지닐지라도 결국 망상(妄想)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것 하나일 뿐이다. 망상이 병이라면 치료약은 진실 하나 뿐이다.

그렇게 때문에 도야말로 마음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인 것이다. 망상병을 치료하는 도의 효험은 도가 바로 지금 여기의 유일한 진실이라는 사실에 있다. 김기태 선생의 말을 들어보자.

“도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하고도 구체적인 바로 우리네 삶이요 현실이다. 또한 도는 지금 이 순간의 ‘나’와 무관한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따로이 무언가가 있는 양 말하지 말라. 삶과 유리된 도도 말하지 말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너무나 구체적인 ‘나’와 무관한 도도 말하지 말라. 그것은 너무 공허하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건대, 도란 진리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도란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이 ‘현재’이다.”

■김태완 / 무심선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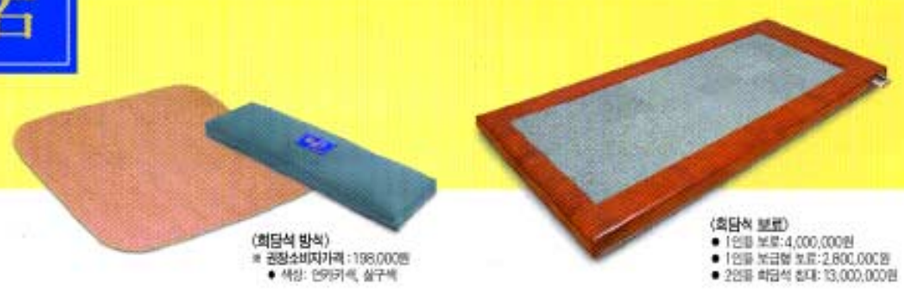
도(道)가 무엇인지, 불안과 번뇌의 정체가 무엇인지, 마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 아니 현재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불만인 사람에게는 이 책을 반드시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한다.

mahamall.co.kr

마하몰이 수험생에게 추천하는 상품

稀潭石 희담석

생명의 돌, 희담석은 이렇게 다릅니다



(희담석 방석)
※ 권장소비자가격 : 198,000원
● 색상 : 연두색, 살구색

(희담석 보료)
● 1인용 보료 : 4,000,000원
● 1인용 높급형 보료 : 2,800,000원
● 2인용 희담석 침대 : 13,000,000원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동남아 오지에서 옛날부터 치료용으로 쓰이던 신비의 돌입니다. 지구 깊숙히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단단해진 화산석의 일종으로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희담석 체험사례〉

"엄마, 제가 어느 대학에 갈지 기대하세요"

희담 방석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1년 전 여고 1학년이었던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넘기기를 힘겨워 했으며 졸기 일쑤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깨우기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재작년 추석에 무연히 〈희담 방석〉을 앉게 되어 딸 아이의 의자에 깔아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졸지도 않고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다. 하루는 중간고사를 준비한다며 딸 아이가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졸지도 않았고 아침에 힘들어 하지 않고 잘 일어나는 것이었다. 평소 자기 반 32명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 방석〉을 사용한 직후 10등으로 쑥 올라갔다. 과목중에서는 암기 과목을 제일 힘들어 했었는데 암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월등히 높아졌다. 나와 딸애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그후 골아이는 어제 잠을 잘 때도 희담 방석을 베개로 사용할 정도가 되었으며, 공부에 대한 열정도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나서 치른 1학기말 고사 성적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체 과목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95점이나 나왔던 것이다. "엄마,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공부하는게 이렇게 재미있을줄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느 대학에 갈지 기대하세요" 하며 흥분해 하는 딸 아이를 보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희담 방석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씁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영희(42세/여,수험생 어머니,부천중동)

과 목	2002년도 1학기 (선택상진)	2003년도 1학기 (선택상진)	과 목	2003년도 1학기 (선택상진)	2003년도 1학기 (선택상진)
국 어	77.82	96.00	사회문화	95.60	100.00
도 덕	81.88	85.60	윤 리	80.30	91.70
수 학	60.12	78.40	확률통계	87.70	91.40
사 회	64.06	83.00	정 치	72.00	96.00
국 사	68.21	96.00	세계지리	82.00	87.70
과 학	56.89	95.00	생물 I	96.00	92.00
가정 전반	73.96	68.00	한 문	91.90	100.00
영 어	74.67	96.00	영어 I	93.00	91.30
			화학II	95.70	100.00
			물리 I	100.00	96.00
			정보 I	80.00	92.30

부천 중동고등학교 스스여자고등학교 2학년 재존의

"엄마, 정말 공부가 잘돼요."

일 년 전 손바닥 크기의 희담석 지키미를 선물받았다. 허리가 아플 때 한번 대 보았더니 한두 시간 지나자 요통이 사라지는 게 보통 돌이 아닌가 보다 싶었다. 그후 희담석으로 만든 방석이 나왔다고 하기에 한 개 구입하여 고등학생 아들의 의자에 깔아주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문득 "엄마, 정말 공부가 잘돼요." 하는게 아닌가! 이유를 묻으니 희담방석 위에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집중이 잘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이 잘 된다고 하였다. 그후로도 성적은 올라 갔으며 지금도 꾸준히 성적이 오르고 있는 중이다. 모두 희담방석 덕분이라 생각된다.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꼭 한번 써 보실 것을 자신있게 권한다. 장해숙(43세/ 여, 수험생 어머니, 일산)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백혈병과 투병중이며, 이틀에 한번 씩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는 본은 아시겠지만 주사 맞고 난 다음날 백혈병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무연히 희담석 보료를 구입한 후, 주사를 맞고 희담 보료 위에서 하룻밤을 잤더니 이상하게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의아했지만 다음날 다시 주사를 맞았고, 그리고 희담석 보료에서 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던 중 희담석 보료를 한번 시험해 보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후 4개월 동안 백혈병에 대한 어떤 약도 먹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도 중단한 채 오로지 희담석 보료에서만 잠을 잤습니다 (백혈병 환자는 약을 끊을 경우 대부분 1달 정도 되면 병원에 실려 간다고 합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였고 결과를 본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혈구의 수치가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었던 당시의 수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담석 보료에서 자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김기주 (51세/ 남, 대전시 서구 둔산동)

"몸 안 가득히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늘 넝약한 나는 불사를 앞두고 건강을 회복하고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엄마 지나지 않아 결국 실망하곤 했다. 특히 명소에 참을 푹 잘 수가 없었기에 아침에 일어나려면 육신이 천근만근인 듯했다. 우연히 도반스님의 소개로 희담석 보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잠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잠이 보약' 이라고 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숙면을 취한 덕분인지 몸 안 가득히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희담석 보료를 사용한 지 약 6개월이 되었다. 불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희담석 보료가 있기에 그 큰 불사를 대과없이 치러내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스님, 경남)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원 (주)자원넷 JAWONET CO., LTD.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믿음과 정진

요즘 시민들은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사회의 혼란에서 오는 실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런 때는 황소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것이 최상이다.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만큼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잡아함경>제22에 나오는 게송에 이런 찬송이 있다. "믿음은 모든 시내를 건너게 하고/ 게으르지 않음은 넓은 바다를 건너게 하며/ 정진으로 모든 고통을 버리고/ 지혜로 맑고 깨끗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시내는 윤회를 의미하며, 바다는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정진이란 부단한 수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믿음을 바탕으로 무상, 고, 무아를 자기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인 것이다. 따라서 수행은 법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을 <중아함경>제4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만하지 않은 것이 감로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 교만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나/ 교만이란 곧 수행자의 죽음이다."

자기완성위해 함께 구르는 두바퀴
균형감각 유지하며 실천 뒤따라야

교만이란 믿음이 결여된 상태요, 정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교만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교만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동물적이다. 아직 정제되지 않은 마음이며, 탐욕과 분노가 서려 있는 마음이다. 남을 능멸하며, 남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며, 남과의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마음이다. 그렇기에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 연민도 없다. 남을 포용할 줄 모르며,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진뿐이다. 이 경우 정진이란 법답게 수행하는 것이며,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교만한 마음이 세련된 마음으로 바뀌며,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되며,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게 된다. 자비와 인욕과 포용은 여기서 가능해 진다. 그렇기에 '교만하지 않음이 감로의 길'이라 가르친 것이다. 감로란 단 이슬이란 의미이지만 이것은 범어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감로를 의미하는 범어는 죽지 않는다는 의미(不死)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단 이슬과 죽지 않음은 하나의 단어로 표기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중아함경>에 나오는 게송에선 죽지 않는 것이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교만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길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게 되기 때문이다. 정진 즉 부단한 수행을 통해 열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찬송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성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유용하고 사실적인 직접 증거로 증명되지 않는 교리들에 찬성하는 것이다. 지성이 믿음의 문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초월해야 한다. 사실적인 것들을 초월하지만 믿는 자는 믿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로서 기꺼이 그의 지식의 틈을 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성적인 태도 때문에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주로 의심과 당혹감이다.

불교에서 믿음은 단지 예비적 즉 임시적인 단계로 간주한다. 믿는 사이에 직접 발생하게 되는 정신적인 자각이며, 알고자 했던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적 믿음은 정진이라는 이름의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의 덕이 사물의 진실한 본성에 대해 강한 통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믿음이 없으면 정신적인 통찰이라는 식물이 싹을 틔울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씨앗에 비유한다. 요즘과 같은 회의적이고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신앙이 지니고 있는 지성적인 면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믿음이든 신앙이든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지성 보다는 마음에 더욱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믿음이란 '주어진 관념에 마음의 힘을 집중하여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덕은 자기수련에 의해 강화되고 증진되는 것이지 각자가 지닌 신념을 토론해서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감한 결단력이자 자기 확신의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후회하기 보단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언제나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정진은 각각 따로 굴러가는 바퀴가 아니라 상호의존 속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불교적 가치가 너무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가르침이며, 반면에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정진에 근거한 우리들의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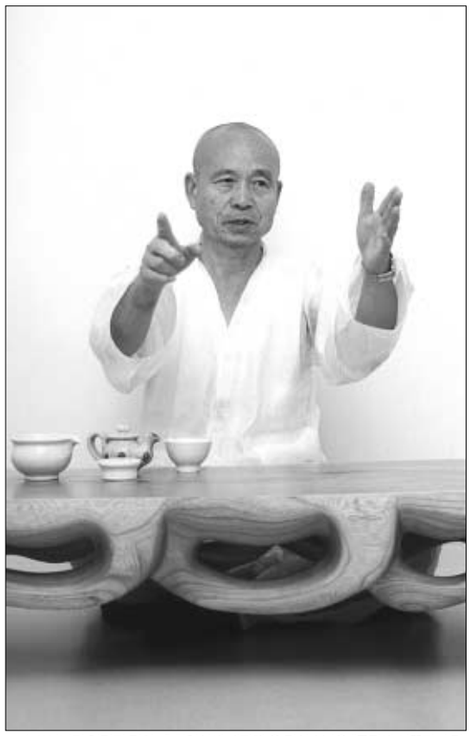
마음 몸·생명보다 더 소중



지상 백고좌

각성스님

(삼일선원장)



◇40여년간 역경과 강의, 후학양성에 매진해 온 각성스님은 "물질에 이끌리지 말고 자신의 근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으로서 알아야할 기본 상식과 지식이 너무도 많지만, 무엇보다 근본 핵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생존경쟁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이 없다면 일확천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일신이 천금 만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몸이 있어야 즐거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걸음 더 들어가 근본을 따져본다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나무토막이나 송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근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몸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과 생명보다 근본이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불성(佛性), 각성(覺性), 본심(本心), 여래장(如來藏) 등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 자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그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혹해서 어리석은 상태가 곧 중생입니다.

그러면 부처와 중생이 본래 무엇에 의해서 생겼느냐.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마음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착한 것, 악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모두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착한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고 악한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본래 순수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때 묻지 않은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곧 양심이라는 것이지요.

현대의 물질 만능 시대에 먹고 입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다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근본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것은 넉넉하지만 많은 불상사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이로제와 신경쇠약, 불안, 공포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하루에도 몇 명씩 자살합니다. 못 먹고 못살아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

기자가 본 각성 스님

출가 후 40여 년 동안 역경과 강의, 후학양성에 힘써 온 '이 시대의 대강백', 원조 각성(圓照 覺性) 스님. 수 많은 저서와 강의로 이름 높은 스님이지만, 법문이나 강의를 하실 때는 그 흔한 메모지 한 장 손에 쥐지 않는다. "항상 책을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 저절로 정리가 돼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낼 쓸 수 있다"는 스님은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책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후학들이 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지난 1998년 펴낸 <원조각성화상 회갑기념분> 제3집 <증용직지>에 실린 '인후감(印後感)'을 통해 스님의 이력을 살펴보면, 스님은 1938년 전남 장성의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8살 때부터 조부에게 한학을 배웠다. 1954년 <5천년 조선역사>란 책에서 율곡 이이 선생이 절에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내용을 읽고 백양사를 찾아갔으며, 당시 종정이던 만암 스님을 뵙고 출가 허락을 얻었다. 55년 18세의 나이로 해인사 백련암의 도원 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58년 해인사 전문강원을 졸업한 후 월정사 탄허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고, 60년 23세 때부터 은해사 강원의 강주를 시작으로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백양사 등 불교 전문강원의 강주를 역임했다.

현재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및 증의 위원,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설 삼일선원 원장, 부산 화엄사 주지, 화엄학회 회주, 사이버 강원 '붓다의 메아리(http://budopian.com)' 강주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통화총서> 시리즈를 비롯해 <대도직지>, <중용직지>, <천부경>, <화엄론>, <능가경>, <관세음보살이근원통> 등 20여 권이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강의를 녹음한 테이프 1천5백여 개를 정리해 원고로 다듬고 있으며, 조만간 <노자 도덕경>, <장자 남화경> 등을 다시 펴낼 예정이다.

'통화총서' 등 저서 20여권…대표적 강백

부산 화엄사에 전강원을 개설해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스님은 서울 보명선원에서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능엄경> 강의를 하고 있으며, 10월 7일부터 매주 화 · 수요일 부산 화엄회관에서 <원각경>과 <금강경오가해>를 강의할 예정이다

불가 도인술 전수 수행자 모집

가. 달마 침구술 정체술기 및 교체법 운기 도인술
불교전래 향공법 전수자 근기에 따라 다양한 술기전수
난치병 붙치질환에 특히 적용, 오래된 만성두통즉효
귀신병등 빙의로 고통받는자 즉시 회복 (천도방법전수)
※ 한가지 술기만으로도 명의가 될 수 있는 기회

나. 수행자격 : 신심있는 모든 청신사 청신녀
동 참 금 : 속성 1개월 과정 100만원

▶ 계좌번호 : 농 협 702061-52-052323
국민은행 629-21-0293-427
예금주 : 조 진

여래사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 함께 수행하며 노후를 의탁하실 불자님들의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연령 50~60세 전후로 신심있는 불자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아래 여 래 사
주지 심묵 법장 합장
(011-245-5467)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음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음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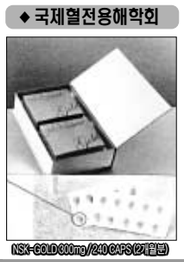
고혈압 · 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성인병)을 유발시킴.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성정맥폐쇄증, 손발절임, 눈이 침침함 등

◆ 혈전용해효소 (낫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 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계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국제혈전용해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효과가 과학적 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NSK-SD 100mg/2D CFS (2개월)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11-811-3938
(약식행심)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개원기념
수행 교육 안내

- 매주 목요일 : 수행 지도자를 위한 수행법 교육
- ▶수행내용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부처님 호흡법
  자동 단전 호흡법
  염불禪 , 행선, 와선, 참선, 위빠사나
  업장소멸 진참회
  도인체조 건강법
  부처님 감사 수행의 핵심 테크닉 교육
- ▶시 간 : 낮반 (1시~3시),
  저녁 직장인반 (저녁 7:30~9:30)
- ▶대 상 : 누구나 ▶회 비 : 월 3만원
- 매주 월, 화, 수 (저녁 : 7:30 ~ 9:30)
  108배, 와선, 도인체조 건강 법회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
  월, 화, 수, 목 (오전 10시 ~ 12시 : 7명 이상 예약)
- 카운슬링 상담
  수행을 통한 맑은 의식으로 문제 해결의 핵심을, 병고액난의 에고를 제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위치 :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앞 50M 이망스 가구 4층
☎ 상담전화 : (02)456-4994, 0035 (FAX)



◇지난 9월6일 불교TV 무상사에서 열린 '큰스님 초청법회'에는 각성 스님의 법문을 듣기위해 2000여명의 불자들이 모여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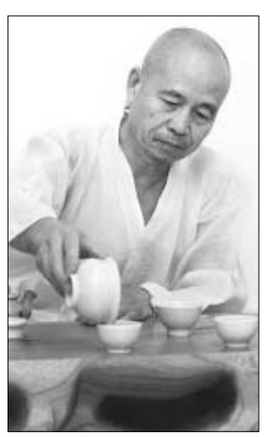
순수한 양심이 인간의 근본
계·정·혜로 그자리 찾아야

조리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을 몰라서 빚어진 일들이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거나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순수한 양심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개발해서 깨우친다면 자살을 한다거나, 자신을 잃고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풀과 잡초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뿌리를 찾는 것이 근본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입니다. 요즘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제사도 지내지 않거나 휴가지에 가서 남이 만든 음식으로 대충 지내는 일도 많은데, 이런 것도 자신의 뿌리, 즉 근본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뿌리도 찾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윤리나 도덕이 퇴색할수록 법률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근본이 아니라 말단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인관계나 단체생활, 기업, 정부 등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도 근본을 제대로 밝힐 줄 알아야 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자기의 의지와 마음을 바로 잡는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길 또한 근본을 제대로 찾는데 있습니다. '근본을 찾는다'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양심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며, 본래 깨끗한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근본이고 물질은 말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은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한 것이 조물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근본 마음자리가 우주를 창조했고 삼라만상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밝히고, 자신의 불성을 바로 봐야한다"고 강조하는 각성스님.

이 세계를 혼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본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와 조상을 잘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양심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장사를 할 때도 남을 속이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살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삼학은 불교 수행의 기본으로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계'라고 하니까 무척 어려운 것 같지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의 근본정신을 알고 양심대로 살면 됩니다. '불살생계'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는 자신의 양심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은 속이고 죽이고 살면서 방생을 한답시고 미꾸라지나 거북이를 살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뭇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근본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불이 아무리 밝아도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자리가 원래 밝고 청정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부처님처럼 보리반야의 밝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밝히고 자기의 본성, 순수한 양심자리를 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자리는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형태가 없으니 볼 수 없다. 자기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에 비춰봐야 하듯이 마음은 볼 수 없지만, 사무치면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수양을 통해 마음을 밝게 해 잡념이 사라진 상태일 때, 불생불멸의 본래 마음자리가 밝아질 때 마음이 사무치는 것입니다. 이를 견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은 밝은 거울에 비춰야 볼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보려면 사무쳐야 합니다. 본래의 마음을 찾는,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에 현혹되고, 물질만 가지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다보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원각경>에 보면 '내 마음이 청정하므로 우주법계가 다 청정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은 지식을 쌓고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봐야 하겠죠? 하지만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는 마음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차가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고칩니까? 달리는 차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든 주차를 시켜놓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떤 부속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고쳐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시킨 다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定)'의 가르침입니다.

'혜(慧)'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병을 알고 그에 맞는 약을 쓰는 지혜를 말합니다. 차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바로 '혜'입니다. '정'을 바로 닦음으로써 이 '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병을 제대로 고치고 인간의 근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계정혜 삼학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는 선정의 수행을 할 수 없고, 선정의 닦음없이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곧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항상 열심히 정진하셔서 자신의 근본인 마음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일중 스님

수행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그루 든든한 소나무 같은 수행자도 있고 풀섶에 향기를 감추고 사는 야생화 같은 스님도 있다. 강원에서 4년을 함께한 도반 일중 스님을 생각하면 큰 파도 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같은 느낌이 든다.

일중 스님은 지금 부처님의 나라 인도 델리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다. 아마도 어느 한 생애는 남방 어느 나라의 수행자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쪽에서 오래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 도반이다.

강원을 졸업하기 전 몇몇 도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참 고민도 많았다. 강원 교육과정에 관한 것부터 사원경제의 형태가 많이 달라질 것을 염려해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을 모색했던 일들이며, 앞으로 우리 불교가 지양해야 할 방향까지 종단의 모든 것을 짊어진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토론하곤 했다.

일중 스님은 남달리 원전을 번역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었다. 그래서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를 공부해서 원시경전을 번역하고 싶어했다. 그 원을 따라 강원을 졸업하고 일년 남짓 후에 스리랑카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약 9년을 스리랑카에 머물며 캘라니아 대학에 적을 두고 불교철학을 공부하며 틈틈이 그곳 수행처를 찾아 남방수행법에 따라 정진하는 것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한국 교민 불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해서 콜롬보에 한국 사찰 보현정사를 마련해 불자들의 수행과 기도생활을 이끌어 나가기도 했다.

그림 · 문병성

새로운 일에 대한 모험심이나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어느 것 하나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저 도반이라는 사실 밖에는 말이다.

스님을 생각하면 강원 시절에 의기투합해서 다른 대중들 몰래 작은 일을 꾸몄던 것이 생각난다. 운문사는 봄이 되면 대중들에게 제일 먼저 봄소식을 알리는 것이 공양시간이다. 채 땅이 해동하기도 전에 오후 입선을 마치고 전 대중이 논밭으로 냉이 캐는 울력을 나가곤 했다. 그날도 냉이 울력이 있는 날이었다. 도반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호미와 봉지를 하나씩 챙겨 들고 가까운 밭으로 냉이를 캐러갔다. 일중 스님과 냉이를 캐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일을 하나 도모하기로 했다. 스님은 글재주도 있고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를 가졌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다.

냉이를 캐다 문득 일중 스님이 "진명 스님! 내가 겨울 방학이 하도 길어서 테이프에 부처님 말씀을 녹음해 봤는데 한 번 들어볼래요?" 라고 말했다. 냉이 캐는 것은 뒷전이고 밭에 주저앉아 윗반 스님들 눈치를 살피며 작은 녹음기에 담긴 테이프를 듣는데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들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정식으로 스튜디오를 빌려서 테이프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맞추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마다 산책길에 그 테이프를 듣곤 했다. 물론 결론은 한가지였다. 아마 삭발목욕일이서 수업도 없고 입선을 쉬는 날이었을 것이다. 둘이서 따로 따로 외출 허락을 받아 대구로 향했다. 미리 암암리에 스튜디오를 물색해 놓은 다음이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그런 일에 문외한인 두

용돈털어 불경테이프 제작·보시
원전번역 서원…스리랑카서 유학

스님이 참 무모하게 일을 시작했다. 녹음실에서 몇 시간 심혈을 기울인 끝에 무사히 60분짜리 테이프에 녹음을 마치고 돌아왔다. 테이프 자켓을 아는 불자한테 의뢰하고 두 사람의 용돈을 털어 보시용 비매품으로 테이프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부처님 말씀 한구절 한구절을 진지하게 읽어나가는 일중 스님을 보며 앞으로 견고한 그 의지로 어느 것 한가지는 꼭 이룰 수 있는 도반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여름 델리의 살인적인 더위를 피해 히말라야 산 근처로 떠나며 보내왔던 엽서들이 도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진명 스님!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8시간을 산속으로 와서 꼬박 이틀을 걸어 히말라야 품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싱곰파, 코사인쿤트라는 산정호수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문명의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나무 장작으로 수제비를 해먹고, 지금은 너무 추워서 방안에 있지 못하고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반달은 은빛으로 빛나고 숲은 고요합니다.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충실하고 길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산이 좋습니다. 산을 사랑합니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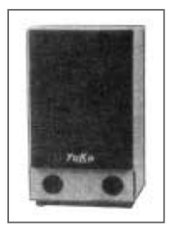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퇴미승 해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명리학 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팔자명리학비결" 소개

사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다만,올바른 교재와 선생을 만나기가 어려울뿐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면,여러분도 빠른 시일내에 사주학의 대가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는 사주학의 근본원리에부터 고급 추명비결에 이르기까지 사주학의 핵심이론들을 확실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애매한 사주의 용신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비결 수록
- 사주구조의 좋고나쁨을 판별할 수 있는 비결 수록
- 육친분석 및 대 · 세운 해석 통변술 수록
- 국내에 전혀 알려진바 없는 각종 중요 비결들 수록



♠ 저자 : 오산 정대균
♠ 책규격 : A-4용지 620쪽
♠ 가격 : 스님, 법사님들에게는 우대가격 적용
♠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함.
♠ 구입방법 : 하기 계좌로 송금하신후 전화로 주소를 알려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자세한 서적소개에 관해서는 하기 홈페이지 참조.
♠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 정대균

※ 수강생도 수시 모집 함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 3동 779-15호
전화 : 02-831-0055(대표)
FAX 02-831-0058 H · P 011-208-0051

태고 보우스님탄신 702돌 기념
고려 국사추대·어사행렬 재현

사나사 · 양평불교사암련 공동주최



◇2001년 사나사에서 태고보우 탄생 700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사 추대식 재현모습.

'태고보우 스님이 국사로 다시 추대된다.'

양평 사나사(주지 화암)는 10월 1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태고 보우스님 탄신 702돌을 기념해 고려시대 국사 추대의식 및 어사행렬 재현과 추모다례재, 산사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양평불교사암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301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 고려말에 왕사(王師)와 국사(國師)를 역임한 보우스님의 얼을 기리고자 2년전부터 마련한 것.

이날 행사는 보우 스님을 국사로 추대하기 위해 사나사를 찾은 '어사행렬의 재현'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나사 신도회와 양평군 청년회원 3백여명이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어사, 의장대, 문무관, 군병 등의 전통 복장을 갖추고 양평읍내와 사나사 일대를 행렬한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사나사에서 보우 스님의 국사 추대의식 재현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산사음악회. 단골 출연가수인 강산에와 해바라기를 비롯해 국악인 유주희와 염경애, 꼬마가수 김용빈, 현악 4중주단 로터스 등이 음성공양을 들려 준다. 한편 11일 오후 3시30분에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양평역까지 산사음악회 특별열차가 운행된다.(031)772-5182.

김주일 기자



◇스리랑카 프라사나 비타게 감독의 '8월의 태양' 중 한 장면.

부산영화제 10월2일 개막

역대 최대규모…60개국서 244편 출품

'제 8회 부산영화제'가 10월 2일 개막된다. 이번 영화제는 역대 최대규모로 아시아 영화 98편을 포함해 총 60개국에서 244편의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뉴커런츠, 한국영화 파노라마, 와이드앵글' 등 모두 9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번 영화제에서 주목할 것은 '아시아 영화의 창'. 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열리는 영화제답게 올해에는 젊고 유망한 신예감독들이 다수 출품했다. 불자들이라면 종교와 내전 문제를 다룬 프라사나 비타게 감독의 '8월의 태양'(스리랑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여성억압 문제를 조명한 사비하 수마르의 '침묵의 물'(파키스탄), 방황하는 젊음을 그린 펜엑 라타나루앙의 '우주에서의 마지막 삶'(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현실과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영화들을 챙겨볼만 하다. 또한 부탄에서 잠양 키엔체 왕포의 환생으로 추앙받고 있는 키엔체 노루부 스님의 신작 '여행자와 마법사'도 불교와 관련된 영화다.

개막작은 일본 쿠로사와 키요시 감독의 '도플갱어(Doppelganger)'가, 10일 폐막작으로는 한국 박기형 감독의 '아카시아'가 선정돼 있다. www.piff.org.

한상희 기자

불교문양 정말 色 다르네~.

드레스·넥타이·베게 등 130여점 선뵈



◇연꽃 문양과 '용'을 변형시켜 프린트한 넥타이.



◇단청문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한 드레스.

10월 2일 오후 6시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는 '2003경주 문화엑스포 기념 초청 패션쇼'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패션디자이너 최복호(55)씨가 안동 봉정사 귀일 스님의 기와 그림을 보고 현대 감각에 맞게 디자인 한 드레스와 치마를 비롯해 넥타이, 속옷, 베개, 머플러, 앞치마 등 생활소품 130여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불보살·연꽃문양 문화상품展
최복호씨, 2일 경주현대호텔서

이번 문화상품에 등장하는 디자인들은 한눈에 봐도 대부분 화려한 인상을 준다. 귀일 스님의 기와 그림에서 모티브를 따 왔기 때문이다. 소재 또한 '불·보살', '비천상', '동종', '사리탑', '연꽃' 등 다양하다. 그래서 작업과정이 녹록치 않았다.

최씨는 스님의 기와 그림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뒤집거나, 확대해 보기도 하고 때론 색분해도 하면서 현대적으로 디자인했다. 넥타이와 머플러, 남방, T-셔츠 등 옷에는 불·보살을 변형시킨 디자인을 집어넣었다. 또 팬티와 파자마에는 연꽃문양을 새겼다. 앞치마에는 십이지신상을 변형시켜 프린트했다. 특히 울, 실크, 니트, 폴리에스테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의상들은 전통의 감성을 현대적인 퓨전으로 표현해 우아하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씨와 귀일 스님과의 인연은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연히 주말 여행중 봉정사를 방문한 최씨가 전통문양이 가득한 스님의 기와 그림을 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가공하면 경주문화엑스포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다양화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최씨가 직접 '금수의'를 입고 우주의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하여 잠시도 한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주제로 한 포퍼먼스를 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화엄경 강의' 등 9개프로 신설

불교TV, 13일부터 가을개편 단행

불교TV는 '화엄경 강의', '디지털 동의보감', '청아스님의 영어법문' 등 10월 13일부터 9개의 프로그램을 신설, 가을개편을 단행한다.

경전강의 프로그램도 새롭게 단장해 <법화경> 강의를 진행하던 무비스님에 이어 수진스님이 <화엄경>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민족 전통 의학을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법을 알아보게 될 '디지털 동의보감'과 의학프로그램 '메디칼' 등 건강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도 방송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교교리와 상식을 영화속에서 찾아보는 '하재봉의 영화로 본 불교'와 불교 만화 '부처님이 보여요'와 '청아스님의 영어법문' 등 문화, 포교관련 프로그램도 새롭게 편성됐다.

편성제작국의 양흥식 프로듀서는 "이번 개편에는 건강 프로그램이나 영어법문 등 기존에 선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가을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 동의보감'.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
무상사, 10월1~5일

불교TV 무상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5일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별법회에는 조계종 기초 선원장 지환 스님(1일),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2일), 송광사 주지 현봉(3일), 원명사 회주 묘허(4일), 통도사 강주 혜남 스님(5일)이 각각 초청돼 불자들에게 설법한다. (02)3270-3492.

한상희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06:05 불교강좌
09:05 차 한잔의 선율
12:00 정오종합뉴스
14:45 고승열전
17:10 무명을 밝히고
23:05 세계음악여행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일 13:20 해월스님 특강
3일 09:20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 문화인
4일 09:20 설수진의 러빙유
5일 11:30 이화숙의 노래교실
6일 13:20 덕신스님의 사찰문화여행
7일 14:25 특별법문 전강스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세계음악여행(10월 5일 11:05~01:00)=음악칼럼니스트 강민석 씨의 진행으로 남유럽, 중앙아시아 등 조금은 생소한 지구촌 음악을 접해본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다양한 장르의 세계음악과 시공간을 초월해 그려보는 아름다운 사유, '내 마음의 지도'가 준비돼 있다.

■**불교텔레비전**:△설수진의 러빙유(10월 4일 09:20~10:30)='설수진의 러빙유'에서는 국악인 신영희 씨를 초대해 판소리 인생 50년을 맞은 그의 삶을 들여다본다. 11세 때부터 소리를 시작해 한 평생 판소리의 맥을 지켜오기까지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그의 감동스토리가 펼쳐진다.

스님!! 좋은 달력을 추천합니다.

매년 똑같은 달력에 식상 하셨습니까?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최고급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마하몰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전각 수인(手印)
310㎜ × 310㎜



전각 금강경
310㎜ × 310㎜



석불(石佛)
310㎜ × 310㎜



사진 연화(蓮花)
310㎜ ×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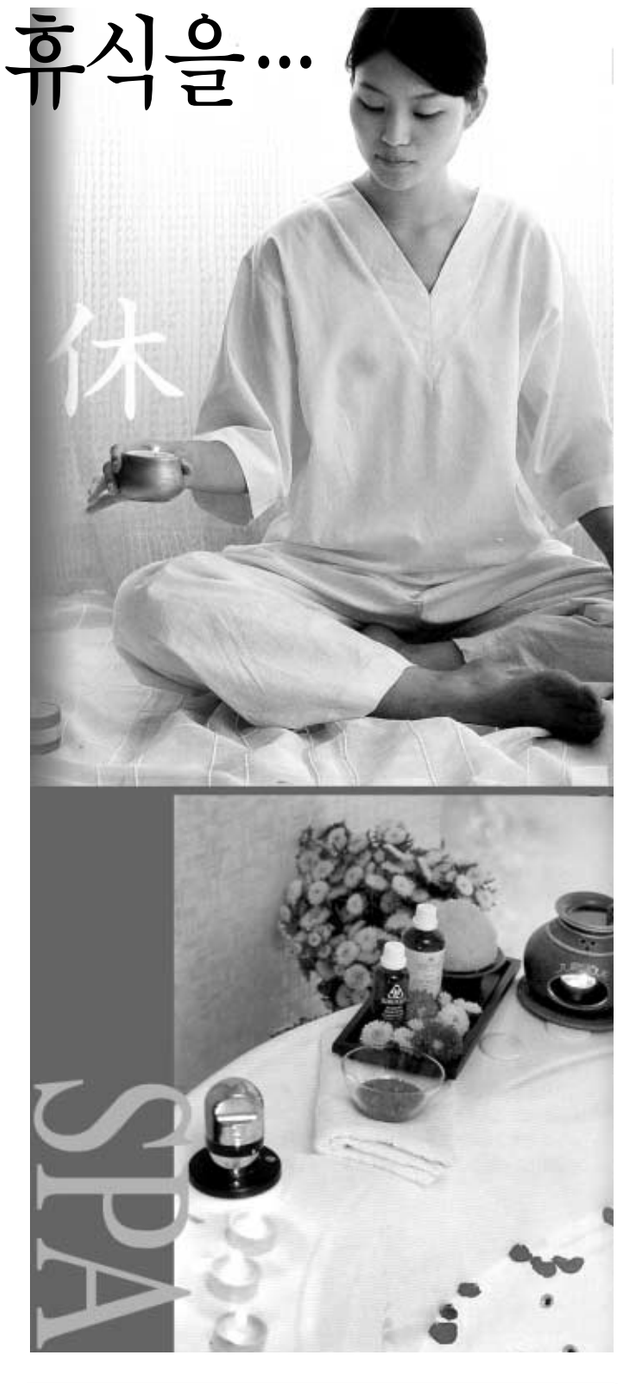


유화 연화(蓮花)
310㎜ × 310㎜

※100부이상 주문시 사찰명 무료인쇄

마하몰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B1 T : 02)732-1520 입금계좌: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

'스파'로 완전한 휴식을…



때는 바야흐로 웰빙(well being)시대다. 물질적 가치나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보다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시대. 그래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건강법인 '스파(spa)'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스파(spa)'는 본래 '온천'을 뜻하지만, 웰빙 개념이 확산되면서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욕, 향기요법, 마사지 등을 두루 일컫는 말이 됐다. 사우나, 녹차탕, 찜질방으로 발전해 온 휴식문화가 이제 스파로 옮겨가고 있다. 스파를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시티스파 즐기기

명상과 마사지로 신체기능 회복 도움

'스킨 & 스파'(02-549-6550)나 '다르 스파'(02-545-6591) 등 국내 스파숍(spa shop)들은 목욕과정을 포함한 '리조트 스파'보다는 마사지로 명상과 치유를 강조하는 '시티스파'를 다루는 곳이 많다. 시티스파에서는 은은한 조명, 아로마향, 명상음악과 함께 부드러운 마사지를 제공하면서 오감을 다스린다. 내적으로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신체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마사지를 포함하는 스파는 어떻게 이뤄질까? 응용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무한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인기있는 '타이'와 '아유르베딕'을 소개한다.

몸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타이(thai)는 요가(yoga)와 시아추(shiatsu, 압점마사지)가 결합된 마사지다. 매트에 누우면 테라피스트(치료사)가 손바닥, 엄지손가락, 팔꿈치, 발을 이용해 에너지가 흐르는 지압점에 압력을 가하고 요가동작을 취하게끔 한다. 에너지 균형 회복과 근육 긴장 이완, 유연성 증대에 효과가 있다. 최근 눈길를 끌고 있는 아유르베딕(ayurvedic)은 몸 자체의 치유능력을 회복시켜주는 마사지다. 인도의 의사들이 폐와 장 청소를 하기 전 몸의 통로를 열기 위해 고안한 마사지로, 두 명의 테라피스트가 미리 짜여진 안무 동작과 함께 실시한다. 요가의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미세한 부분까지 풀어주고 뼈의 배열도 섬세하게 교정해 준다.

이밖에도 향기로 감각을 일깨우는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해독작용이 탁월한 스웨디시(swedish), 돌을 달궈 세포의 균형감각을 일깨우는 핫스톤(hot stone) 등이 있다.

▧ 홈스파 활용하기

아로마 오일 이용 목욕과 함께 즐겨

전문숍에서 스파 서비스를 받자면 최소 7만원은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목욕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홈스파가 인기다. 특히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스파는 좋은 향기를 코로 흡입하는 동시에 오일의 약리 성분을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 호응이 좋다. 단, 오일의 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신욕인 경우는 6방울 전후, 반신욕은 4방울 전후가 알맞다. 아로마 성분이 몸에 스며들도록 20분 이상 몸을 담그고, 향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을 잘 닫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천연재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거즈나 면으로 만든 주머니에 재료를 넣어 30분정도 우려낸 물에 몸을 담근다. 온천 효과를 내는 소금 목욕은 피부미용 뿐만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 소금이나 죽염을 3~4큰 술 녹인 따뜻한 물에 들어가 20분정도 스펀지로 마사지하면 된다.

'아베다 다르 컨셉 스파(AVEDA Dar Concept Spa)' 임숙경 실장은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입욕 전 냉수나 그린티를 마시는 것이 좋고, 목욕 후에는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스파스크럽으로 충분히 맛사지하고 헹궈내면 피부에 생기가 돈다"고 설명한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mahamall.co.kr



백련선향

백련의 최대서식지 무안군 '회산 방죽'에 자생하는 백련잎으로 만들었다.

백련잎의 부드러운 연향을 그대로 살려 개발한 향으로, 향을 피우면 하얗게 핀 백련이 코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다. 선향과 향꽂이가 세트이며 값은 20,000원. (18cm×120개입) (02) 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49재에 대한 제언

4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한 눈빛 때문인지 전체적인 느낌이 퍽 이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와 마주 앉은 부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찾은 것은 제 얘기를 꼭 신문에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글'이라는 장치를 이용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부인의 말을 듣고 난 저는 부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그러자 부인은 제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평소 다니시던 절에 어머니 영가를 모시고 49재를 지내 드렸어요.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은 서울에서도 이름난 큰 절이고 저희 남매들도 사는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례비용과 거의 맞먹는 거금을 절에 드리고 49재를 부탁 했어요. 어머니님들이 바뀌기도 했지만 바뀐 스님들 역시 유족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를 마치고 절문 밖을 나오는 유족들은 늘 안타까움과 허탈감 속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6재 까지를 마친 유족들은 마지막 7재에 기대를 걸면서 절에 갔다고 했습니다. 7재는 영가가 새로운 생을 선택하는 시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족들 역시 다른 재때보다는 더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서요.

7재는 49재의 마지막 재이기 때문에 음식도 다른 때보다는 많이 차려졌고 스님들도 네 분이나 참여하셔서 겉보기에는 여법하게 의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7재에 참여한 스님 역시 전날의 스님과 다를 바 없이 의무적으로 의식을 집전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좀 더 성의 있게 의식을 집전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의식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의식은 진행되어서 영가를 위한 마지막 법문을 하는 차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가를 위한 마지막 법문이기 때문에 영가의 영 정이 스님 앞으로 옮겨졌고, 영정이 스님과 마주 하는 자리에 안치되자 유족들은 더욱 엄숙한 마음을 가지

성의없는 49재에 가족들 분노

고 자세를 가다듬었다고 했습니다. 영가가 스님이 하시는 마지막 법문을 듣고 지혜가 더욱 맑아져서 부처님 정법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선택하기를 빌면서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유족들의 3배를 받으면서 법상에 오른 스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영가의 사진이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영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영가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일깨움을 주는 법문이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님은 유족들의 그런 초조한 마음도 모른 채 잡담비슷한 말들만 공허하게 늘어놓으시다가 법상에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법문이 끝나자 유족들은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는 자신들의 감정을 지켜보면서 어머니영가도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울고 싶어지더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스님 법문을 듣고 살아 있는 사람도 실망과 분노를 느꼈는데 영가가 무슨 제도를 받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제게 말한 내용은 지면관계로 다음 호에 싣겠습니다.) 化緣 (02)704-3577

나폴리 승복 신장이전

승복, 버리시기 아까운 제품을 정성모아
몸에 맞게 고쳐드리겠습니다.

판매제품안내

1. 장삼, 가사
2. 두루막, 동방
3. 적삼
4. 모시론(풀안해도 됨)
5. 무명(수재)
6. 면 래푸사(풀안해도 됨)
7. 광목
8. 누더기(한국산 손염색)순면
9. 하이쿨
(몸에 붙지 않고, 가볍고, 물세탁)
10. 기타제품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 누비 전문점



확실한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만족할만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나폴리승복

대표 정용호 합장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1동 673-3(대구은행 반월당 지하철역 앞)
전화 053)253-8482 / 011-9599-7963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흥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 지방문화재 제371호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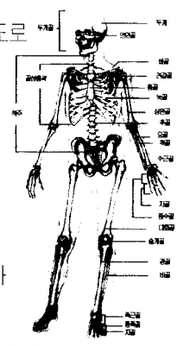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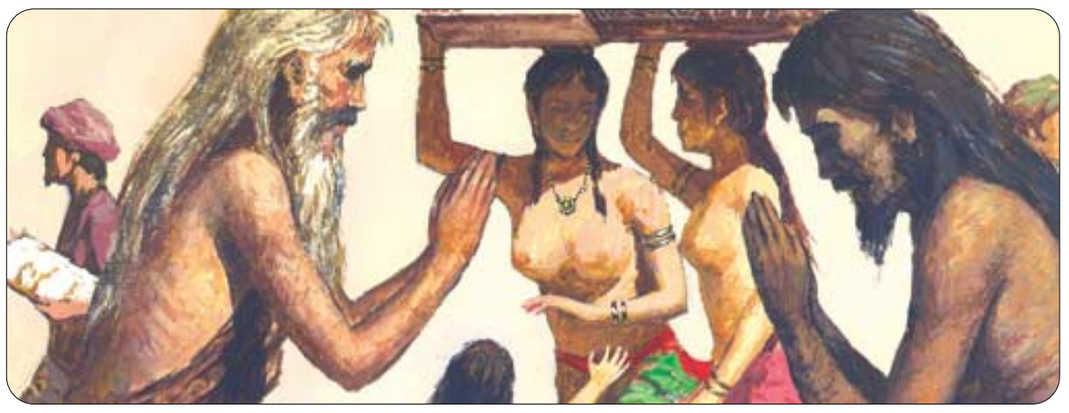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0화 수행승 '사리풋타'





"저는 산자야 베랏타 풋타의 밑에서 수행중인 사리풋타라 하는 사문이옵니다. 오늘 우연히 스님께서 탁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지 모르는 감정에 저절로 이끌려 스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실례가 아닐는지."

"아니올시다. 만나 뵙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쉬바짓(Asvajit)이라는 비구(bhikku)입니다. 나는 일찌기 출가하여 고행 수도를 하던 중, 위대한 사문이신 샤카족의 큰 무늬를 만나게 되어 그 세존 밑으로 출가했습니다. 그 샤카무늬는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의 명령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그분이 계신 죽림정사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스님께서는 그 위대한 샤카무늬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십니까? 나는 지금 논쟁을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운 스승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원하옵건대 그 스승님의 말씀을 조금만 전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나는 본시 어리석어 아직까지 그분의 가르침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게송을 하나 기억하고 있는 즉 들려 드리겠습니다.

사물은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諸法從緣生)
여래는 그 원인을 말씀하셨네(如來說是因)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도(是法從緣滅)
위대한 사문은 이같이 가르쳤네(是大沙門說)."

사리풋타는 아쉬바짓의 게송을 다시 한번 노래하며 그 뜻을 음미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게송에 담긴 뜻을 알아내었다.

"큰스님이시여, 그 위대한 사문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 말씀 하시기엔 죽림정사로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곳에 계십니까? 저 역시 스님처럼 그분의 가르침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쉬바짓님. 먼저 죽림정사로 가 계십시오. 저는 꼭 함께 가야 할 친구가 아직도 산자야 밑에서 수행 중이므로 그곳으로 가서 그 친구 목갈라야나를 데리고 죽림정사로 가겠습니다. "



산자야 베랏타 풋타는 사리풋타와 목갈라야나 두 제자의 간절한 요청을 끝끝내 거절했고 결국 그의 250명의 제자들이 모두 새로운 스승을 찾아 죽림정사로 떠나는 모습을 그저 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얼마동안이나 울면서 떠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산자야는 급기야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며 분해하더니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다 한다.

이때 샤카무늬 붓다는 제자들을 모아 놓고 멀리서 오고 있는 사리풋타와 목갈라야나 그리고 250명의 새로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미리 말하기를

"비구들이여, 지금 두 사람의 대제자(大弟子)가 오고 있다. 그들은 본시 클리타와 우파팃샤라고 불리웠던 자들로 장차 우리 교단을 이끌고 갈 큰 기둥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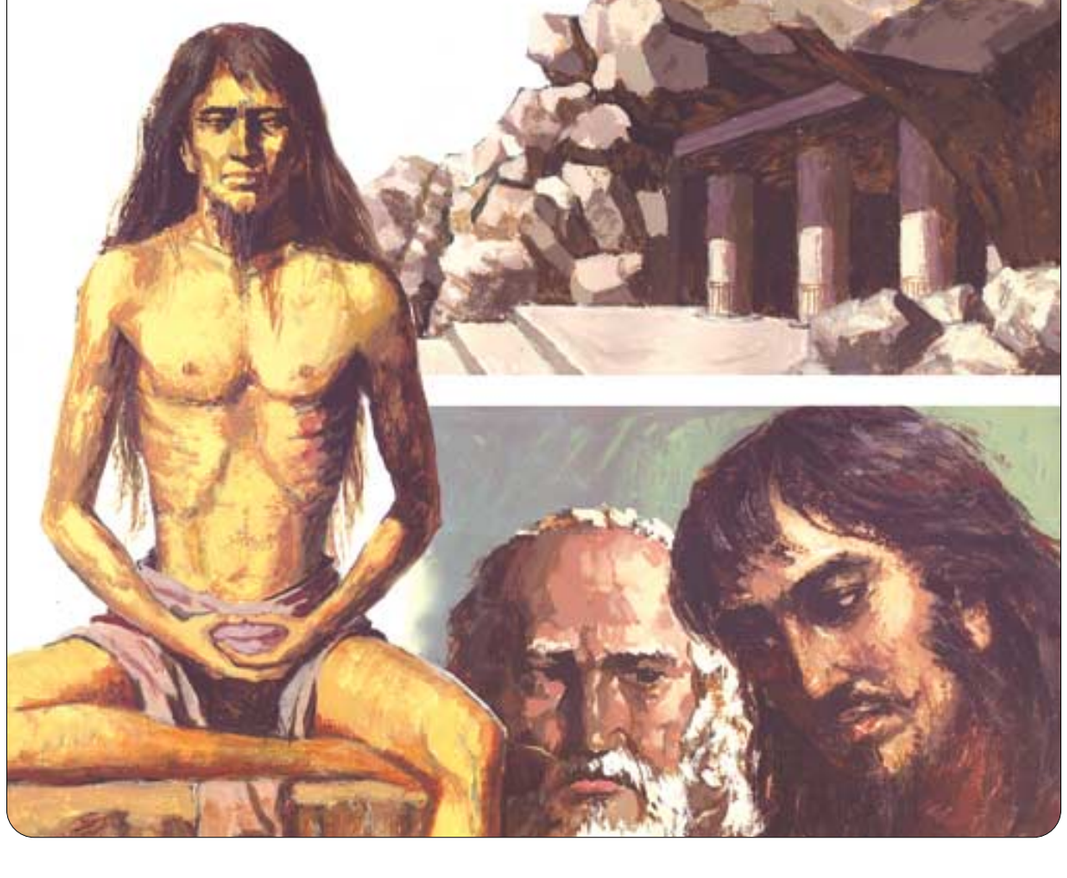
이들 250명이 죽림정사로 합류함에 따라 이미 귀의하여 있던 1천명을 합하여 1,250명으로 늘어나면서 불교 교단사(敎團史)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승가(僧伽)의 기본적 숫자가 완결되었다.

죽림정사(Venuvana)를 중심으로 1,250명의 승가(僧伽) 인원이 확보된 것을 '초기 불교 교단의 완성'이라 하는데 이 숫자는 인도의 관습상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모이고 있었다.

죽림정사의 교세가 급격하게 확장일로를 걷고는 있었지만 이미 교단의 인원이 1천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잔잔한 잡음도 그치지 않았다. 그 중 붓다가 제일 늦게 입단한 사리풋타와 목갈라야나에게 보인 특별한 관심에 선임 입단자들의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에 부처님은 전생의 인연으로 설명하는 바 '먼 과거세에 아노마다르신 부처님 밑에서 발심하여 지금까지 수행해온 사람들'이라고 말하여 교단의 잡음을 잠재우게 하였다.

사라풋타와 동시에 입문한 250명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는데 그중 목갈라야나는 다른 동료들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아라한이 되었고 후일 교단의 지도적 위치로 클 중요한 인물인 사리풋타는 이들보다 반달이나 더 늦게 아라한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사리풋타로부터 오늘 아쉬바짓을 만나서 들은 게송을 전해들은 목갈라야나는 즉시 그 뜻을 알아듣고 죽림정사로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떠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겐 250명의 동료 수행자들이 있었으며 또 산자야 스승이 있었다. 두 사람은 우선 동료들의 수행 장소를 찾아가 새로운 스승을 찾아 떠나겠다고 작별인사를 하자 깜짝 놀란 동료들은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고 다 함께 떠나겠다고 나서게 되었다.

사리풋타와 목갈라야나는 산자야 스승을 찾아가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차마 스승만 혼자 두고 뒤돌아서기가 너무나 미안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스승을 설득하여 같이 떠날 것을 권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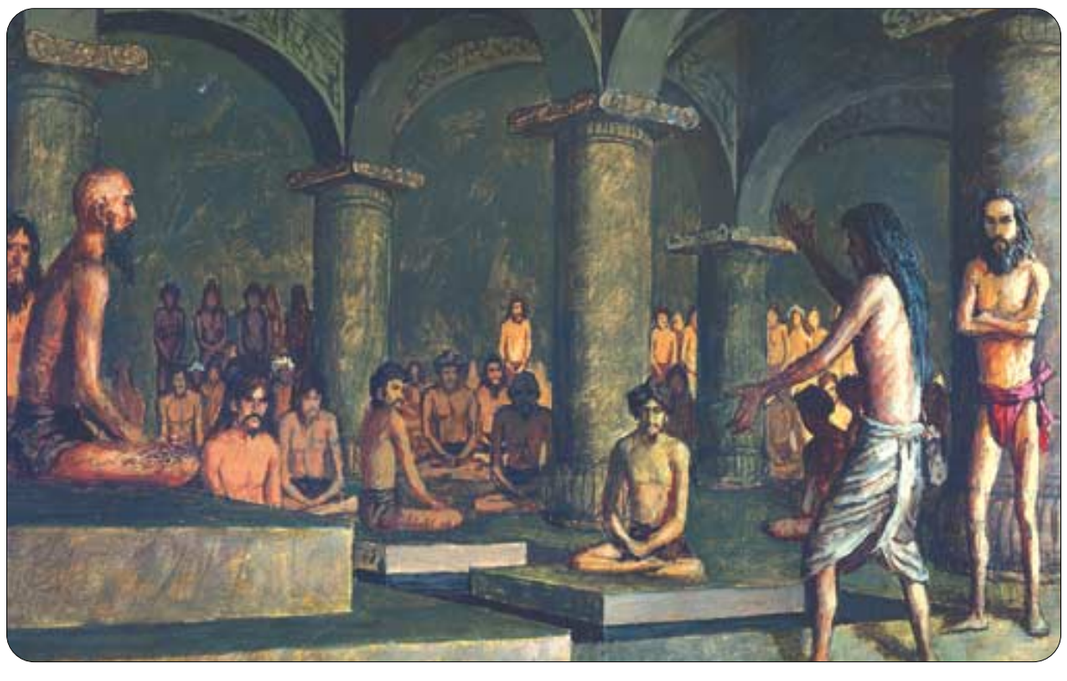
"스승이시여, 이와 같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사옵니까? 말씀드리다시피 모든 라즈기르성의 사람들이 그분께 귀의하였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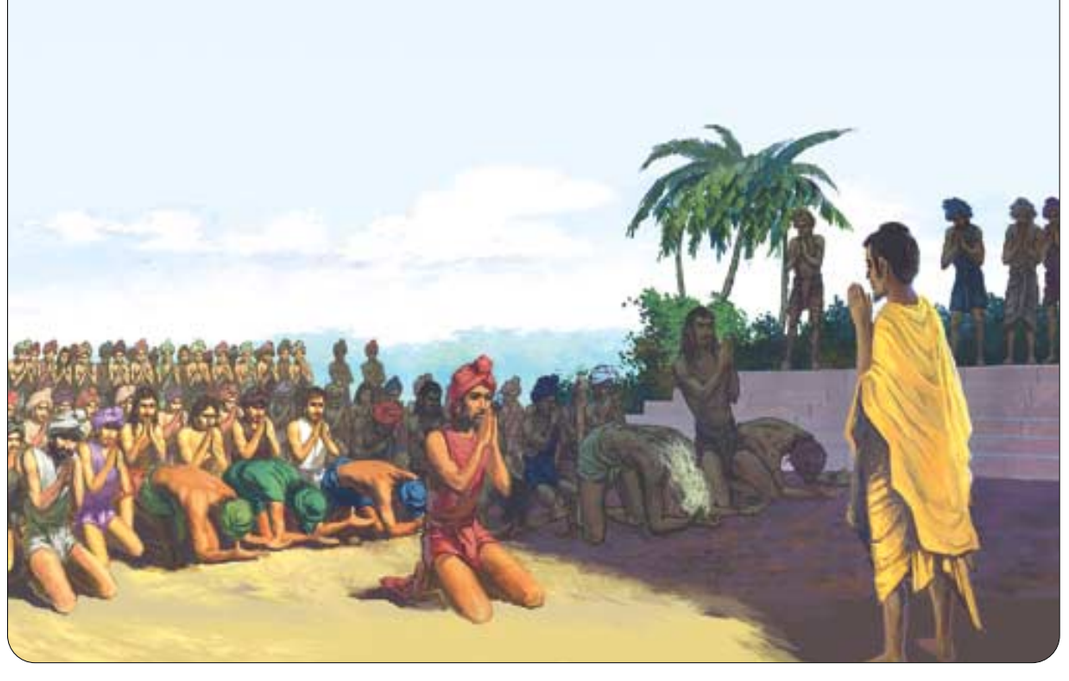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내 이미 세상의 명성과 신망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이름도 모르는 젊은 사문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배움을 청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그와 같은 꼴을 보인다면 세간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얼마나 웃을 것인가. 애당초 말도 되지 않을 소리이니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들의 최종목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옵니까? 듣자하니 마가다 제일의 교단을 자랑하던 우루빌바 카사파 삼형제들도 모두 그들의 신전을 파괴하고 그 위대한 사문을 따라 귀의하였고 또 그들의 일천 제자와 심지어는 마가다의 국왕마저도 그분께 귀의하셨다 하니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시면 천추의 한이 될것 이옵니다. 청하옵건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어 저희들과 함께 그분께 귀의함이 옳을 것이옵니다.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저희들만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스승님께서 지도해 주신 은혜는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몸 건강하시고 부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 젊은 사문이 잘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마치 들여다 본 듯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속임수 일 것이니 바로 내가 말하던 불가지론(不可知論)이 그것인데 어찌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가려고만 하는가. 참으로 한심하도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그림 · 최주현

여러분께서 한마음 내주셔서 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산호세 법회를 시작으로 해서 LA에서는 개원식을 하고 각 분야의 많은 분들과 토론법회를 하였는데 너무들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욕 플러싱과 롱아일랜 등에서도 법회가 있었는데, 특히 롱아일랜드에서는 마약중독자들이나 마음의 방황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잘 이끌어 주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엘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종교를 가진 많은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런 얘길 해주었습니다. "불교는 둘이 아니다.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는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이니 불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했더니 모두들 시인하더군요.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있는 불 역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더라는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다시 뉴욕으로 와서 행사를 마치고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많은 분들과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 가면 지원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림 · 최주현

이 몸 가지고 있을 때 이 도리 모르면 안돼

새해가 오자마자 이라크 페르시아 만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견했던 바이지만 그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바와 같이, 여러분이 각자 자기 완성을 해야만이 외부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빠르게 오고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는 것도 지금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먼 거리를 바로 눈 앞에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이란 것은 체가 없어서 천제를 탐험할 수 있으니 바로 그런 마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새해에는 더욱 분발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세균성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병고액난 등 여러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완성해야 내 골수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니 한생각 깨달으면 이 세상을 다 깨달을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통달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날 수 없다면 죽어서도 현재 의식의 그릇대로 남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변해지고 부서져서 천차만별로 변질이 됩니다.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무상이겠지요.

한마디 언급할 것은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인간 마음의 근본에 가설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색은 공하고, 공한 것은 색이니라." 하신 뜻을 아십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바로 공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동방에는 아촉이라 이름지어 놓고, 서방에는 아미타라 이름지어 놓고, 사바세계는 관세음이라 이름지어 놓고, 지천국에는 지장이라 이름지어 놓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천백억화신의 이름이 모두 부처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이름에다 차려 놓고 빌고 저 이름에다 차려 놓고 빌고 하면서 자꾸 마음으로 끄달리고 있으니 언제 자기 마음을 발현하고 깨닫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자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항상 헤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모두.

그러나 그뿐입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이라크 문제도 욕심이 과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처님 나신 고장에서도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처님께서 한두 번은 돌봐주셨지만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착이 있으면 욕심이 붙고, 욕심이 붙으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여러분이 모범이 되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도리를 모른다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빗나가기 쉽상입니다. 외국에 가보니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고 아버지는 저녁에 나가는 집들이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 애들 얼굴을 이틀에도 한 번 보고 사흘에도 한 번 보고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애들이 방황하게 되고 사랑에 굶주려서 고독한 마음으로 따뜻한 둥지를 찾아다니다가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잘 듣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는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메모지에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게 살고 너희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는 일하러 나간다. 여기에 반찬을 만들어 넣었으니 꺼내어 먹어라. 엄마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써서 냉장고에 붙여 놓고 뽀뽀라도 해서 붙여 놓고 나가면, 애들도 엄마의 그 마음을 전해 받기 때문에 서로 한마음이 되어 돌아가니 애들이 빗나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몸으로 붙잡아 주고 말로 해 주고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란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이어가는 마음이기에 가족들을 서로서로 화목하게 하고 또 누구 한 사람 탈선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야단을 쳐서 될 일도 아닙니다. 전력은 이 전구나 저 전구나 똑같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라는 걸 서로 알기 때문에 벌써 하나로 가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력은 똑같습니다.

한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고 거기서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병고액난을 소멸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구멍 없는 구멍에 맡겨 놓는 작업을 한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공부를 하지 않던 아이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착실한 아이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정신력이 투철해지고 모든 물리가 터지게 되니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행복은 찾아드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몸 속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을 이끌어 가는 한마음 지배인에게 모든 걸 맡겨 놓는 작업을 한다면, 어떤 공장에서 파워가 일어나더라도 한마음으로 돌려서 안정되게 하고 바로 가동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고 액난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부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였는데 부처님께서는 천백억화신으로 나투시면서 삼십이응신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보살님들도 그렇구요. 그런데 삼십이응신으로 받아들이고 천백억화신으로 나투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부모라는 이름, 자식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형님이라는 이름, 사위라는 이름, 손주라는 이름 등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 많은 부처님 이름이 각각 다른 줄 알고 주욱 차려 놓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빌 때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바보들, 이름에다 놓고 비는구나.' 하실 겁니다.

이름에 놓고 비는 것도 비는 거지만 부처님께서 어떤 이름일 때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금방 남편이 되었다가 부모를 만나면 자연적으로 순간 자식이 되고, 자식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 순간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냥 아버지로서 하게 됩니다. 아들이었을 때는 아들로서 행동하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화해서 돌아가는 것을 나툰다고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란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나투시기 때문에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신 거지요. 안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는 언어가 붙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지금도 설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것도 그 뜻이고요. 그리고 부처도 중생도 없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순간순간 아버지로 나누어지고 아들로 나누어지고 남편으로 나누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으로 지어 놓은 불보살 명호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안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있으니까요.

달마대사는 원래 모습이 잘생겼었는데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 구렁이를 끌어다 놓고 와서 보니 자기 몸이 없어지고 그대신 험악하게 생긴 도둑의 몸이 있는지라 못생긴 몸을 가지게 되었다는데, 잃어버렸다는 자기 집도 도둑의 집도 알고 보면 모두 달마대사죠.

그러면 이러한 나툼의 뜻을 좀 더 실감나게 음미해 보십시다. 지난번에 신도들이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를 봤는데 스님도 가시자고 하도 그래서 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았다고들 하니, 그 영화에 비추어 인간의 마음을 몇 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려 보죠.

첫째, 우리는 관습, 즉 관념의 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의식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우주의 근본도 그렇지만 법계의 소용돌이는 막힘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막힘이 없이 불바퀴가 돌아가고 물바퀴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뜨거워서 타 죽겠다, 물에 빠져 죽겠다, 산이 높아 넘어갈 수 없겠구나…. 바로 이런 관념의 습 때문에 넘어 가지 못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그 구멍을 통과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마음의 근본에 가설되어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증명되어 있는지. 그것보다도 자동적으로 한생각에 모든 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창살없는 창살 속에서 괜히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면서 중심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맷돌 비유를 가끔 듭니다만, 맷돌에 심봉이 꿰여 있지 않으면 어긋나서 물건을 넣어도 갈아져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만 끄달리면서 중심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항상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뒤범벅이 되게 얘길 합니다만, 불바퀴 속에 들고나는 데도 관념의 습 때문에 타 죽을까봐 거길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영혼이 어디를 간다 해도 타 죽을까봐 빠져 죽을까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생각이면 갈 것을, 세상에 살아 있을 때의 의식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와 같이 살아 있을 때의 의식으로 사람을 때리니 때려집니까, 불잡으니 불잡아집니까. 문도 남이 열어야만 들어갈 줄 알지 그냥 들어갈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나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누굴 건져 주려 해도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공부를 하는데,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한생각이 빛보다 더 빠릅니다. 한생각이 전파를 통해서 우주를 탐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납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가 없는 마음인 줄 알면 문도 그냥 통과 통과예요. 벽도 통과 통과입니다. 강도 한생각이면 건널 수 있으며, 내 한생각이 무심인데 어찌 강이 있겠습니까. 또 강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극락도 지옥도 문지방 너머라고 안그럽니까. 가깝고 멀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화에서 나중에는 한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다른 영혼에게서 알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해보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말입니다. 나툼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 한 몸으로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녔습니까. 한생각으로 자기를 열 개를 만들어서 한다면 좋을 것을 말입니다, 나툼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나로 만들고 저것도 나로 만들었으면 될 것을 말입니다. 그게 나툼이거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게 나투었더라면, 자기 아내 건지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또 나툴 줄은 안다 하더라도 바로 나로 화할 줄은 몰라요. 간장은 종지에 담아야 하는데 사발에 담는 사람은 없죠. 그렇듯이 용도에 따라서 내가 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도에 맞게 그릇이 될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열반계의 길인데 말입니다. 용도에 따라 삼십이응신으로 나투어서 응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볼 때 몸 속에 들어 있는 입자가 한생각으로 돌아간다면 세균성 · 영계성 · 유전성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보현보살이며 화신입니다. 생각하는 건 문수보살이자 법신이며, 변하지 않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 근본 심봉인 불성은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기저기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싸움이 생기고 인간 살아나가는 데 쫓기고 쫓기면서 난리 아닌 싸움을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몸으로 찔러 죽여야만 싸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 물질과 물질이 붙는 데도 있지만 알력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가지 않습니까? 먹고 먹히면서 말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탈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선 바로 이 마음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부터 완성해야만이 모든 이치를 알고 일체제불의 골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항상 되풀이하는 얘기이지만, 한생각 원자에서 수많은 입자가 나가고 그 입자는 다시 분자로 화하여 우리 대기권의 모든 것을 커버해 주며 들이고 내고 하는데, 그 자체를 바로 레이다 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신통이라는 걸 우린 지금 현대문명의 발달로 기계화시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보세요. 전파를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네 컴퓨터가 바로

☞30면으로 계속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작업을 하라

각자 자기 완성을 해야만 외부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29면에서 계속

숙명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을 한데 합쳐서 불바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벗어나야 불바퀴를 다루고 굴릴 수 있겠죠. 지금 문명의 발달로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뭐든 입력을 해야 하고, 거리에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쥐구멍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땅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물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으며, 허공이든 어디이든 차이가 없고 거리가 없으니 무한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이라크 대통령이 "알라신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하고 하면서 "상대 쪽의 악인들은 다 죽는다"라고 합디다. 쿠웨이트에서 기름으로 인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얼마만큼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다고 다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그렇게 많은데 부처님인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패망인 것이죠.

마음 한생각에 사는 걸 이렇게 고달프게 만들어 놓으니 나라를 이끌어 가는 대변자가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어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니 칠 년이나 싸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건 그러는 동안에 국민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못 만나면 자녀들이 고생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말라구요. 자녀들은 부모 탓하지 말고, 부모들은 자녀들 탓하지 말며, 이웃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부터 돌아다보라구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자기 탓이지 왜 남의 탓을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바닷물이라면 나도 바닷물일 것이고, 여러분이 종지라면 나도 종지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해서 한 생각을 해도 '에이, 그게 될까?' 하고 반신반의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실험을 못하고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여하며 실상인데 말입니다. 습으로 인해서 착이 붙고 욕심이 붙어서 모든 일을 그르치고 참나를 밝게 못 보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되풀이 얘길 합니다만, 여러분이 지수화풍이라고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고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수화풍은 지수화풍을 먹고 살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신통의 불바퀴를 체가 없는 내 마음이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부처님 가르치신 뜻은 무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먹을 수 있다면 음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음파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갸륵하십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다가 된다면 거기에는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이란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폭포수가 흘러 내려가면 모여서 바다가 되는데,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 똥물이나 핏물 등이 한데 합쳐지니 그냥 젖는 것뿐이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붙으면 그것은 벌써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선지식들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사구를 따지는 사람들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허둥지둥하는 사람이고, 활구를, 그것도 이름해서 아는 사람들은 코끼리를 타고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라구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기 이전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한다면 그럼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 반짝하는 그 찰나밖엔 없습니다. 벌써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영원한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해서 나툰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 생각 저 생각이 금방 돌아가는 것을 망상이라고 해서 끊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끊습니까. 끊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숙명통 컴퓨터에 과거로부터 지은 대로 입력이 되어 현실에 하나하나 나오는 걸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서 말겨 놓는 작업을 한다면 서서히 녹을 겁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나오든 간에 끄달리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목석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목석이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 망상이라는 생각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좌선 입선 와선 행선, 간화선 묵조선이 모두 둘이 아니라 그대로 이름해서 참선입니다. 여러분이 변소에 갔으면 그곳에 부처가 계실 것이고 법당에 왔다면 부처님은 법당에 계실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고 예절을 갖추되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길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자라야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행복과 화목을 가져오며, 얼토당토않은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도 부모들의 그런 언행을 듣고 보아서 조금도 탈선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고독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에요. 학교에 맡겨 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 부모들의 잘못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들이 더 발전을 해서 올바르고 진실하게 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 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어느 종교라는 것을 떠나서 전체이지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며, 우리가 말을 하고 생활을 하는 자체가 교(敎)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생활만 소중히 할 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망가지고 부서져서 소멸되어 간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불바퀴 속을 뛰어넘지 못해서 이승 저승 간의 왕래를 못하니, 살아생전에 열반의 맛을 알아야지 살아서 모른다면 죽어서도 살아서의 차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몸 가지고 있을 때 이 도리를 모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욱 열심히들 정진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실험도 체험도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도 자비도 한마음에서 나오고, 의학 과학 천문학 지리학 등 일체가 한 보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LA 개원식에서 어느 박사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연구하는데 있어서 마음 도리를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었다고요. 그분뿐만 아니고 알래스카에 계신 어느 분도 이 공부를 하다 보니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두좀미하게 지켜나가고 배우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 어떤 이들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을 우습게 알고 원망하며 깔보는데 그 아상 아만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풀 한 포기도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뱃속의 촌충 한 마리로도 증명이 되는 일입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장육부의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있는 것을 보세요. 그것이 운행을 해줘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살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전파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으며 땅바닥에 발을 디딜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두절되고 말죠.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비극적인 역사는 말끔히 씻어버리고 새 맛이 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내 개인적 원한이 있다고 해서 찍어 눌러서는 열쇠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포괄적, 세계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높은 것은 조금 낮추게 하고, 너무 낮은 것은 조금 올라가게 하는 그런 마음, 한마음의 도리로서 지혜롭게 폭넓은 마음을 낼 수 있는 뜻을 갖는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남북통일도 되고요. 마음을 다루게 되면 몸도 다룰 수가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건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싸우는 것도 TV를 통해서 보고 들으며, 인공위성을 띄워서 두루하고 전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도 그걸 파악을 못하십니까?

돈오점수가 옳으냐, 돈오돈수가 옳으냐 하고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휘말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요, 이것도 옳고 그것도 옳으니까요. 젖는 것은 핏물에도 젖고 똥물에도 젖고 맑은 물에도 젖습니다. 그냥 물에 젖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들을 다스려 나가면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지 않고 자녀들도 그런 마음으로 키운다면, 아무리 비뚤어진 아이라 해도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안들었을까?" 하고 후회를 하면서 착한 2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고 합니다. 깨져서 물이 졸졸졸졸 새니가 얼음 빙판을 만들어 남들을 미끄러지게 해서 부상을 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 사람마다 마음으로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셨구나. 우리들이 관해 보고 우리들이 관해 듣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이름 아니냐. 우리들을 떠나서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으며 지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법당에 오면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며,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와 나무가 마음을 이어서 열매를 맺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해서 말입니다. 저 건너편의 나무와 이쪽의 나무가 사랑을 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시죠. 이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가는 전파인데,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전력은 들이 아니니까 전깃불이 켜지는 건 전력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말기는 겁니다. 서로가 부모 자식임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가설이며, '내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둘이 아니기에 둘이 아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고 말길 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등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지니 자신을 다스리게 되며, 나쁘게만 보던 것도 '아하! 이런 거로구나.' 하고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라면 모두가 천국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병이 들면 모든 것이 악으로만 보이고 나쁘게만 보이니 그게 바로 지옥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난 이렇게 합니다. 나쁘면 어떻고 나쁘지 않으면 어떠랴. 내 걸음 걷는 것 다스려 가면서 올바르게 진실하게만 꾸준히 걸어갈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연됐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착해지고 잘못된 것을 다 떼어버리게 됩니다. 다만 더디고 빠를 뿐이지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 순서도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생각 하다가 저 생각 하다가 그러시죠?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체계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들 살림살이를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아이가 들어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하면서 말과 행이 순간 아버지로 변하고, 친구를 만나면 순간 친구로서 말과 행을 하게 되고, 아내를 만나면 '여보' 뭐 어쩌고 하면서 금방 남편으로 변하고, 또 그러다가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르면 금방 자식으로 변하면서 말과 행이 자식이 되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속에 체계는 역력한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둘이 아니지만 말을 다 하고 떨어지면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거든요. 그러기에 진리는 끝없이 이어가는 길이니라 한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는데도 찾아오니, 저 사람 못난 것도 내 못난 거려니 하고 찾아오는 것 같애요. 그저 못난 사람들끼리 못났든 잘났든,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니 한마음으로 뭉쳐서 열심히 해 봅시다. 한마음으로 틀어놓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선사께서 종으로 사는 사람의 시주를 받고 그 마음이 갸륵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안락사를 시켰대요. 그래서 몸을 바꾸어 정승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관직에 있으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건져 주게 했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몸으로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이 몸 가지고 있을 때 마음 도리를 배워야지, 모르고 죽어서는 영화의 내용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살아 있을 때 나투고 응해 주고 굴레에서 벗어나서 불바퀴를 굴릴 수 있어야 이름해서 열반이고 자유인인 것이지, 살아서 못 벗어나는데 죽어서 무엇을 벗어납니까. 그러니 나를 떠나서 맹종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내 몸과 같이만 생각하세요.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내 아픔같이만 생각하면 됩니다. 올라가려고 하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잘났든 못났든 나같이만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둘로 보지만 않는다면 자비심으로 행을 하실 겁니다.

길을 가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를 본다 해도 '저걸 어떡하나 살려줘야지.' 하고 생각할 것도 없이 보는 순간 한생각 하는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는 순간 자동적이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배우는 게 많고, 또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그 도리를 알았겠습니까. 나는 저 산천초목,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을 보아도 '너희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이 도리를 알았겠노. 그러니 너희들이 모두 스승이며 굴러다니는 돌 하나마저도 스승 아닌 게 없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선지식들께서 천칠백 공안을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면 공안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화두라는 걸 아시고, 수박이라면 무조건 잘라서 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또 열매가 열리면 모든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구요. 그럼 오늘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문제도 더 퍼지지 않게 마음을 내 주시는 것이 국민 된 도리요, 세계적인 인간의 도리이며, 한마음의 도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간절하게 마음들을 모아 가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로 보지 않는다면 자비행 할 수 있어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40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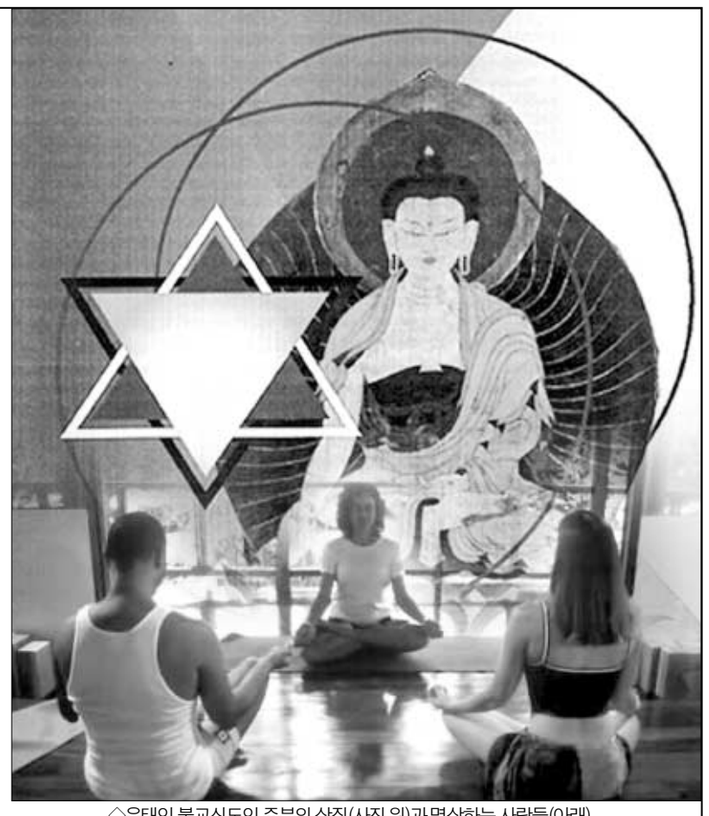
가벼른 언덕을 넘듯 그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유대·기독교인 명상열풍에 동참



◇유태인 불교신도인 주부의 상징(사진 위)과 명상하는 사람들(아래).

종교, 장소 상관없이 생활화
엘 고어 등 정·재계 인사 많아
일종의 문화 코드로 이해

불교의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진 명상이 이웃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면? 서구인들이 명상의 매력에 빠져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명상을 생활화하는 서구인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는 개신교와 유대교도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스탠다드 타임즈>는 지난 9월 7일 '개신교도들도 명상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독특한 명상 열풍을 보도했다. 이 신문에 보도된 유니테리언 분파의 한 교회(Unitarian Memorial Church)는 올 여름부터 정기적으로 명상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교회의 앤 폭스 목사(Rev. Ann Fox)는 "옴은 힌두어로 신의 소리라는 뜻"이라며 자칫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불교의 진언을 "창조주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진언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라"며 신도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앤 목사는 "개신교인 중에서도 평소 (명상을) 해보고 싶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 수업의 두 가지 목적은 첫째, 잡념 없이 현재에 충실하며 사는 것과 둘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포함해 1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명상인구 중에는 전 미국 대선 후보자 앨 고어와 미국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포드자동차의 CEO 빌 포드 등 정·재계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대부분이 청교도적 전통을 따르는 동시에 명상을 생활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앨 고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상생활에서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과 함께 명상도 하고 있다"며 "기도와 명상은 분명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밖에도 유태인 불교신도를 일컫는 '주부(JUBU)'의 숫자도 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이들 유태인 불교도들은 불교를 부담 없는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불교가 유대교와는 달리 어릴 적부터 배워야 할 계율이나 강제적인 신행 내용이 없어 유태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세계 2차 대전 이후 정신적, 물질적 박탈감을 느껴온 유태인들이 정신적인 치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타종교인들에게도 명상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서구사회에서 명상이 종교와는 다른 일종의 문화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종교와 장소에 구애 없이 스트레스 해소나 정신건강을 이유로 명상을 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오랜 시간 추구해 온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 역시 물질적 가치를 높여 정신적 공황상태의 원인이 됐다. 이제 물질적으로 안정된 서구인들이 내면의 허전함을 명상 등 동양의 가르침과 수행법에서 찾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평화는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달라이 라마, 센트럴파크 9·11테러 추모법회



"비둘기만 날린다고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바로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9월 21일, 4만여 뉴욕커들은 아침부터 센트럴파크 이스트 메도우로 모여 3년만에 방문한 세계적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반겼다.(사진)

달라이 라마는 이날 9·11 추모 설법에서 '어떻게 폭력적인 마음을 없애며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 특유의 위트 섞인 법담을 들려주었다.

"9·11 테러 현장도 다녀왔다"고 밝힌 달라이 라마는 "전쟁은 매우 구시대적인 것이며,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적이 된다"고 말했다.

뉴욕= 강유신 특파원

中, 천년된 티베트 대장경 발견

검은 색의 종이 위에 금과 은가루로 씌여진 정결하고도 아름다운 불경이 발견됐다.

중국 칭하이(青海)성 위수(玉樹)지방의 장족 자치구에서 발견된 이 대장경은 1000년 이상 된 것으로, 종이가 파손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경문의 수려함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장경의 내용은 방대하고 수량도 매우 많아 160여 자루에 이르렀다.

칭하이 민족 학원의 장학학과 학과장인 상지에(桑傑) 교수는 "이 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던 동창(東倉)씨 가문은 당시 강대한 부족국가의 한 집안"이라고 밝히면서, "대장경 외에도 여의탑, 전경통(轉經筒), 격살이(格薩爾) 왕이 썼던 화살 등 많은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이상미 통신원

獨, 세계 평화 위한 종교기도회

지난 9월 7~9일 독일 아헨(Aachen)에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범종교 기도회'가 열렸다. 세계 각처의 주요 종교 대표들이 쟁과 평화-종교와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 행사는 1986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천주교 주교들의 모임이 있었던 이태리 아씨시(Assisi)에서 아이디어를 준 이후, 독일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였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지에서 20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고, 그 중 세계의 각 종교 대표 인사(불교, 기독교, 천주교, 회교도, 유대교, 힌두교 등) 500여명도 함께 참석했다. 행사의 목적은 문화와 종교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독일= 윤화진 통신원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③ 미국 나로파 대학

서양 최초 인가, 트룽파 린포체 설립
전통 이은 '여름 글쓰기 교실' 유명
티베트 원전 담은 2,200여 장서 보유

미국 콜로라도 주 볼더 시에 위치한 나로파 대학(www.naropa.edu)은 1974년 트룽파 린포체(Chogyam Tungpa, Rinpoche, 1940~1987)에 의해 설립됐다. 티베트의 카규파와 닝마파의 11번째 활불(活佛)인 트룽파 린포체는 196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종교학, 철학, 미술 등을 공부한다. 그는 이후 1970년 미국에 건너와 '동서양의 전통과 문화의 조화'라는 정신아래 포교를 시작해 샴발라 수행센터와 함께 불교대학으로서는 서양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나로파 대학을 설립하게 된다.

이 대학의 이름은 11세기 인도의 날란다 사원에서 수도생활을 한 불교학자이자 수행자인 '나로파'에서 따온 것이다. 나로파 대학은 설립 초기 명상, 다도, 티베트어, 산스크리트, 심리학, 시낭송회,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 여름 학기만을 개설한 불교대학으로 출발했다. 이때부터 시작한 여름 글쓰기 교실(Summer Writing Program)은 지금까지도 그 전통과 명맥을 이어오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작문 강좌가 됐다. 이 밖에도 석·박사학위 과정에 노인학·불교학·참여불교·환경학·상담심리학·명상 심리치료 등이 있다. 특히 참여불교 이수 과정에는 불교윤리, 철학, 사회 참여적 수행, 비폭력 운동 등에 관한 수업이 마련돼 있다.

또 이 대학의 '앨런 긴즈버그 도서관(Allen Ginsberg Library)'에는 티베트 원전 1만5천여 장의 내용을 담은 2천 2백여 권의 책이 보유돼 있다. 도서관의 이름은 미국의 대표적인 불교시인으로 꼽히는 앨런 긴즈버그의 이름을 딴 것이며, 그의 추모회와 학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로파 대학이 주창하는 이념은 △지금 이 순간을 깨닫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열린 마음을 갖자 △불교적 교육 전통을 잇자 △세계의 문화와 전통을 습득하자 △파벌을 두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자 등이다. 그래서 나로파대 학생들은 대학의 설립이념에 걸맞게 타 대학과 차별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모든 나로파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것은 '필수 명상'과 '선택 명상' 과정이다. 또한 주변의 병원, 양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게 해 학생들의 지역사회 봉사를 의무화했다.

나로파 대학의 존 콥(John Whitehouse Cobb) 총장은 "이론적인 계획보다는 실천이 먼저라는 선학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나로파의 학생들은 참여불교의 이론을 다양한 형태로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색은 미국 대안교육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기자



◇나로파대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명상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침술·명리학 최고위 과정

침술과 명리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원하십니까?
평생교육을 추구하는 본 학회에서 3개월만 공부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주추명학 강좌(초~고급)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용신법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으며 역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2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3. 10. 8 (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야간반 : 3개월 완성)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사암침술 강좌(초~고급)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정골방법, 종합실습
▶ **개강** : 2003. 10. 6(주 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야간반)
▶ **강사** : 침술즉효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고급)

매화의 맑고 독특한 향처럼 오직 수리학(1~9숫자)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매우 재미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개강** : 2003. 10. 10(주 1회 - 매주 금요일. 주·야간반 : 1개월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정통풍수지리 강좌(초 ~ 고급)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개강** : 2003. 10. 8(주 2회 - 매주 수, 목요일. 야간반 : 2개월완성)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355-831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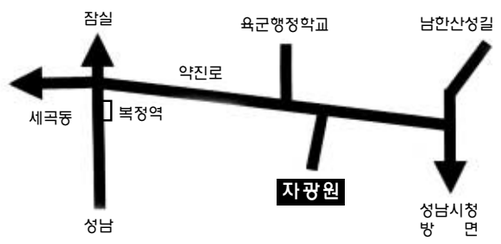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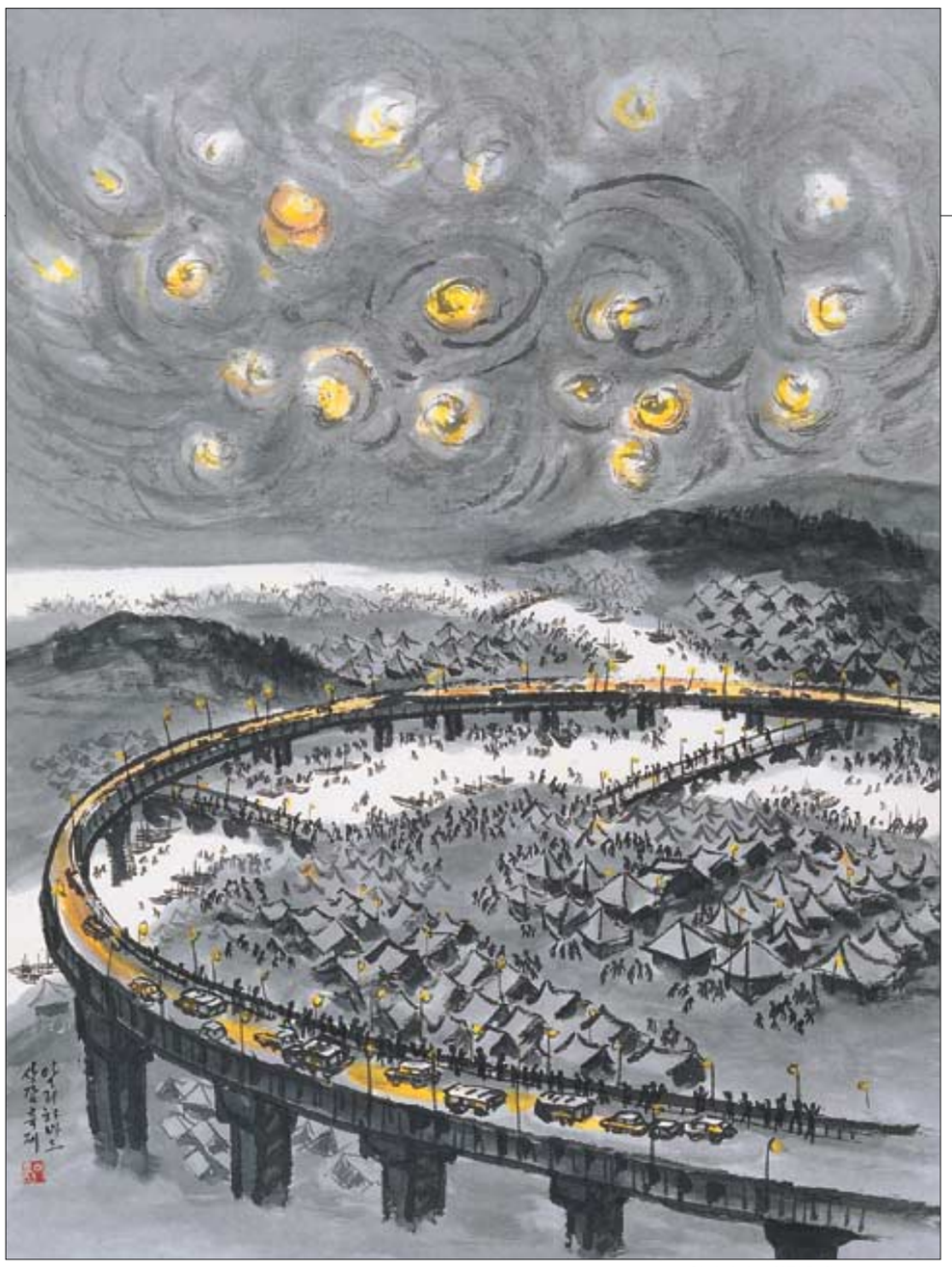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알라하바드 상감축제 (172×137cm).

과거의 죄 강물에 띄워 보내고

천막·보트·한없는 인파에 최대축제 실감

참회와 공동체 확인하는 민족의식 담아

인도그림기행 19

그림·글 이호신

은하의 강과 만인의 노래

(인도 청년과 상감 대축제)

"형님, 잘못하면 때려 주십시오."

한국말을 스스로 배웠다는 가이드 라전싱(Rajan Singh, 26세)은 델리대학을 나온 재원으로 운전석 칸에 다가와 짓궂게 물어대는 내게 모든 것을 친절히 답해준다.

지구촌의 가족으로 어느덧 마음이 통해 형제애로 맺은 아름다운 만남. 그러나 그의 말속에서 한국인의 언어관습이 그냥, 농담으로 지나치기엔 오해의 소지가 클 법도 하다. '잘못하면 때려달라니', 도대체 누가 일러준 말인가.

경제적 자립과 공부하는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주로 한국인을 위한 관광 통역가이드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는 라전싱. 그는 준수한 외모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청년으로 세계의 종교를 영적으로 통합,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저서를 내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스물여섯의 청년으로 대망을 가진 그는 틈틈이 영문 독해를 노트에 옮기며 빈틈을 아끼는 성실한 모습속에, 가끔씩 하는 말은 인도인의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형님, 인도는 언젠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어떠한 종교든지 다 받아들이고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영적, 정신문화로서 이념과 종교의 대립을 와해, 수용하는 터전과 전통으로 인도만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따지지 않고 순순히 그의 말을 경청해 주었다. 아직은 너그러운 형이 되어주고 싶어서….

오늘(1월14일)부터 인도 전역에서 사흘 동안 열린다는 추수감사절(Harvest Festival)은 남부인도에서는 퐁갈(Pogal)축제로 유명하다. 햅쌀로 밥을 지으며 모든 가축들을 강으로 데려가 씻기고 여러 장식으로 동물들을 치장하는 의식도 있단다.

그 행사에 동참하려는 마음인가. 운전사 란지트 꾸마르(Ranjeet Kumar, 25세)는 이마에 노란 칠과 붉은 점을 찍고 그 특유의 웃음을 띠우며 운전석에 오른다. 그리고 운전대 앞에 모셔둔 삼지창을 든 시바 신(神)께 향을 피우고 예를 올린다. 기도인즉 오늘도 무사히 안전운행의 행운을 지켜달라고. 신혼인 꾸마르는 아내를 처가에 맡겨두고 장거리 출장 중인데 운행중엔 곁눈질과 말을 삼가는 것이 철칙인양 열흘이 지나도록 침묵속에 운전대만을 잡고 있다. 그의 끈기와 집념은 참으로 무서울 정도인데 아무리 숙소를 권해도 조수(디네스)와 꼭 차에서 잠을 자며 찬 새벽이슬을 털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그들의 의식으론 운행기간엔 차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상 매일 새벽 안개를 뚫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꽉 짜인 행로를 일행은 꾸마르 청년 하나를 믿고 졸면서 간다. 거리의 풍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운전석칸을 들락거리는 나는 5m앞도 보이질 않는 짙은 안개속을 그냥 감(感)하나만 믿고 질주하는 차에서 사실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다년간 무사고 운행에다 열악한 도로 사정을 훤히 꿰고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꾸마르의 진지한 자세가 일행을 잠들게 하였다.

특히나 하루 12시간을 주행하면서도 피곤해 하지 않는 표정이며 앞창의 뽀얀 안개로 운전석에 앉은 검은 꾸마르의 뒷모습은 어느 순간 마치 붓다의 상(像)으로 연상되는 느낌이었다. 하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한 붓다의 길이나 일행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저 의지의 청년 꾸마르의 마음이 하등 다를리 있겠는가.

어쩌다 소변을 위해 잠깐씩 차를 세울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꾸마르, 베스트 드라이버!"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외쳤고, 그는 만족한 듯 씩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내세우며 응답한다.

그렇게 깊은 안개를 뚫고 종일을 달려 노을이 지고 이내 별이 돋아오른 시간, 차는 마침내 바라나시로 가는 길목, 알라하바드를 달리고 있었다. 수많은 차들이 갑자기 몰려 고가도로 통행이 자주 끊기는데 사정인즉 인도 최대규모의 대축제 '상감(Sangakm)축제'가 다리 밑에서 열리고 있는 탓이란다.

정차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다리 밑을 살펴보니 천막과 보트, 그리고 사람들이 한도 없고, 은하가 잠긴 강물은 흰광목을 풀어 놓은 듯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행운의 여신이 돕는 날이다. 잠시나마 저 엄청난 인도 최대의 축제를 실감해 볼 수 있다니.

바라나시의 서쪽 135km 지점에 위치한 알라하바드는 예로부터 쁘리야그(Prayag)라 불리며 하르드와르, 나식, 웃자인 등과 함께 힌두의 4대 성지로 불린다. 알리하바드란 '신이 사는 곳'이라는 뜻인데 마을 북쪽을 흐르는 갠지스강과 남쪽의 야무나강이 만나는 지점을 상감(합류점)이라 부른다. 그리고 지하로 흐르는 사라스비티 강도 함께 만나 트리베니 상감(3개의 강이 합류하는곳)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축제를 통해 공동체와 참회의 시간을 갖는 민족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듯 하다.

또 매년 1~2월의 축제 이외에 12년마다 한번씩 꿈부 메라 대축제가 열려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축제는 힌두의 4대 성지를 3년마다 순회하며 열린다고 한다.

축제는 대낮 태양 아래 펼쳐지는 것이 장관이겠지만 한편으로 별빛 아래 풍광도 이채롭다. 즉 강물과 함께 흘러가는 만인송(萬人頌)이 어둠속에서 은근하게 들려오는 느낌이다. 간디 이후 인도국민에게 존경을 받았던 네루수상의 유해도 이곳 강물에 뿌려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강을 지나자, 별빛은 그새 등 뒤로 사라진다.

인간의 희망으로 별이 뜨는가. 별이 돋아 꿈을 설레게 하는가. 별빛이 내린 저 강물속에 내 작은 소망도 함께 띄워 보내고 싶다.

lhs1957@lycos.co.kr



◇가이드 라전싱과 운전기사 꾸마르(38×46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화제의 염주 북한염주

합격의행운을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2문제 맞추지 못해 낙방하는 수험생이 50%이상 된다는 통계를 보면 이것은 실력의 문제 보다 마음의 안정이다 그러므로 금강염주를 수험생 방에 걸어 놓으면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힘으로 시험 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영험의 필승 염주입니다.
시험당일 수험생은 금강 108염주를 몸에 꼭 지니고 가야합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터님 앞에 놓으시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과 강한 흡착 및 살균작용으로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10분 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깊게 숙면을 하며 꿈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뻐근하며 어깨가 뭉쳐있는 것도 없어지고 몸이 개운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또한 천식등 기침을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며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은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지며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세요.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 처럼 사용하시고 7일만 사용하면 입냄새는 없어지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되어요.

1set면 1년정도 사용하며 온 가족의 치아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생약초 치약입니다. 본 제품은 사용해 보신 분들에 의해 그 진가가 더욱 증명되고 있습니다.

※ 1set가격은 60,000원입니다.

문의전화는(02)722-2890입니다.

♠농협: 360-12-046446 최 능우